#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5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367 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무료택지 분양하는 불교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법석 조대** 이두 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팔자타령만을 하고 점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여 나쁜 점, 잘못된 점을 참회하고 새롭게 발심하는 자세가 불자에게는 필요하지요"

"욕심 하나만 잘 다스려도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지고 주위까지 환해져요. 우리는 날마다 탐진치를 뛰어 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 재가불자 참선열기 뜨겁다

## 조계사 수행자 평소 150명이 450명
## 시민선방 4년동안 2배 늘어 60여곳

### 본지 60여 시민선방 조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참선수행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본지가 전국 60여 시민선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계사, 영남불교대학등 시민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불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8년 30여 곳이던 재가 시민선방도 4년 동안 2배인 60여 곳으로 늘었다.

4월 21일 재가자 수행원을 개원한 조계사에는 평소 150명에 이르던 참선 수행자가 450여명으로 늘어나 공간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대구 영남불교대가 운영중인 시민선방도 60~70여명에 이르던 수행불자들이 최근 1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한번 진행했던 참선프로그램을 목, 금요일 2회로 늘렸다.

재가안거를 시행하는 시민선방에도 해제이후 계속 수행에 몰두하는 불자들로 인해 결제 해제가 따로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시민선방을 설립한 선학원 중앙선원에는 해제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불철주야 참선정진을 하는 수행불자가 평균 3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안국선원 500여명, 통도사 부산포교원 80여명이 정진 중에 있다.

시민선방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98년 IMF사태 당시 시민선방을 찾는 재가자들이 늘어나면서 길상사, 무불선원, 봉은선원, 부산불교교육원, 봉선사, 보리수선원, 보현문화회관, 보광사, 전북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등 30여곳의 선방이 새로 개원됐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져 5일 조계종 원로의원 청화스님이 서울 도봉산에 광륜사 시민선방을 (관련기사 23면), 10일 경기도 분당에 하얀선원 선방이 확대 이전 개원하는 등 시민선방은 늘고 있는 추세다.

사찰들은 늘어나는 재가불자들의 참선열기에 부응키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조계사는 늘어나는 재가수행자들을 위해 참선 입문과정과 참선 수행과정으로 나누고, 습의지도 스님을 별도로 배치하여 이론과 습의교육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조계사 금은수 계장은 "불자들이 환희심을 내며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자율적인 방식에서 체계적인 선실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며 "그동안 사찰에서 기도와 교학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참선수행에 목말랐던 불자들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부처님전에 올릴 찻잎 따는 스님들

사찰에서는 맑디맑은 자연의 정기가 한데 모이는 곡우 무렵 만들어진 차를 최상으로 친다. 곡우가 지난 4월 24일 순천 선암사에서 새로 돋아오른 야생 찻잎으로 부처님오신날 올릴 차를 만들기 위해 스님들이 찻잎을 하나 하나 따고 있다.

순천=고영배 기자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5월은 '청년 포교정진의 달'

'한국불교의 허리' 청년불교 활성화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첩경이다.

최근 몇 년간 회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단체들이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한 달을 '청년포교 정진의 달'로 선포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청년단체들이 봉축행사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자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대사회적 역에서 부산봉축연합회가 주최하는 제등행사에 '불자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이어 낙동강 도보순례 회향식을 가져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1977년 6월 첫 창립법회 이후 4월 30일까지 2600회 법회를 봉행한 조계사청년회는 내부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 하에 한달을 '청년포교 정진의 달'로 선포했다.



'3천배 용맹정진'으로 스타트를 끊은 조계사청년회는 '2002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범불교인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아예 어깨띠까지 맞춰 두르고, 50만장 홍보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대불련도 각 지역별 지부단위로 지역 특색에 맞게, '가족과 함께 하는 제등행렬', '부처님오신날 맞이 사찰 노력봉사', '자비실천보살단' 결성, 군법당 법회 봉행, 백혈병 환자 돕기 모금 활동 전개 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실천행사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청년불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 영역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봉축행사에서 청년 불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우(취재1부 기자)

###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공양계

1. 불자님은 식사를 할 때 식사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①공양계를 외우며 공양의 바른 의미를 되새긴다.
   ②행동은 하지 않고 감사의 생각만 한다.
   ③간단하게 합장을 한다. ④별 생각 없이 식사 한다.
2. 불자님은 공양게 의식을 얼마나 잘 실천하십니까?
   ①매번 한다. ②가끔 생각나면 한다.
   ③주변 사람들이 하면 함께 한다. ④절에서만 한다. ⑤기타

설문 참여: 5월 2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8호 9면에 실습니다.

## "하나의 생명문화 건설하자"

### 교황청, 부처님 오신날 경축 메시지 보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월 26일 바티칸 종교간 대화를 위한 주교협의회 의장 Francis Arinzel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으로부터 '2002년 부처님오신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교황청 아린제 추기경은 이 메시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불자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축일 맞이하시기를 기도 드린다"며 "인간 존재에 대한 공통된 존경 위에서 불자들과 그리스도인 들이 하나의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도록 힘쓰자"고 밝혔다.

아린제 추기경은 또 "젊은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경을 가르치는 교육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낙태, 안락사, 인간생명에 대한 유전학적 실험 등 최근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제 3회 등 경연대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해바라기등.

## 등 경연대회 열려

###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 한마음선원 해바라기燈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는 4월 25일 제 3회 등 경연대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한마음선원의 해바라기燈,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이규호 불자의 봉황등을 선정했다.

또 단체부문 우수상에는 능인선원의 '보리수 잎등', 특선에는 사자암에서 출품한 '팔모등', 개인부문 우수상에 '도자기 등', 특선에 '행복의 시간', '보살의 마음'이 선정됐다.

한편, 수상작은 13일부터 강남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에 전시되며, 단체부문 시상식은 12일 등대문운동장 연등법회에서 개최된다.

김원우 기자

#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4~5일

## 학자 200명 · 29개 단체, 11개 분과로 나눠 발표

전국 규모 불교 학술대회로는 처음인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4~5일 동국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학결집대회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학 전공자와 불교학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논문 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자리다. 석사학위를 가진, 대학 강사 이상의 불교학자 200명이 신라불교, 고려불교, 불교 등 11개 분과로 나눠 발표한다. 5개 종립 학교와 14개 학회, 10개의 연구 등 29개 단체가 참여한다.

공동 주제 발표는 '한국 불교학의 현황과 전망'으로 정했다. 권기종 교수(동국대, 한국불교학회장)가 '한국불교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을,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이 '한국 불교의 주요 불전과 교단 형성'을, 양은용 교수(원광대)가 '한국 불교 문화의 전통과 그 상징성'을, 혜정 정사(회당학회장, 진각대 학장)가 '현대사회에서 한국 불교의 역할'을 발표한다.

대회장 목정배 교수(동국대)는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학회, 연구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기는 처음"이라며 "한국 불교의 학문적 잠재력을 저울질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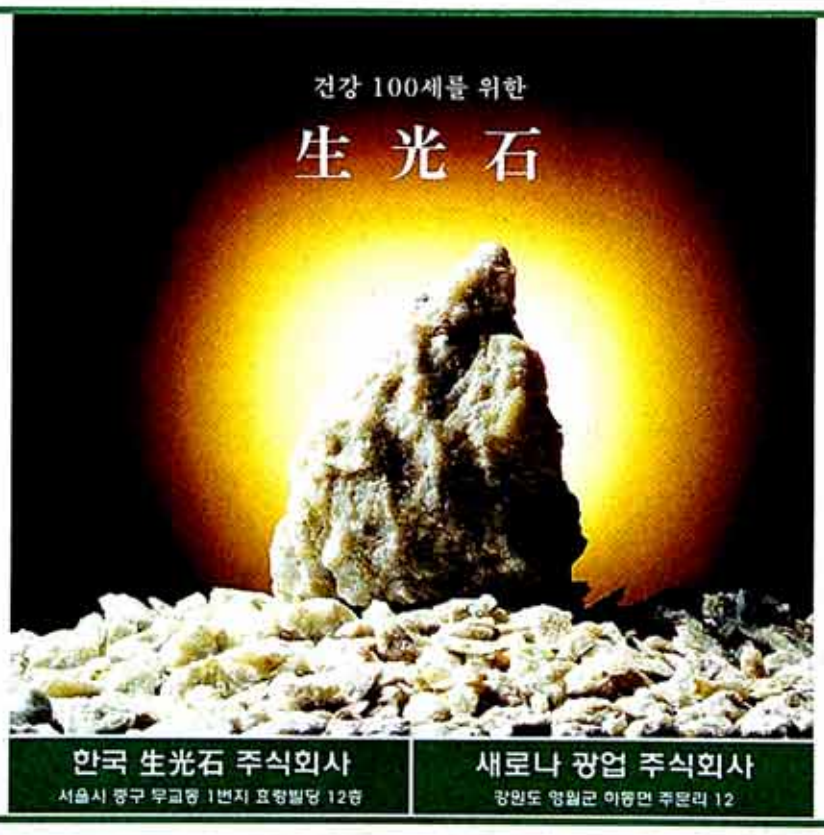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불교정보화 실태조사가 4월 30일로 마감됐습니다. 전화와 우편, 면접 설문에 성심껏 응대해 주신 전국의 사찰과 단체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의 결과는 5월 중에 개괄적으로 발표되고 6월에는 불교정보화 백서를 발간, 불교계의 정보화 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리점 모집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내 몸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도
生光石 스스로 방사하는 生光石 에너지는
우리 몸 세포의 분자 운동 에너지와 같아서
내몸 세포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 과로와 운동 부족
산성 식품의 섭취로 병들어 가는 현대인들
특히, 각종 성인병과 암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生光石에너지는 예방과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을 드려
자연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 生光石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무교동 1번지 효령빌딩 12층

새로나 광업 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 12

21세기는 생명공학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은
훌륭한 선행중의 으뜸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뜻을 모아
선행의 동반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지역별로 선행의 동반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문의 대표전화 : 02)752-9900

한국生光石(株)는 生光石 원석의 개발에서부터
生光石을 응용한 30여종의 상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 체재를 갖춘 건강상품관련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성장산업인 건강 산업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 生光石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사 설

### 사찰을 지역사회 문화중심지로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동학사에서 4월 24일 불교문화원을 개원했다. 불교한문서당, 꽃꽂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의 전당이 되리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찰과 인접한 곳에 자리잡고 있던 음식점 5곳을 헐고 그 자리에 건평 303평의 건물을 지어 인근 신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정신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불교지만 일종의 정신적인 골동품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아 온 지 오래되었다. 이런 가운데 동학사가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문화원을 개원한 것은 불교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기에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 시대에 사찰은 열반회, 욕불회, 성도회 등의 고유 행사를 개발하여 사람들의 문화의식을 제고시켰는가 하면 사회복지사업 등을 시행하여 일반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었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 역할도 했다. 우리 나라도 고려시대까지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교육, 의례, 축제의 장소였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중흥하는 첩경은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한 현상이 종교지만 종교는 문화 창달의 중요한 동력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당까지도 콘서트홀로 내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중생이 없는 부처는 존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동학사의 불교문화원 개원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미8군 법회의 의미

국제포교사회가 3일 처음으로 미8군 법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참으로 경하할 일이다.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저녁 한미연합사 장교식당에서 미8군 장병 등 약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법회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이 법회에는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의 법어에 이어 현각스님이 참선강의를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신행활동 중인 저명한 외국인 스님들이 동참, 법회를 이끌어갈 계획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8군을 상대로 한 법회는 3만8천여 미군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넓게 확산시킬 수 있고, 이들이 제대 후 우리 불교의 참모습을 자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는 이 같은 법회를 가능한 한 정례화하면서 체계화하여 주한 미군 장병과 그 가족만이 아니라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진 많은 외국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한국불교를 세계에 소개할 영문자료 내지는 관련 서적을 편찬 발행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 한국불교를 체계있게 대외에 소개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료 내지 관련 서적을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한국의 비구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오직 난감함만이 느껴진다. 관련 서적도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들에게 개방을 허용하는 비구니 사찰도 없다 보니 이를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불교라는 거대한 지도위에서 한국불교가 어디쯤에 처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수하게 많은 이런 초보적인 것부터 해결해 가는데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가사통일 등 衣制개혁 본격화

## 조계종, 실무연구회 구성 종단휘장 제작

조계종이 승가 의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계종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의제개혁을 위한 실무연구회를 구성하고, 법계에 따른 가사구분, 가사 색 및 천의 통일 등 승가 의제 통일화 작업에 들어간다. 의제실무연구회 구성은 지난달 말 열린 제2차 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조계종 법계위원회 산하 기구로, 법계위원회 간사 종진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 · 기획국장,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 연구과장, 승가복식 전문연구가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의제실무연구회 구성은 승단의 위계 확립 방안 중 하나로 승가의제를 재정립하겠다는 종단의 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제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의제실무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제위원회를 설치해 승복 유통 질서 확립 및 의제의 종단 관리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의제실무연구회 구성을 계기로 종단 의제 개혁 작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우선 가사에만 초점을 맞춰, 현재 법계와 관계없이 착용되고 있는 가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가사의 색상을 통일하는 한편, 조계종 스님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휘장(마크)을 디자인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5 · 7 · 9 · 15 · 25조 등 10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가사 조수를 5급부터 1급까지 법계에 따라 다섯 가지로 통일하고, 휘장의 경우도 법계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해 부착토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일단 휘장을 종단에서 부여하는 등 종단차원의 관리를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혼용되고 있는 반가사 및 온가사를 온가사로 통일하고, 사찰마다 다른 가사색의 농도도 일률적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의제개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고명석 과장은 "의제개선작업은 스님들의 관심과 동참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가사와 관련한 통일화 작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승복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 선포식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0일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탄생 1백주년 선포식을 총인원에서 개최한다.

혜일 총인과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과 불교계, 정관계 인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릴 이날 선포식은 오후 1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법회 및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장엄등 전시회 및 북한미술작품전 등도 마련된다.

한편 진각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51개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한명우 기자

# 한중일 서울불교대회 조불련 참여 제의

## 봉축일 · 광복절 공동법회 정례개최 협의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4월2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5차 한중일 대회시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의 공식 참여를 제의키로 했다. 또 부처님오신날과 8.15공동법회 행사등 남북불교 공동행사 정례화 및 준비원칙도 협의키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5일부터 7박8일간 방북하는 종단협 대표에 홍파스님(종단협 사무총장), 혜암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 혜공스님(태고종 기획감사실장), 무원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을 확정하고, 조불련과 북녘동포 지원사업 창구단일화 원칙과 북한 단정재료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 은해사·화엄사 산중총회 3 ·17일 주지후보 선출

영천 은해사와 구례 화엄사가 5월 3일과 17일 오후 1시 각각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교구본사주지 입후보 자격은 승랍 25년 이상이며, 연령 만 45세 이상의 승려로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 승이어야 한다.

한편 화엄사는 9일까지 주지 입후보자 등록 및 6일부터 9일까지 거주승 신고를 받는다. 문의 061-782-7600. 김원우 기자

## '현대' 만평

김 영 민




# "사찰개방 불교전파 계기로"

## '주5일근무제 불교계 미치는 영향 대응' 세미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장곡)가 5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하는 '주 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미리 배포된 글을 통해,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시민들의 종교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것이라며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노부호 교수(서강대 경영학)는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하 발제문을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교회의 주일 미사 참례자의 감소를 비롯, 본당 소속개념의 약화 및 본당 사목의 효율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오히려 많은 사찰이

### 다양한 중도적 삶 유형 제시를
### 사찰을 종합복지타운 형태로

발제문을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교회의 주일 미사 참례자의 감소를 비롯, 본당 소속개념의 약화 및 본당 사목의 효율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오히려 많은 사찰이 산과 바다를 접한 전원 속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주말 여가를 보내는 국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스님(대둔사 수련원장)은 '전통사찰의 대응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산사를 개방해 심신이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산사의 대응은 몸과 정신의 중도, 노동과 수행의 중도 등 다양한 중도적 삶의 유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산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은 '도심사찰의 대응방안'이란 발제문에서 "도심사찰은 기존의 법회와 기도 등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연있는 산사를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도심사찰은 취미생활에서 신행생활까지, 나아가서는 보살행을 하는 종합복지타운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 본사사령

김원우 ㉮ 편집국 취재1부 차장
김학표 ㉮ 경영관리국 광고부 차장
최정근 ㉮ 정보센터 차장대우
하동규 ㉮ 정보센터 과장

4월1일 부

**제보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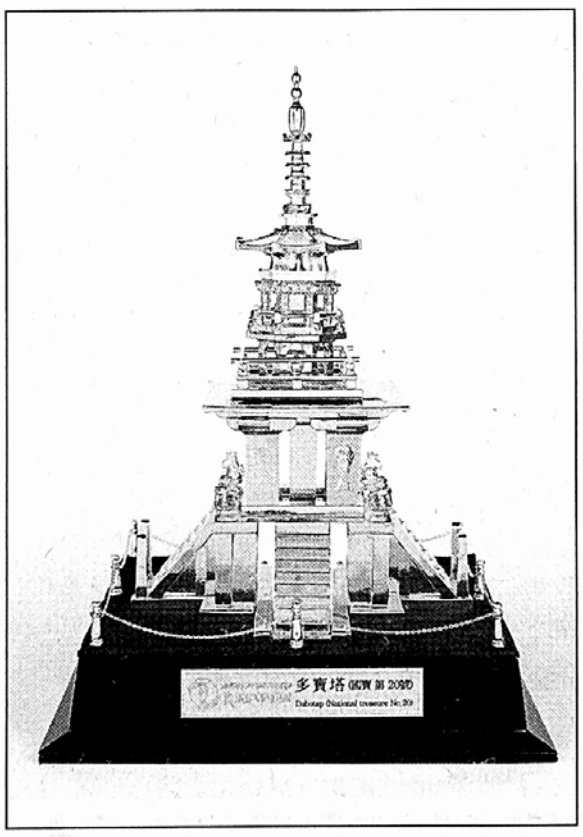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시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2002 FIFA WORLD CUP KOREA JAPAN OFFICIAL LICENSED PRODUCT

# 한국최고 문화재 다보탑과 2002월드컵이 만났습니다!








## 2002 FIFA월드컵 공식 인정상품

세계적인 2002 한일 월드컵을 맞아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재(국보 제20호 다보탑)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실제 원형의 미를 살려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함으로써 우리가정의 평화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큰 뜻이 있으며 또한 우리 마음의 수련을 통하여 탑의 모양처럼 둥근 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기수행의 상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품 사양과 품질] ■ 크기 : 230×230×360mm ■ 재료 : 동, 아연 주석의 합금 + 24K 순금도금(순도 99%) ■ 소비자가격 : 220만원(좌대 유리케이스, VAT 포함)

# 한 정 판 매

## 전 세계에 2002개 뿐 !!

변하지 않는 순금의 멋 ! 한국을 대표하는 2002 월드컵 최고의 명품 !
제품 하나하나 고유번호(1~2002)를 정밀조각하여 소장가치가 으뜸 !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아름다움에 누구나 매료됩니다 ! 소중한 분에게 영원히 기억될 특별한 선물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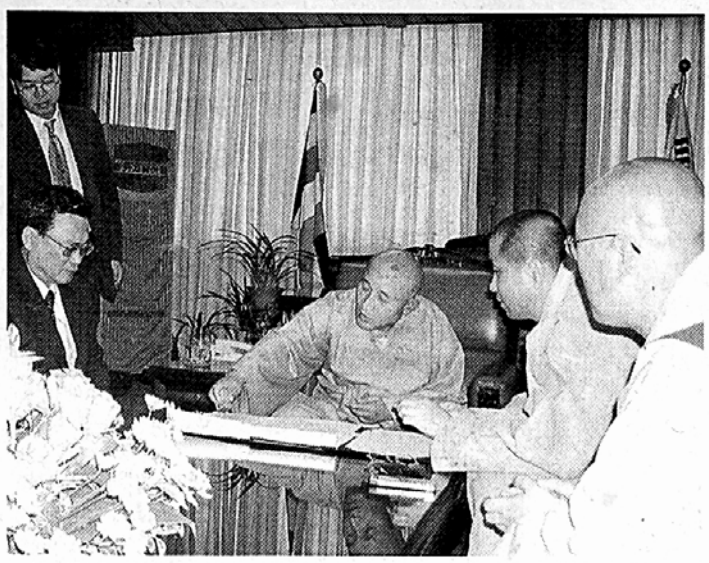
이 제품은 인기품목이므로 단시일안에 품절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량이 한정수량에 도달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주문전화 : 055)275-3612~3 FAX : 055)275-3627

2002 FIFA월드컵 금장 다보탑 판매 업체 모집
■ 대상지역 : 전국 ■ 모집대상 : 지역총판, 대리점 ■ 자격요건:유통업자 및 매장소유자
■ 문 의 : (주)국제스포츠 055)275-3612~3

# 불교역사문화기념관 30일 착공

## 380억 투입, 지상 · 지하 각 4층 내년 10월 완공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4일 동부건설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가운데)과 백호익 동부건설 사장이 조인서에 사인하고 있는 장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기공식이 4월 30일 오전 11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교구본사주지 등 건축부지 현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공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총무원장 정대스님 기념사, 남궁진 문광부장관 축사, 시공사 동부건설소개, 사업개요 설명, 축가, 시삽순으로 진행되며 증앙신도회장, 조계사 신도회장이 성금을 전달한다.

연면적 5,085평, 대지 1,375평, 건평 694평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2003년 10월 완공예정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하 역사기념관)에는 전시실, 공연장, 수장고, 주차장, 불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멀티미디어라이브러리, 총무원장 집무실 및 회의실이 갖춰진다. 특히 지하 1층 650평에 마련되는 전시실에는 한국불교 1600년의 역사와 함께한 불교유물을 전시하여 성보문화재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게 된다.

이를위해 기념관 추진위원회는 전시실의 경우 박물관 전문시공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시설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관을 완공한 이후 건립되는 2층의 별관건물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이 마련된다.

지난 1996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문화회관 6월 기공'을 발표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조계사 무허가건물, 사도와 사유지등의 사안이 불거지며 2001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7번에 걸쳐 인.허가 심사를 거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 전시실, 국제회의실, 공연장 등 갖춰
### 신도 모금 추진, 공사진척 인터넷 공개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이후 만 6년이 지나서 기공식을 갖게 된 역사기념관은 지난 1937년 조계종 총본산건설 운동으로 완공된 조계사 대웅전에 이은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40주년 만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총본산건설 불사르서의 위상을 가지고 추진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역사기념관 건립불사는 2001년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불사도와 사유지 구역을 제외하고, 조계사와 총무원지역을 나눈 지적 분할을 통해 3월 18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립추진위원회는 4월 22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공사를 동부건설(대표 백호익)로 결정, 24일 동부건설과 180억원에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역사문화기념관 불사비 총액은 640억원. 이중 이미 확보한 부지매입비 260억원을 제하면 실 건립비용은 380억원이다. 이중 50%인 190억원은 정부예산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올해 70억, 내년에 12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역사문화기념관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자체 예산의 비중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추진위 실무를 맡고 있는 이석심 총무부 차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총무원 예산과 정부 예산으로 짓겠다고 선언했으나, 사부대중의 뜻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모연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금운동이 이뤄질 경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소식지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진척상황을 소상히 공개하도록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이웃 위해 '희망의 등' 을"

## 등달기 운동 펼치는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주최하고 생명나눔실천회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여성개발원이 공동주관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선포식이 4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됐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금을 전달해, 일상속에서 깨달음의 사회적 사회로 회향하는 신행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복적인 신행문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 실천을 전개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파일 등을 달 때 등을 하나 더 다는 것입니다. 신도 또는 신행단체들이 봉축 등을 달 때 별도로 사찰이 지정한 '희망의 등'을 달아 이웃을 위한 축원발원의 형태로 '○○가 ○○를 위해'란 꼬리표를 달면서 일정액의 보시금을 원하는 복지단체나 개인에게 전달하도록 기탁하면 됩니다."

◈현재 신도들의 반응은.

"불자 개개인은 물론 조계사, 봉은사, 수덕사, 도선사, 수국사 등의 주요 사찰신도회와 생명나눔실천회, 불교여성개발원, 우리는선우 등 신행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축시즌이 다가오면서 개별 사찰과 신행단체들의 동참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후속 계획은.

"봉축기간 이후에도 보시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찰 및 신행단체가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나 개인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토록 하고, 모범적인 신행문화는 발굴해 불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참문의= (02)733-7277

### 자기 위주 신행문화 사회 회향 유도
### 보시문화 봉축후도 이어지게 노력

회향을 추구하는 신형혁신운동에 나선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으로부터 행사의 취지와 활동계획을 들어보았다.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올해는 월드컵을 비롯하여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큼직큼직한 국가대사가 달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에 발맞추어 모든 불자들이 자비정신의 실천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신행혁신운동의 계기로 삼으려는 뜻도 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신행문화에서 이웃과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조계종, 왜 의제개혁 나섰나…

# 현상태론 위의 · 질서 확립 어려워

조계종이 이달 중 '의제실무연구회'를 구성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미뤄져오던 종단 의제 개혁이 본격화된다. 사실 의제 개혁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계종은 지난 96년 율사들을 중심으로 의제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1년여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또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조계종이 또 다시 의제 개혁에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사문화되다시피 한 현재의 의제로는 더 이상 승가의 위의와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계와 관계없이 가사를 착용하다보니 승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수행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각급 승가고시가 정착되고 지난해 9월 법계법이 제정 · 시행되면서 의제 통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도 한 이유다. 또한 현재의 승복만으로는 조계종 소속임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스님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견해도 반영됐다.

두 번째는 승복의 변용, 유행, 고급화 등 승가 본연의 자세에 맞지 않는 풍토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사와 장삼의 경우 소재에 따라 200만원이 넘기도 하고, 심지어는 편리성만을 고려한 맞춤복 형식의 고가 승복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은 이 같은 '거품'을 빼지 않고서는 승복의 본래 의미조차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승복 변용 · 고급화 … 수행풍토 저해
### 향후 10년 겨냥 세부계획 수립 필요

그러나 조계종은 의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접근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제실무연구회가 법계위원회의 산하 기구에 불과해 가사 문제 외에 승복 유통 문제 등 의제 개혁 전반을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96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의제 개혁은 더 이상 손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담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무 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종단 직속의 의제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의제개혁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종법상 의제위원회를 구성할 법령이 없는데다, 법령을 만들어 구성한다 하더라도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계위원이나 계단위원들이 맡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순수한 의제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의제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과제다. 조계종은 이번 구성되는 의제실무연구회가 일단 가사 통일화 작업에만 나서지만, 향후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승복 유통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밀한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가사 통일에만 몰두하겠다는 것도 의제실무연구회가 갖는 한계 외에 의제개혁 문제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다는 계산에서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제개혁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이것은 스님들의 관심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등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을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3건)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대구 053-591-486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첨단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8

## 일주문



### 경찰청 경승실장에 추대

도영 조계종 포교원장은 4월 19일 경찰청 경승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새경승실장에 추대됐다.



### 호국연호사 기공식 참석

일면 봉선사 주지는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중창불사 추진위원장에 추대돼 4월 19일 대웅전 중창 기공식에 참석했다.



### 통일교육협 신임이사

유수 좋은벗들 대표스님은 4월 15일 열린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 성북불교장학회 설립

정수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장은 6일 서울 개운사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및 성북불교장학회 설립총회를 개최한다.



### 장애인 복지대상 수상

도원 삼광사주지는 4월 20일 부산구덕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인복지대상을 수상했다.



### 조계종 종정예경실장에

원철 해인지 편집장은 4월 18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으로부터 종정예경실장에 임명됐다.

## 발용스님 입적

### 26일 봉은사서 영결식



발용당 묵초대화상(사진)이 4월 24일 서울 봉은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8세로 입적했다. 1924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발용스님은 35년 순천 송광사에서 석호당 형순 화상을 은사로 출가, 41년 사미계 5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49년부터 70년까지 송광사 해인사 선원에서 수행정진한 스님은 70년부터 86년까지 송광사 벌교포교당 주지를 역임하며 중생제도에 헌신했다. 또 지난 86년부터 봉은사에 주석하며 염불선으로 기도정진해 왔다.

발용스님의 영결식은 4월 26일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왕루에서 엄숙히 봉행됐다.

## "발해유적 실증자료로 남겨"

### '발해성곽' 출판기념회 갖는 방학봉 교수



발해사 연구에 바친 방학봉 교수(73 · 중국 길림성 연변대, 역사학 · 사진)가 최근 발간한 <발해성곽> 출판기념회를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갖는다. 방교수가 산성 113개 등 277개 성곽을 수록한 <발해성곽>도감 발간을 계획한 것은 지난 94년 고구려와 발해의 활동무대인 만주 답사를 하고 있는 정토회 지도법

### 山城 113개 등 277개 성곽 수록

"현재까지 발해사 연구는 문헌적인 연구에 그쳐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발해의 역사유적들을 실증적인 자료로 남겨, 발해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을 돕기 위해 <발행성곽>을 발간했습니다."

1949년 연변대 대학생 신분으로 발해 정혜공주묘 발굴 사업에 참가하면서부터 한평생을 사 법륜스님을 만나면서부터.

"법륜스님과 한국 불자님들 덕택에 발해성곽의 사진자료화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방교수는 앞으로 발해성곽의 크기, 형태, 특징을 밝히는 <발해성곽연구>(가칭)의 발간과 발허사의 문헌화 자료를 총망라한 <발해국지장편>의 한국어 번역에도 골착수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 "입소자 자활능력 키워 사회로"

### 여성노숙자 쉼터 화엄동산 이인숙 회장



"입소자들의 자활능력을 키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회계업무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불교계 유일한 여성 노숙자 쉼터인 화엄동산 신임 소장으로 부임한 이인숙(45 · 사진) 소장은 화엄동산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노숙자 자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운영에서 탈피하고 또 정기적인 후원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 이 소장은 "이를 위한 불교계 후원금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따뜻한 배려 · 지원 뒤따라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기는 처음이라는 이인숙 소장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한다는 각오로 입소자들을 대하겠다"며 불교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02)2642-1363

박봉영 기자

## 맑고향기롭게 부산 모임 올 MBC 문화대상 수상

### 8년간 환경정화 등 450회 봉사공적 인정



◇김영 부산 MBC사장이 박수관 본부장에게 문화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51 · 영창산업 대표) 본부장이,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94년부터 8년동안 펼쳐온 각종 봉사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4월 15일 MBC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박 본부장은 환경정화 운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농촌일손돕기 등 450회에 달하는 봉사활동에서 12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자비를 털어 연 2회 모범봉사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자원봉사자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박수관 본부장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을 통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며 "모든 불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부산= 천미희 기자

###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부문 이근배
소 설 김성동
평 론 김재홍

현대불교문인협회와 조계종 총무원은 4월 30일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부문에는 창작의 고뇌를 담고 있는 '절필'을 발표한 이근배 시인이, 소설부문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 탐구를 보여준 장편소설 '꿈'을 쓴 소설가 김성동씨가, 평론부문에는 <김재홍 비평집>을 통해 불교문학의 미래를 밝게 전망한 김재홍 교수(경희대)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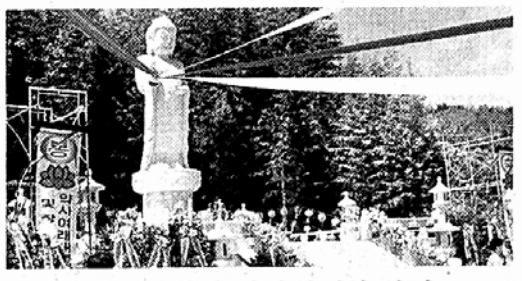
### 진묵대사 탄생 440돌 기념 다례재

김제 성모암은 4월 20일 진묵대사 탄생 4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연꽃마을 주지 종해스님, 김제 권두삼 부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전주 선각사 주지 선각스님은 "효의 실천을 수형의 근본으로 삼았던 진묵대사를 본받아 성모암을 효행실천 도량으로 가꾸자"고 말했다.

### 순창 장덕사 마애 지장보살상 점안



순창 장덕사(주지 청암)는 4월 14일 대웅전 뒤 마애반가 지장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전주 실상사 주지 일암스님, 익산 태봉사 혜안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점안식에서 청암스님은 "1년 6개월 동안 사부대중의 쉼없는 정진기도 때문에 이번 지장보살 조성이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사진은 마애불 점안식 모습.



### 대구 불광사 약사여래불 봉안

대구 불광사는 4월 21일 불광사 광장에서 '약사유리광 여래불 점안식 및 만등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을 비롯해 은해사 부주지 돈명스님, 김규택 수성구청장, 윤수동 대구장애인협회장 등 사부대중 1천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약사불 점안식. 손법천 대구지사장



### 완주 수덕사 대웅전 낙성식

완주 수덕사(주지 법인)는 4월 21일 연화사 도륜스님, 천불사 도헌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륜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마음놓고 찾아와 정진할 수 있는 청정 도량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미륵원 개원 2돌 기념 노인잔치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4월 19일 김해 미륵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미륵원 개원 2주년 기념식과 노인위안잔치를 거행했다. 총무원장 송정스님, 김해시 의원 박해동, 가수 김흥국씨를 비롯 종도와 어르신 6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송정스님은 "앞으로 미륵원을 중심으로 널리 사회를 이익되게 하는데 전 종도들의 뜻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 대구 한마음선원 연등 제작시연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은 4월 21일 대구백화점 공터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제4회 연등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연등시연회에는 청년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등과 컵등 만들기를 비롯해 직접 제작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청년회 회원들의 연등 제작시연 모습. 손법천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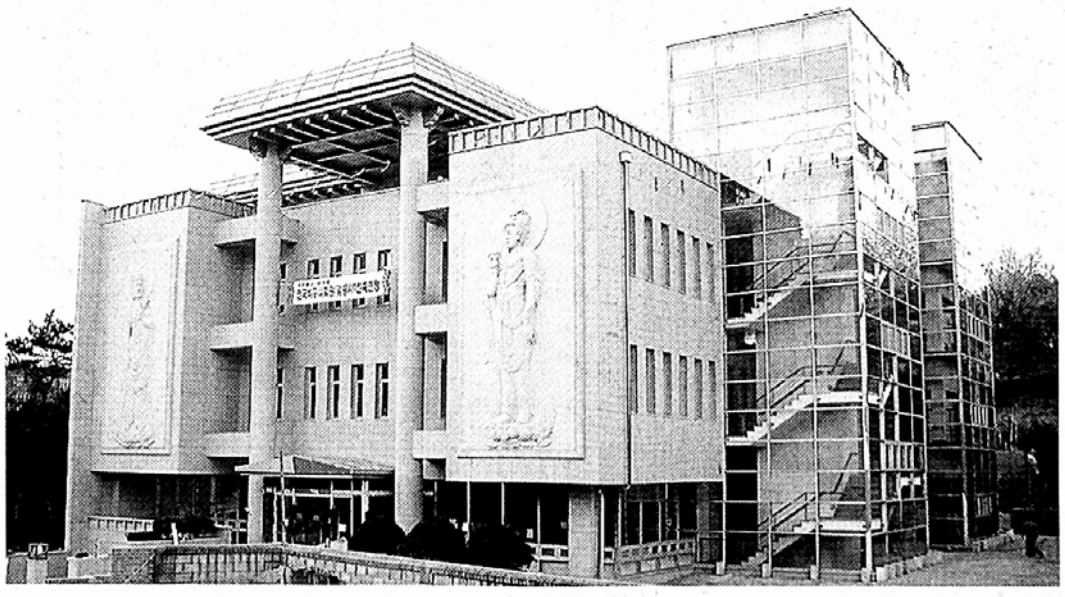

봉 전국비구니회관 봉불식 축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피력에 힘입어 전국 7000 비구니 스님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 만불전 봉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 되어 후원해 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봉불식에 꼭 참석하시어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봉불식 : 2002년 5월 4일(토) 오전 11시

전국비구니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약 2,560여 평으로 만불전, 지장전, 교육실, 도서관, 시민선방, 강당, 국제회의실, 아동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관에서는 비구니 대학원 개설, 선방 및 강원스님들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최하고,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대학, 교학 및 수행전문과정, 불교지도자과정, 사찰음식, 금강선무도 등의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 전 화 : 02)3411-8103~8 02)733-5467
▶ E-mail : kbiguni@kornet.net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합장

### 해병대불자회 창립1돌 법회

해병대불자회(회장 김홍국)는 창립 1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세계축구연맹 정몽준 부회장, 대한축구협회 조중연 전무이사 등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생명나눔실천회의 장기기증캠페인에 동참, 131명의 회원이 화장유언 서약을 하기도 했다. 김홍국(앞줄왼쪽 다섯번째)회장, 세계축구연맹 정몽준(앞줄왼쪽 네번째)부회장 등 동참자들이 법회후 기념촬영한 모습.



### 성북승무소 법우회 안전운행 캠페인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회장 박우락)는 18일 성북역 승강장에서 인천-의정부행 열차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열차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법우회 회원들은 떡, 음료, 과자 등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안전운행을 기원했다. 동참자들이 열차승무원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있다.



### 금주의 법회

■ 1일
△울산화력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울산 정토사 △현대석유화학 현불회 정기법회=오후 8시 서산 해월사

■ 2일
△한전 본사반야회 정기법회=오후 6시 강남 봉은사 △보훈병원 보훈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보훈법당

■ 3일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환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한일병원 반야회 정기법회=오후 6시 병원법당

■ 6일
△삼랑진양수 보림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자광사 △대한중석 초경 석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20분 대구 최정사 △공인회계사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6시 서울 조계사

■ 7일
△청주운전기사불자회 정기법회=오후 2시 운불련법당 △대우중합기계 · KAI 불교법우회 정기법회=오후 5시30분 창원 성주사 〈법회 안내 (02)722-4162-3〉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직능단체, '특색있는 봉축' 준비

## 종로·우정국로서 건강체크·구강치료
## 교도소서 봉축법요·제등행렬 계획
## 차량용 연등 보시·복지시설 봉사 등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다양한 행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의 직장 직능 신행단체들이 단체특유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등 직장 직능 연합단체들은 직업적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봉축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부처님 오신날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하는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소속 불자회별로 사찰이 아닌 병원법당에서 당일 봉축법요를 준비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의 쾌유를 바라는 서원을 담은 연등을 정성스레 제작하고 있다. 우정국로와 종로일대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때에는 의료부스를 설치해 혈압, 혈당체크 등 간단한 건강 체크와 건강 상담, 구강 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도관불자와 수용자불자들이 어우러져 연등을 만들며 불심을 나누고 있는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5월 한달동안 수용자불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교도소 및 구치소마다 수용자 봉축법요와 소내 제등행렬 행사를 마련, 불심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제등행렬 행사는 수용자불자들은 물론 비불자 수용자와 경비교도대원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는 은불련 차량은 물론 원하는 차량에 차량 부착용 연등을 무료 보시, 봉축분위기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3월부터 틈틈이 차량용 연등을 만드는 등 봉축 준비에 들어갔으며,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지부별 소년소녀가장 돕기, 경로효도관광, 복지시설 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을 이용해 부처님 오신날을 홍보하는 가두방송도 실시한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는 부처님오신날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9~30일 71개 지하철 역사에 연등부착을 마쳤다. 또 4월 한달동안 '철마는 자비를 싣고' 캠페인을 전개해 모금한 성금을 산업재해를 당한 철도근로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등 연합단체들도 특색있는 봉축행사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봉축분위기 조성과 불교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인 직장인 불자들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며 "각자의 직장에서 봉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4월22일 열린 도봉경찰서 불교회의 '국가, 경찰, 월드컵 성공을 위한 법회'.

## 월드컵 성공기원법회 잇달아

### 중랑경찰불교회 첫 발원 각 경찰서로 이어져

월드컵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각 지역 경찰불자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중랑경찰서 경찰불교회에서 시작된 월드컵 성공발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도봉경찰서, 성북경찰서, 마포경찰서 경찰불교회로 이어져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 도움필요한 사람에 'Give-5운동' 봉사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지난달 22일 도봉경찰서 대강당에서 '국가, 경찰, 월드컵 성공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도봉경찰서 경승실과 공동으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서 300여 경찰불자들은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모았다.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 신체, 물질, 시간 등을 5% 봉사하자는 'Give-5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상을 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성북경찰서 성불회는 경승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 성북경찰서 강당에서 월드컵 성공 개최 및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가산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을 초빙, 성불회 회원들에 대한 수계식이 마련된다.

마포경찰서 불교회도 10일 마포경찰서 대강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월드컵 성공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후 경찰불자들은 마포경찰서 전직원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도 경찰불자들의 월드컵 성공 발원을 이어 2일과 12일 각각 법회를 개최한다.

## 대전지역관리역 · 대전시청 직원불자회 잇달아 창립

철도청 대전지역관리역과 대전시청 직원불자회가 창립된다.

대전역, 조치원역, 논산역 등 40여개 대전지역관리역 역무원불자들로 구성되는 법우회는 11일 오후 2시 대전 홍룡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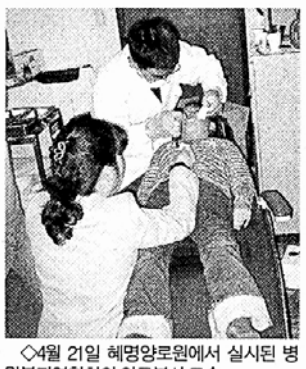
철도청내 21번째 불자모임인 대전지역관리역 법우회 창립은 4월 9일 출범한 전법팀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자모임이 없는 철도청 내 소속기관의 불교회 창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청 직원불자회도 4일 오후 2시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1월부터 창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 50여명을 모집한 대전시청 직원불자회는 지난달 24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곽무영(지적과장) 회장 등 임원진 선출과 회칙 제정, 창립법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 청도군 공무원불자회 창립법회

청도군 공무원불자회(회장 채장희)는 지난달 20일 청도 운문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50여 회원을 비롯해 청도사암연합회와 반야합창단이 법회에 동참해 창립을 축하했다.

청도군 불자회는 지난해 8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채장희(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장, 박동규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매월 1회씩 정기법회 개최, 주민봉사활동, 성지순례 등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4월 21일 혜명양로원에서 실시된 병원불자연합회의 의료봉사 모습.

## 의료인 불자들 인술 자비행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 불자약사보리회 등 의료인불자들이 인술을 베푸는 자비행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혜명양로원과 보육원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양로원 및 보육원생,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날 의료봉사는 내과, 안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회장 구병수)도 지난달 20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불자약사보리회(회장 장준수)는 지난달 8일부터 매주 월 · 화요일 서울역 광장 노숙자쉼터에서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 감사원불자회 창립4돌 기념법회

감사원 불자회(회장 노옥섭)는 1일 오후 7시 감사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대성사 조실 도문스님이 법사로 나서며, 법회 후에는 후생관 마패실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회원들간 담소를 나눌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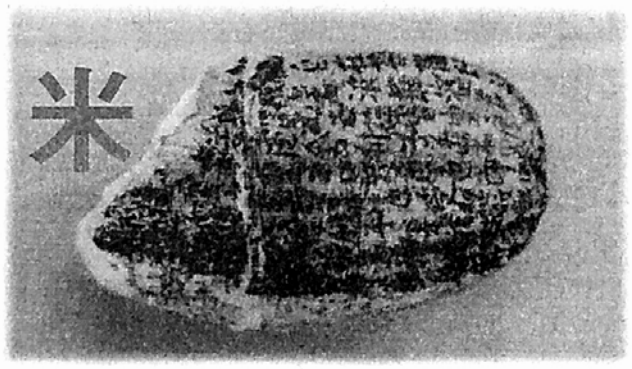
### 서울·경인 교사불자회 보경·오어사 순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 경인지부(회장 이호영)는 4~5일 경북 포항 보경사와 오어사 등지로 성지순례 및 문화답사를 떠난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순례에서는 특별 기도정진도 진행된다. 또 호미곶 등 대박물관에도 들러 회원들의 친목을 다질 예정.

### 서울 차량정비창 다보회 성지참배

철도청 서울차량정비창 다보회(회장 권영국)는 4일 경기도 양평 사나사와 홍천 연화사를 찾아 참배하고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사나사에서 지도법사인 주지 화암스님의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12일에는 정비창내 다보법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경이롭고 신비로운 —
쌀이 사리로, 반야심경 법신사리!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대법회 기념



쌀알 한 톨에 반야심경 283字을, 상아(3㎝×5.5㎝)에 금강경전문 5322字을 새긴 경이로운 만남에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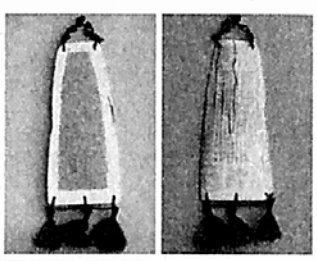
● 전시기간 : 2002년 5월 5 ~ 19일
● 전시장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법왕정사
● 문의 : (031)771-7745, 7038, 6736

김대환 작 쌀, 반야심경 283字(1990년 기네스 認定)

● 약도
1. 승용차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장 입구 ⇢ 청평방향 7km ⇢ 석산주유소(소향산장) ⇢ 법왕정사
2. 행사버스
강북지역 ① 일산 캘리포니아호텔 앞(백마역 7번 출구) (한동규 011-9077-6188)
② 조계사 입구 (구교원 018-373-8707)
③ 5호선 아차산역 앞 (임명철 019-9769-0148)
강남지역 ① 종합운동장 정문 앞 (김청우 011-9799-0908)
② 3호선 수서역 빠리바게트 앞 (심재역 016-230-6450)
• 출발일시 : 5월 5일 07 : 00



〈상아 3㎝×5.5㎝ 금강경 전문 5322字〉



〈상아 금강경 전문 5322字〉

후원 : 불교방송 · 불교텔레비전 · 불교신문 · 법보신문 · 현대불교 · 대한불교 · 마야문화원 · LMB중창단

달마도 배우는 정각사 '화엄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서울 경기 남부지역 : 안양 · 의왕 · 수원 · 안산 · 군포 · 사당)

화엄도량 정각사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하여 신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화엄대학」을 개설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서양에서 신 지식인은 불교 배우기에 대단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이 신 지식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 개강일시 : 6월 첫째주(6월 3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2. 개설과목 및 강의내용 (교수진 소개)
1) 참선 수행반 : (연담 거사님 매주 월요일 7시 30분 ~ 9시) 참선 경력 30년의 베테랑 연담거사와 함께 하는 '나 자신에게로의 여행'
선 수행의 기초 이론, 앉는 법, 화두 드는 법, 선종사, 祖師어록 등
2) 경전 연구반 : (정엄 스님 매주 수요일 주간반 11시 30분 / 야간반 : 밤 7시 30분 ~ 9시)
동경대 문학박사 정엄 스님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 대승경전 및 율전 등
3) 기초 교리반 : (정엄 스님과 철학박사 허정희 선생님, 매주 수요일 2시 30분 ~ 4시) 왕 초보도 쉽게 배우는 불교 이야기
사찰 참배법, 기초 수행법, 예불문, 반야심경, 불교와 전통문화 등
4) 노래 음악반 : (장연수 선생님 목요일 2시 ~ 3시 30분)
장연수 선생님께서 음치도 가수로 노래 잘하는 비법을 특별 공개함.
발성법, 창법, 악보 보는 법, 흘러간 노래, 최신가요, 가곡, 찬불가 등
5) 요가 체조반 : (장연수 선생님 목요일 4시 ~ 5시) 완년의 보디빌더 장연수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합니다.
식단편성, 요가이론, 자세, 건강체조, 호흡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
6) 요가 명상반(야간) : (임승택 선생님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 ~ 9시) 정통 인도 요기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개발한 재미있는 요가명상
3. 수학기간 : 3개월 과정(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 수 강 료 : 한 강좌당 3개월 3만원 (3강좌 이상 수강하시는 분은 분납도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지스님이나 종무소 0311398-8001에 문의바랍니다.
● E-mail : so0113@yahoo.co.kr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1138-1 거성3차빌딩 6층 (우 435-042)
● 위 치 : 산본 중심상가(지하철 4호선 산본역 앞) 주택은행과 시네마극장 중간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도량 정각사 주지 정엄스님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 '후원합시다'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혜송 씨. 마스크로 가린 혜송 씨의 얼굴을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이 들여다보고 있다.

## 청원군 불교호스피스 요양시설 '정토마을'

# '마지막 쉼터' 빚더미 허덕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오늘 하루. 그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 하는 사람들. 삶의 끝자락이 힘겹고 벅차기만 하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에 자리 잡은 불교호스피스 요양센터 '정토마을'. 이곳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쉼터'다.

### 불치환자 12명 수용

이곳에 들어온 지 7개월 째인 스물한 살의 혜송 씨. 그의 방문에 걸려있는 '절대안정, 외부인 출입금지!'란 섬뜩한 팻말이 눈앞을 가로 막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혜송 씨는 수척한 얼굴만 삐죽 내민다.

일곱 번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혜송 씨는 최근 독감으로 인근 청주 성모병원 무균실에서 한달 넘게 입원해 있다가 돌아온 탓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삶의 한줄기 빛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지난 2000년 10월 개원한 정토마을에는 급성골수백혈병, 말기 암환자, 혈액종양, 카타아수병(동맥염) 등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명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처지가 못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이곳에 하나 둘씩 모여 같이 살게 된 것이다.

정토마을에는 중증환자만 모여 있다 보니, 하루 24시간 이들의 간병은 물론, 지속적인 상담과 하루 세 끼 식사에 이르기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근래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토마을은 미인가복지시설인 까닭에 정부지원금은 없다. 그동안 후원자들이 보내오는 후원금에 100% 의존하며 근근이 시설운영을 해왔지만, 부쩍 비싸진 약값, 병원진료비, 각종 생활용품비, 공과금 등 총 운영비 지출이 몇 개월새 30% 넘게 늘어났다. 게다가 간호사 등 상근자 인건비에, 매월 전기세만 해도 1백만원이 지출되는 등 한달 살림규모가 3천만원이 넘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은행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원금과 이자가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가고 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만도 1백만원이 넘는다.

### 미인가 … 지원 못받아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은 "후원가족들이 두 배만 늘어난다면, 그나마 좀더 편안하게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다"며 "내 부모, 내 형제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번지

전화 : (043)298-2258

후원계좌 : 농협 401142-52-182117(예금주 여돌금) 홈페이지 http://www.jungtoh.com

충북 청원=김철우 기자

## 신행 캘린더

**5월 1일 (수)**

■지형스님 '대길상도' 전시회= 말(馬) 그림 그리기를 통해 불법 포교에 나서고 있는 서울 소림정사 주지 지형 스님.

중생의 성불을 상징하는 금용등천도, 불법을 구하기 위한 도약을 표현한 만마장성도, 100마리 말들이 달리는 모습인 대용마도 등 지형 스님이 그린 작품 200여 점의 전시회가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 3층 특설 대법회장에서 5일까지 계속된다.(02)511-6210

**5월 3일 (금)**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날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월드컵의 달. 월드컵 개막을 맞아 어린이들의 가슴이 설렌다.



◇지난해 어린이날 열린 '구슬치기 대회'.

옥수종합복지관은 오후 3시 복지관에서 월드컵 주제의 어린이 놀이대회를 마련한다. 이 행사에는 축구대회, 바디 페인팅 응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돼 있다. (02)2282-1100

■진관스님 '염화미소'= 명동 창고극장은 12일까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이 극본을 쓴 '염화미소'를 공연한다.

평일은 오후 7시 1회, 토요일은 오후 4시, 7시에 2회에 걸쳐 열리는 이 연극은 나무꾼이 출가를 결심하는 이야기, 출가 후 겪는 이별의 슬픔, 수행정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02)775-0535

**5월 4일 (토)**

■은평구립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꿈과 환상의 세계로 날아가 동화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 등의 작가 황선미씨를 초청해, 동화 속 주인공들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오후 3시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에 마련됐다.(02)385-1671

■터사랑 '성지순례'= 함평 용천사를 찾아서….

대웅전 밑에 용이 태어난 샘이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용천사. 용천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천년고찰로 각진, 각적 등 고승들이 머물며 수행정진을 했다.

터사랑과 함께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밤 11시 서울역, 참가비는 성인 8만 9천원.(02)725-1284

■지운 스님 '초청법회'=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법당에서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을 초청, '지혜로운 불자의 길'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찻잔 속에 달이 뜨네>의 저자로 유명한 지운스님. 스님은 '차 한잔 속에도 도가 있다'고 말하며 일생생활 속 수행을 늘 강조한다.(042)624-6555

**5월 5일 (일)**

■두레생태기행 '생태답사'= 안면도 소나무 숲 휴양림을 찾아 떠나는 생태기행…. 가족들이 함께 안면도를 찾아가 소나무 군락을 돌아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이날 행사에는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이 직접 안면도 소나무 휴양림의 특징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초구청 정문 앞. 참가비는 어른 3만 7천원, 어린이 3만 3천원.(02)712-5812

■불광 '부처님 그리기' 대회= 맑고 깨끗한 어린이의 눈에 비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떨까? 월간 불광은 오전 9시 30분 봉은사에서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02)511-6070

# 5천여 신도 뒷바라지 솔선

## 우리 절 우리 신도

### 분당 하얀마음선원 박영숙 신도회장



◇하얀마음선원의 신도회장인 박영숙 보살(사진 가운데)이 봉축을 앞두고 신도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고 있다.

### 사찰일 하면 할수록 환희심 솟아

### 고아·양로원 갖춘 복지타운 서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하얀마음선원은 현재 불사가 한창이다. 특히 10일 이전개원법회를 앞두고 있어 여기저기 마무리 공사를 하느라 스님과 신도들의 얼굴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이 가운데 공양간을 지키며 공사장 인부들과 스님들의 간식을 정성스레 담아내는 숙련된 한 보살의 손놀림이 눈에 띈다. 그가 바로 하얀마음선원 5천여 명의 신도회를 이끌고, 있는 신도회장 박영숙 보살(46·곤륜행)이다. 박 보살은 체면이나 격식을 차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찰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다. 행사나 법회 때 인사말이나 하는 식의 무게(?)를 잡는 것은 박 보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박 회장은 '또순이형 신도회장'이다. 공양짓기, 연등 만들기, 신도관리, 법당 청소, 행정사무 등 사찰 내에서 박 회장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다. 실제로 2년전 신도시 포교를 위해 상가 지하에서 출발한 하얀마음선원이 1천여 평의 대지위에 현재와 같은 큰 불사를 할 수 있게 된 데는 박 보살의 역할이 컸다.

선원장 덕봉 스님은 "이번 법당 이전불사는 신도조직을 잘 관리하고 무슨 일이든지 몸을 아끼지 않는 박 보살이 없었다면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효자촌 지하건물에 있던 하얀마음선원이 현재의 이매동으로 옮겨와 불사를 하려고 할 때만 해도 먼저 자리 잡은 개신교와 신도의 반대민원으로 불사가 쉽지 않았다. 이때 박 보살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장일을 한 경험을 살려 행정실무를 도맡아 분당구청을 수시로 드나들며 불사를 추진했다. 1년 동안 서울 서초동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하얀마음선원까지 거의 매일 출퇴근하며 불사는 물론 아픈 신도 위문 등 사찰의 대소사를 모두 챙겼다. 지금도 박 보살은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이런 성실성 때문에 선원에 일이 생기면 승속을 막론하고 박 보살부터 찾는다.

박 보살이 이렇게 사찰 일에 열성적이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하얀마음선원 불교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다. 당시 2개월 과정이었던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는 물론 감로수 같은 법사스님들의 법문에 감화를 받으면서 사찰 일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사찰일은 하면 할수록 환희심이 납니다. 좋은 도량이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불자들이 편안히 와서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완전히 법당을 개방하는 우리 사찰에서는 저를 비롯한 신도회원들이 좋은 도량을 가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투명한 사찰 경영을 위해 만든 사찰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기도 한 박 보살의 꿈은 원장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합해 고아원과 양로원이 함께 있는 복지타운을 세우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참불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귀중한 가르침인 보시행을 실천하며 살 겁니다."

**추천의 말**

**덕봉 스님** 하얀마음선원장



하얀마음선원은 분당 신도시 지역 포교를 위해 2년 전에 개원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불교교양대학을 기반으로 신도들이 꾸준히 늘어나 이매동에 도량을 만드는 이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실상부한 분당지역의 도심포교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신도들을 자기 식구처럼 챙겨주고 아껴주는 박영숙 보살의 공이 컸습니다. 곁에서 2년 동안 지켜본 바로 박 보살은 아무리 어렵고 짜증스런 상황이 발생해도 한번도 화낸 적이 없을 정도로 신도 화합과 단결에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일 사찰에 출퇴근하며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박 보살의 성실성을 지켜보며 이런 신도가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박 보살이야말로 하얀마음선원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웃음 띤 박 보살의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말속에서 불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깊은 신심과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김주일 기자 jkm@buddhapia.com


부처님 말씀·깨침의 소리

불교성전

5년간의 준비끝에 새롭게 출간된 불교성전!

오랫동안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고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불자나 초심자도 『불교성전』을 펼치는 순간 환희와 신심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무한 경쟁시대—! 佛法을 바로 알아야 불교를 지킵니다.

중 요 차 례

⊙ 제 1 부 경전의 말씀
제 1 장 서 품
제 2 장 교리강령품
제 3 장 불 타 품
제 4 장 신 앙 품
제 5 장 업 연 품
제 6 장 자 치 품
제 7 장 대 치 품
제 8 장 포 교 품
제 9 장 구 경 품
⊙ 제 2 부 간추린불교
제 1 편 부 처 님
제 2 편 가 르 침
제 3 편 수 도
제 4 편 교 단
⊙ 제 3 부 독송경·발원문
천수경·예불문·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원각경보안보살장
화엄경보현행원품
부모은중경
법성게·무상게
기도발원문
천도법어·찬불가

4×6판 최고급 호화금장 양장제본
70g 고급 미색 모조 600페이지 값 18,000원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 및 단체주문시 특별인쇄 공급합니다.

▣ 계좌번호: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弘法院 (02)739-8745~6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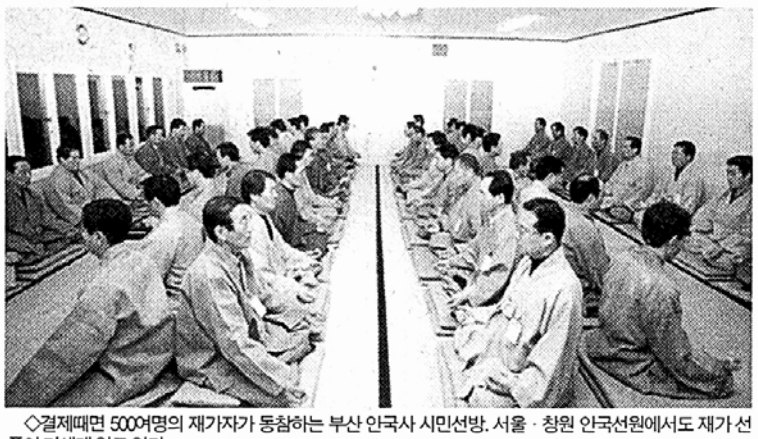
# 재가불자의 참선수행

1. 한국의 재가선풍
2. 간화선 수행의 실제

'본 마음' 즉, '참 나'를 밝히는 수행이 곧 참선이다.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으며, 청정무구해서 일찍이 티끌세간 속에서도 물든 일이 없이 완전하다고 하는 마음의 '본 바탕'을 찾는 작업이 참선이라는 얘기다.

선의 기치를 드높인 육조혜능(638~713) 스님은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좌선(坐禪)과 간화(看話)를 주창하지 않았다. 다만 단박에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볼 것(見性)을 강조했을 따름이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돌이켜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참선이란 선지식의 지도와 자신의 열려있는 마음이 전제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몸의 좌선이며, 마음의 화두 챙김이다.



◇결제때면 500여명의 재가자가 동참하는 부산 안국사 시민선방. 서울 · 창원 안국선원에서도 재가 선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좌선하기 전 주의사항

"모든 인연을 놓아 버리고 만사를 쉬어, 몸과 마음이 하나 같이 움직이고,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한다. 음식의 양을 헤아려 너무 배부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잠을 조절하여 모자라거나 지나치게 하지 말라."<좌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좌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조절이다. 설사, 변비, 복통 등이 있거나, 배가 부르거나 고파도 좋지 않다. 또 음식물은 되도록 자극적인 것을 피하고 대소변도 시작하기 전에 봐둬야 한다. 그리고 식사 30분 후에 좌선을 시작한다. 수면조절 역시 필요하다. 많이 자도 좋지 않고 부족해도 좋지 않다. 좌선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과 상체, 팔, 다리, 무릎, 허리 등을 풀어주는 가벼운 체조가 필요하다.

## 좌선의 자세

10년 전통의 해인사 선우회(회장 정규수)가 제시하는 좌선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고요한 곳에서 두터운 방석을 깔고 하며, 발은 두 발을 반대편 넓적 다리 위에 놓는 가부좌가 기본이다. 이 때 어느 쪽 발이 위로 와도 상관없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는 두 발을 번갈아 위에 두는 것이 좋다. 또 두 발은 '일(一)' 자가 되어 몸이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하며,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손은 포개서 발 위에 편하게 놓는데 위에 두는 손은 발의 순서와 일치하면 된다. 이 때 두 엄지손가락 끝은 서로 맞대야 한다. 눈은 지그시 떠서 졸음을 쫓아야 하며 시선은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손 끝이 닿는 지점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불같이 일어나 괴로울 정도다. 다리가 아플 경우는 살며시 바꾸어 놓아도 무방하다. 망념이 일어나면 다만 망념인 줄 알아채면 저절로 사라지니, 절대로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

## 호흡법

조계종의 <재가자를 위한 수선교본>은 간화선 수행시 나타나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덜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화두 참구 시에 복식호흡을 병행할 것을 권한다. "처음부터 복식호흡을 통해서 화두를 들다보면 상기(上氣)의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상과 혼침도 줄일 수 있다."

좌선시의 호흡은 우선 숨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며 숨을 거칠 게 하지 말고, 스스로 호흡한다는 의식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라야 한다. 공기를 조용히 들이마시되 아랫배가 약간 볼록하도록 하고, 조용히 내쉬어 차츰 아랫배가 약간 들어가도록 8부 가량만 숨을 쉰다. 이 때 잠시 호흡을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뭣고' 하는 것이 화두를 배로 참구하는 한 요령이다. 차츰 요령을 터득하면 매번 숨쉴 때마다 화두를 들 필요가 없고, 화두가 사라지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면 화두를 한 번씩 챙긴다.

## 좌선을 끝내는 법

집단으로 좌선하는 선방에서는 끝내는 신호에 따르기만 하면 되지만 혼자서 좌선하고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옛 선사들은 "좌선이 끝나 일어설 때에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 후에 편안히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서서는 안된다. 좌선에서 일어난 뒤에는 어느 때나 항상 좌선의 방법에 의해 선정(禪定)의 힘을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어린애를 돌보듯 하라"고 했다.

수선회와 선우회는 이렇게 정진을 마무리한다.

"우선 마음을 편안히 한다. 다음에는 입술을 조그맣게 둥글게 하고 고요히 마음껏 숨을 내뿜는다. 내뿜는 숨에 몸의 긴장을 모두 내뿜는다. 이것을 몇 번 계속하고 서서히 몸을 움직인다. 부드럽게 몸을 만져주고 결가부좌를 풀고 손으로 마찰한다. 다음 양손을 마찰하여 온기를 내어 양 눈에 덮은 채 눈을 뜬다.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눈으로 익힌 다음 눈을 뜬다. 그리고 전신이 편안해졌을 때 일어난다. 가급적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속해야 한다. 좌선을 끝낼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시작할 때는 신, 식, 심 (身, 息, 心)의 순서로 시작하나 마칠 때는 반대의 순서로 마쳐야 한다."

## 화두 받는 법

화두는 반드시 선지식(善知識)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다. 화두 받을 때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수선회 회장 현담스님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화두를 받는다는 안이한 정신 자세로는 화두를 받아야 소용이 없다"면서, "사람 몸을 받은 금생(今生)에 수행 정진하여 생사윤회를 해결하겠다는 대신심(大信心)으로 굳은 각오가 되었을 때 선지식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화두 드는 법

"3백60 골절과 8만 4천의 털구멍을 한꺼번에 뭉쳐 한 개 의심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한 개의 무자(無字)를 참구(參究)하여 의심하되 주야로 공부하여 놓지 마라."<무문관(無門關)>

화두 드는 법에 대해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은 좌선시와 평상시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다.

"앉아서 참선할 때에는 화두는 전방 1.5 내지 2m 아래에 두고 화두 제목과 의심을 끊어지지 않게 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 되면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일을 하나, 다른 이와 대화를 할 때도 화두를 놓지 않고 눈 앞에서 생생하게 화두의 의심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 화두 참구시 주의할 점

간화선에서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 깨침을 법칙으로 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깨침을 기다려서도 안된다. 즉 간절하기는 하되, 속효심(速效心)을 내지 말아야 한다.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는 '조주 무자'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열가지 병통(十種病)을 말하고 있다.

△유(有)와 무(無)의 알음알이를 짓지 말며 △진무(眞無)의 무(無)로 생각지도 말고 △도리(道理)로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며 △의근하(意根下)를 향해서 사량하고 계교하지도 말며 △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박이는 데서 캐내려고 하지도 말며 △어로상(語路上)에서 활계(活計)를 짓지도 말며 △일 없는 갑옷 속에 드날려 있지도 말며 △화두를 들어 일으킨 곳을 향하여 알려 하지 말며 △문자로써 이끌어 증명하지 말며 △어리석음을 가져다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라.

# 오직 열린 마음으로 만사 놓고 쉬어라

◈주요 재가불자 선원

| | | | | | |
|---|---|---|---|---|---|
| 서울 우곡선원 | (02)529-5027 | 서울 임제선원 | (02)838-6397 | 선정회 | (02)732-3327 |
| 범어사 | (051)508-3122 | 미타사 | (02)662-4736 | 선학원 중앙선원 | (02)732-3327 |
| 통도사 부산포교원 | (051)816-2241 | 금강선원 | (02)445-8484 | 수선회 | (02)732-5960 |
| 보리수 선원 | (02)928-2844 | 한마음선원 | (031)470-3100 | 영남불교대학 | (053)472-6268 |
| 부산 안국사 | (051)892-9877 | 부산불교교육원 | (051)466-4080 | 어어선원 | (051)853-5486 |
| 창원 안국선원 | (055)281-0772 | 부산 태종사 | (051)405-2626 | 황대마을선원 | (055)963-9551 |
| 서울 안국선원 | (02)732-0772 | 홍제사 | (051)802-0130 | 해인사 원당암 | (055)932-7308 |
| 홍천 금강선원 | (033)433-5845 | 해운정사 금모선원 | (051)746-2256 | 용화사 | (041)274-2159 |
| 강남 봉은사 | (02)516-5652 | 혜원정사 | (051)866-7771 | 요덕사 | (063)263-1080 |
| 서울 법련사 | (02)733-5322 | 보현사 | (053)254-6966 | 보광사 | (061)763-1192 |
| 서울 길상사 | (02)3672-5945 | 학성선원 | (052)271-5357 | 원명선원 | (064)755-3322 |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5월-전법의 달
- 전법의 공덕
- 포교도 수행이다
- 온 가족이 '포교사'
- 누구나 전법사

전법의 공덕



◇3월 27일 서울 구로동 거리에서 열린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노인잔치 기금 마련 바자회 모습.

# 최선의 포교 '감동주기'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아승지 세계에 가득할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썼다 할지라도 만약 보리심을 발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갖거나 사구게라도 수지독송하여 남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덕이 오히려 낫다."<금강경>

법시(法施)의 공덕을 잘 표현한 <금강경> 응화비진분의 한 구절이다. 법시는 진리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법시는 곧 전법, 포교라 할 수 있으며,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라밀행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동시에 자신을 위하여 중생 제도에 나서라"고 보리 증득의 목적을 밝히고, 60여 제자들에게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진리를 설하라. 또 원만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전법륜경>고 방법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교의적 지식이나 특별한 지위, 언변을 갖춰야 전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전법은 그러한 외형적 조건을 갖춘 설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모범적인 포교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언설로써 이뤄지기 보다는 실천을 통한 감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이 수여한 포교대상 수상자 중에는 수원교도소 심재환 교도관과 구로승무사무소 박창식 기관사 등 평범한 직장불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박창식 기관사의 경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결성과 구로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물론 구로복지관과 공동으로 노인잔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일일찻집 등을 개최하는 등 불자로서의 자비행 실천에 앞장서 왔다. 포교라는 특별한 목적을 의식하기 보다는 불자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이 '포교'로 이어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함께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포교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동료들이 매사에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법우회를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전법의 자세에 대해서 사섭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중생이 원하는 바를 베풀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마음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비구들아, 내가 설한 가르침을 애써 행하고 닦아서 모든 법행을 성취하고, 널리 교화하여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집성유경>

박봉영 기자


도가(道家)의 비전(秘典)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에 대한 강의

오쇼는 '황금꽃의 비밀'을
아주 고대(古代)의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 '황금꽃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비의적인 전문 서적이다.
이것은 그대에게 육체 이상이 되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이 경전은 그대에게 죽음을 넘어가는 길을 보여 줄 것이다."

비밀 중의 비밀 황금꽃의 비밀 신간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The Secret of Secrets 상 하 출간 !!!

'황금꽃의 비밀' 은
도가(道家)의 오랜 비전(秘典) 인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 에 대해
인도의 깨달은 스승 오쇼가 강의한 것으로,
'황금꽃(金華)' 으로 상징되는 빛의 수련법과
그 원리와 효과, 수련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쇼 | 신국판 | 각 권 16,000원

아티샤 (Atisha) 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한 강의

인도는 세상에 커다란 선물들을 주어 왔다.
아티샤(Atisha)는 그 커다란 선물들 중의 하나이다.
인도가 보디다르마(Bodhidharma)를 중국에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아티샤를 티벳에 주었다.
아티샤에 대해 명상하라, 그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그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내적인 변형의 지침서이다.
그것은, 그대가 지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책이다.
나는 그것을 '지혜의 서'라고 부른다.

- 오쇼 -

智慧의 書 신간

상 하 출간!!!

지혜의 서
The Book of Wisdom

오쇼 | 신국판 | 각 권 14,000원

전화 02) 711-4227,8 | 팩스 02)711-4229 | www.goldenflower.co.kr | 도서출판 황금꽃



이시우 박사가 쓰는

## 불교와 수주 ㉖

### 우주의 신비와 불법 Ⅰ

# 우주, 緣起를 고리로 한 거대 그물망




그림 · 문병성

만유가 태어나 지나다가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면서 우주를 꾸며간다. 여기서 만유의 생주이멸 그 자체가 조화로우면서 신비롭다. 질서가 없는 것 같으면서 조화로움이 있고 혼돈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안정돼 보이는 것이 우주의 모습이며 신비이다. 여기서 '우주의 신비'란 우리가 관측대상에 가까이 다가가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록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의문이 더욱 많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이 신비이다. 일반적으로 신비란 영원히 풀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조화로움일 뿐이며 과학의 발전과 지혜의 발달에 따라 그 신비의 베일이 점차 벗겨진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주에서 신비의 대상이 되는 특징적인 세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는 만물의 유전변천이다. 만유는 생겨나 지나다가 소멸되므로 여기서 우리는 변화에 따른 존재의 본질을 묻게 된다. '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현재 나라는 실체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제의 내가 오늘의 새로운 나로 초월돼 달라졌기 때문에 나라는 고정된 자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우주적인 긴 시간에 걸쳐 보면, 나라는 존재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로서 티끌보다 작은 무대에서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다가 사라져 가는 일종의 허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별적 사유작용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색)은 허구적이고 비실재적인 것으로 본원적 존재는 없다(공)는 '색즉시공'은 변화에 따른 자기 초월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는 공 가운데(들어내 보일 수 없는) 대상이 드러남으로 '공즉시색'이 된다. 이러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만유의 존재에 대한 사유와 의식의 관계를 나타낸다.

> 죽음 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 실제론 속박벗고 자유얻어
> 새 유형의 탄생기회 갖게돼

한편 유식학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일체의 형상들은 오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물질이나 소유물과 같은 일체의 것은 단지 마음 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물에 대한 인식은 경험과 지식 및 논리적 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물이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체를 비롯한 여러 사물이나 현상의 출현과 존재 그 자체는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과는 무관함으로 '일체유심조'는 오직 대상의 인식에서 항상 마음이 작용한다는 현상학적 인식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전변천은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우주 내 모든 천체와 여러 사물은 서로 간에 주고받음이 일어난다. 천체의 경우는 중력과 자기력이 있고, 인간의 경우는 정과 믿음이란 것이 있다. 따라서 우주 내 만물은 소위 연기라는 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물망에 걸려있는 셈이다. 이 그물망은 곧 자연의 이법을 지닌 법계로서 우주의 질서체계에 해당한다. 이 법계는 단순한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만유의 상호관계를 근본으로 한다. 이러한 그물망에 걸려있는 모든 것은 그물망이 지닌 이법을 따른다. 이것이 소위 '이사무애법계'이고, 또 그물망에 걸려있는 만유는 같은 이법을 따르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사무애법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사무애와 사사무애는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나타난다. 무상(無相)의 게송을 들어보자. "일경은 밤이 아직 이르다. 우리는 인연으로 자아내는 것을 관조해야 한다. 정관(正觀)에만 의지하고 잊어버려라. 그렇게 함으로서만 진심이 나타난다."

연기의 그물망을 인간 세계에서 12연기로 살펴보면, 우리는 근본 성품인 무의식에 따라(무명) 결정하며(행), 인식한다(식).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해(명색) 5관과 의식을 통해(6처) 접촉하고(촉), 느끼며(수), 갈애하고(애), 취착하여(취) 자기 것으로 가지면서(유) 살다가(생) 늙어 죽어간다(노사). 이러한 12연기 중에서 별의 경우는 애착, 취착, 소유 같은 것이 없으므로 9연기로써 연기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에 별에는 나약한 인간이 가지는 번뇌, 괘락, 슬픔 같은 감정적 사치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연기관계에서 탄생이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연기작용에서 생기고, 죽음이란 무위적인 자연스러운 연기작용으로 이어가는 과정의 진입을 뜻한다. 그래서 연기의 그물망의 한쪽에 걸려있던 생명체가 소멸하면 그 잔해는 에너지와 티끌로 남아 그물망의 여러 곳에 퍼져 존재하며 다음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래서 죽음이 형상 없는 공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어 어디서든 새로운 유형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은 모든 형태의 본질이며 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공이 바로 신비의 대상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

이렇게 들었다

## 탈선부추겨 사회문제화

**사이버팸 확산현상**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지는 사이버 팸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청소년에게 탈선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팸은 사이버와 패밀리의 합성어로 같은 취미나 성향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족을 형성, 나이차와 성별 등에 따라 서로를 아빠, 엄마, 삼촌, 이모 등으로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모임을 말한다.

사이버 팸의 확산은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이버 팸을 통해 가족에서 느끼지 못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기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바뀌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원조교제로 경찰에 입건된 박모(17)양은 지난해 3월 사이버 팸 멤버 6명과 함께 가출했다. 이후 박양은 술집 아르바이트, 원조교제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박양이 밝힌 가출 이유는 학교도 부모들도 자신을 버렸다는 박탈감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이버 팸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모임으로 전락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넘어 인터넷 자체의 역기능에 대한 비난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사이버 팸이 청소년들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대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사이버 팸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 형제 · 부부 ·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물질의 나눔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⑨

### 만가지를 일으키는 하나

# '하나' 알면 생각 · 말함에 막힘없어

여러분,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서,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못된다. 저승사자는 언제든 한 순간에 귀천과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 구하지 말라. 그대들 한 생각 마음 위의 깨끗한 빛은 그대 집 속의 법신불이고, 한 생각 마음 위의 분별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보신불이며, 한 생각 마음 위의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이 세 가지 몸은 바로 그대들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니,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만 하면 이러한 효용이 있다. 경전과 논서에 의지하는 사람은 세 가지 몸을 지극한 도리로 여기지만, 나의 견처(見處)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이 세 가지 몸은 다만 이름일 뿐이요 또 세 가지 옷일 뿐이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불신(佛身)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불국토는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하였으니, 법성(法性)의 몸과 법성의 땅이 빛과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겠다. 여러분, 그대들이 저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임을 안다면, 모든 곳이 그대들이 돌아가 머물 곳이다.

팔만대장경은 그 가치가 어디에 근거하여 발휘될까? 나무판자에 한자 한자 새겨 조각한 글자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한자 한자 조각하는 장인의 노력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그 판자에 잉크를 묻혀 찍은 책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따라 행하는 곳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일까?

팔만대장경의 가치가 나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없다. 항상 오직 하나일 뿐이다. 이제 이 하나를 알고자 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 팔-만-대-장-경-. 그래도 모르겠다면 눈을 감았다 다시 떠 보라. 그래도 모르겠다면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 보라. 그래도 모르겠다면 읽던 글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셔라. 그래도 모르겠다면 스스로의 뺨을 한 대 치기 바란다.

바로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입을 열어 혀를 움직여 말하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물을 들어 마시고, 뺨을 때리는 이 하나 뿐이다. 수많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하나이다.

그러나 이 하나는 보이는 모양도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잡히는 물건도 아니고 생각되는 관념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보고 듣고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 하나를 알면 보고 듣고 붙잡고 생각하고 말함에 막힘없이 자재하지만, 이것 하나를 알지 못하면 보고 듣고 붙잡고 생각하고 말함에 스스로 모양과 소리와 물건과 관념과 이름에 가로막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노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여서 부자유스럽게 되는 것과 같으니 그야말로 불쌍한 노릇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만상(萬象)을 토해내고 삼키는 이 하나에 통하는 것이 좋다. 이 하나에 통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대로 즉시 아무런 탈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더하거나 아무 것도 찾지 않아도 불만족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탈이 나고 문제가 따라다닐 것이며, 항상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

###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참선 meditation 발우 wooden eating bowls.

After communal chanting each monk returns to his place. The students go to the study hall; the meditating monks go to the meditation hall(in the meditation seasons they merely bow in the meditation hall and sit); and the working monks go to their place of duty. At about 6 a.m., breakfast takes place.

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은 각자의 장소로 돌아간다. 공부하는 스님은 강원으로 가고 명상을 하는 스님은 선방으로 간다.(참선을 하는 기간에 그들은 선방에서 단지 머리 숙여 절하고 앉아 있는다.) 그리고 일하는 스님들은 그들의 소임을 위한 자리로 간다. 6시가 되면 아침 공양이 시작된다.

Breakfast traditionally consists of rice porridge and pickles which the community eats together in silence in a formal style from a set of wooden eating bowls. After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day because the air and minds of the monks are cl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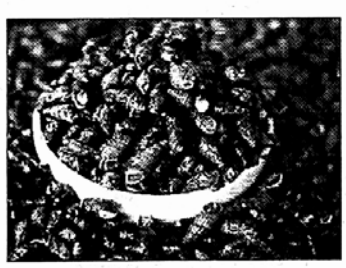
아침 공양은 전통적으로 쌀죽과 야채 절임으로 이루어지며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발우를 이용해 정숙하게 먹는다. 아침 공양이 끝난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공기뿐 아니라 스님들의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옹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아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덕왕사 지장대불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은 부처님전에 귀의한 후로 항상 지장보살님전에 몸과 마음을 다받쳐서 기도중에 지장도량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고 발원하여 「경북 안동시 녹전면」 일출산 자락에 「덕왕사」를 창건하여 지장대불을 조성하여 모시고 일체 중생에게 다겁생에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육도윤회 모든 고통을 멸하여서 지장보살을 친견하여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마장장애 없도록 유주무주고혼영가와 상세 선망부모영가를 왕생극락하실 수 있도록 기도발원 하옵고 이생에 지장대불 조성불사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에 무량복덕을 성취하옵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또한 덕왕사 대작 불사인연으로 성불하십시요.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 법회일시 ▷ 매달 초하루 ~ 초 3일까지 신중기도
▷ 보름 인등법회
▷ 18일 지장재일 영가천도 법회

● 덕왕사에서는 평생동안 영가위폐를 모시고 천도제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동안 모든 조상영가를 영단에 모시고 매달 지장제일마다 천도제를 하여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분께는 천일동안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

※ 온라인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우 체 국 700435-0029797 예금주 : 유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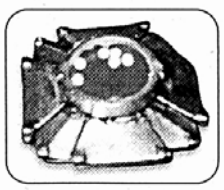
연락처 :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 번지

일출산 덕 왕 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 011-522-1237



대웅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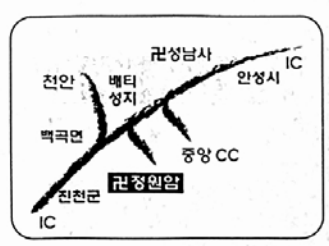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동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정원암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정원암
● 조흥은행 914-04-286470 정원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대한불교 조계종 정 원 암

# 아직도 다리품을 파십니까?

1600여종의 불교용품,불교와 관련한 모든 상품을
마하몰에서 준비 하십시요.

주·문·전·화
**02~732~1520**




## 신상품



**해탈전경륜**

해탈전경륜은 머리부분의 연화좌대, 몸통부분의 전륜장, 다리부분의 모터부로 이루어진 티벳불교공예품입니다.
소원성취 / 길상원만 / 만사형통 / 가족화목

198,000원



**달마쌀독**

20kg 68,000원
40kg 98,000원

## 추천상품



**불성차 우전**

불성차는 지리산 심산유곡의 야생 차밭골에서 갓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동(銅)가마솥에 전승비법으로 빚어낸 전통 수제차

90,000원



**순금금강경백자**

금강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불심 깊은 작가의 필력과 예술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가격 : 750,000원
특판가 : 198,000원

## 깜짝세일



**참선명상방석**

영장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 특허등록 출원 제 14187호
* 30개 한정 판매

개당 25,000원



## 추천도 상품



**서울건강부항**

허리가 쑤시거나
어깨가 결릴때
목이 뻐근할때
무릎이 시릴때

* 총 37개 사은품 무상증정!
보온의 다양한 부항법

98,000원



**데나무수액시트**

발바닥에 수목과 노폐물을 빼니 놀랍단한 효과가..

(* 목초액은 칠균, 소염, 소독력이 목초액보다 약 20~40배가 높습니다)

50매 50,000원
100매 90,000원



**건강향기방석**

천연약재(32종)와 향재를 이용, 인체에 좋은 효능을 발휘할수 있는 배합을에 의하여 만들어진 환(丸)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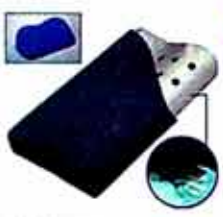


**오분향(목욕용)**

각종 피부질환에 고생하시는 분,몸에 악취가 심하신 분을 위하여 인공가공을 배제하고 천연약재와 향재만을 이용하여 제조하므로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량 : 100g(약 20알)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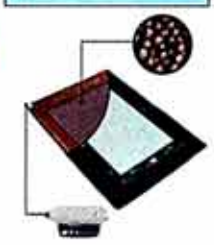


**37° 기베개**

40°C 이상의 찜질을 기준으로한 일직선상의 형상에서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목선만으로 얼굴옆선을 형성하는 기능(일명 e-Soul)이 부각되어 누웠을 때 편안이 증진됩니다

사이즈 : 47cm x 29cm x 8cm
* 사은품 : 목조베개 증정

69,000원



**한방온열보료**

생명의 기를 보충해고 원동을 촉수하며 항악성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자연치유력을 증진시켜드립니다

규격 : 90cm × 200cm
재료 : 호화 합성 원색, 감초, 두충, 건지를 등의 천연약재와 한국 1호

1인용 1,100,000원
2인용 1,300,000원



**연꽃불자시계**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형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듣든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 / 여성용
99,000원



**미농4종혼합세트**

순국내산 현미/보리쌀에 배양시켜 버섯에 기지는 우수한 성분을 매끼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신개념의 기능성 쌀입니다

구성 : 동충하초분말 300g + 영지초분말 300g + 상황버섯분말 72g + 백삼20g분말 300g

33,500원



**반야금반지,목걸이**

귀한분자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원을 상징하며, 테두리의 큐각은 깨달음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반지 14K / 18K : 110,000원(14K) / 141,000원(18K)
목걸이 14K / 18K : 155,000원(14K) / 195,000원(18K)



## 어린이날 추천상품



**밀로다동자인형**

동자승의 가슴부분을 눌러주시면 맑은 목소리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인 '천수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8,000원



**동자저금통**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귀여운 동자모습으로 인테리어는 물론 저금통으로 사용가능해, 자녀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될것입니다.

5,000원



**밀로다아기부처인형**

아기부처 가슴부분을 눌러주시면 맑은 목소리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인 '천수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 13Cm(세로)

8,000원



**지비쏘리티셔츠**

재질 : 순면 100% (20수)
색상 : 흰색
인쇄 : 나염(전체 염색)
크기 : XXL, XL, L, M, S (5가지)

6,000원



**캐릭터저금통세트**

달마스님과 12지신을 자녀분들께 친근감을 느끼수 있도록 제작고 귀엽게 캐릭터화하여 만든 저금통세트입니다.

사이즈 : 높이 - 14Cm / 지름 - 9Cm
재 질 : 석도질관

2개 1세트 6,000원



**연꽃저금통**

봄심과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저금통, 새부대중 모두에게 언제,어디서나 기억이 하는 불교인의 생활 용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000원




**동자인형시리즈**

A형 5,000원
B형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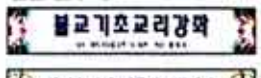
## 2546 Buddha's Birthday 봉·축·행·사·용·품

### 봉축행사용품




봉축 현수막 : 90cm×6m(40,000원),8m(50,000원),10m(60,000원), 12m(70,000원) ※ 폭 105m,150m제작 가능

일반 현수막




세로 현수막






일반 리본 250원 (왼쪽부터 3개)
고급 리본 350원 (오른쪽에서 두번째)
귀빈용 3단 리본 1,000원 (오른쪽 첫번째)




장엄 번(만장기)90cm×210cm 장당 40,000원



20cm×30cm 4,000원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 봉축캐릭터 응용 용품




보온 - 보냉 머그컵
보온:3시간 / 보냉 :6시간



양면 점퍼 50,000원



연꽃타올 4,000원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방생 타이슬링 1,000원
100매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차량 스티커 300원



아동용 썬캡 3,000원 / 성인용 썬캡 3,000원



천진동자 라이트 퀸
10개들이 한세트 30,000원







캐릭터 앞치마 A형:4,500원 /B형:4,000원
3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캐릭터 풍선 300원
100단위 포장(대롱포함) 바람넣는 펌프 없음



캐릭터 부채 700원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



봉축 타이슬링 700원



봉축 버튼 400원

초파일 등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 우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65-361) 현대불교신문사

## "마음이 청정해야 지구가 맑아진다"

# 泰승단, 세계지구의 날 대법회

### 스님·신도 등 1만 5천여 불자 참가

"마음이 청정해야, 지구가 맑아진다."

수천명의 태국 스님이 참석한 대규모 '세계 지구의 날' 기념법회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지구촌의 관심을 모았다.

태국 담마까야(Dhammakaya, 法身) 재단이 22일 방콕 인근의 릠룽랑에서 개최한 이날 지구의 날 행사에서는, 스님 신도 등 1만5천여 불자들이 세계 평화와 지구환경 보전을 발원했다.

이날 태국의 고승들은 "세계는 모든 동물이 태어난 곳이자 선업과 악업을 짓는 곳인 동시에 사람과 동물, 영혼들의 집합체이자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라며서, "지구를 지키는 일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마음과 불성, 육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했다.

또한 스님들은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세계를 파괴해온 것은 탐, 진, 치 삼독에 물든 마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감정들은 결국 폭력과 죽음, 기근, 전염병 등을 유발했으며 악한 마음은 세계의 출발에서부터 혼돈의 기원이었다는 주장이다.

담마까야 사원의 비수티쿤(Phra Bhavana Visuthikhun) 대수도원장은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기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처님께서 설한 '세계를 지키는' 두 가지 덕을 제시했다. 악한 일에 대한 '혐오감(또는 수치심)', 악업으로 인한 과보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이날 고승들의 법문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특히 고승들이 대거 초청된 이유는 스님들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공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는 것이 담마까야 재단의 설명이다.



◇22일 태국 방콕에서 1만 5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세계 지구의 날' 기념법회.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印, 6일간 빔 페스티벌

### 암베드까르 박사 111번째 탄생 기념 불교축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뿌네에서는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암베드까르 박사의 111번째 탄생일을 맞아 '빔 페스티벌'(Bhim Festival)이 열렸다.

인도 현대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까르 박사의 생일은 인도 불자들 사이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다음으로 큰 축제로서, 이 '빔 페스티벌'이라는 명칭도 박사의 이름 '빔'에서 따온 것이다.

올해의 빔 페스티벌은 지난 9일 아쇼카 대왕의 석주 기공식을 겸한 개막 행사로 시작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시내의 암베드까르 회관 전시장에서는 박사의 유품과 사진, 세계의 불상 전시회가 열렸으며 동 회관 강당에서도 강연회와 세미나, 문학 발표회 등이 진행되었다.

빔 페스티벌은 17일 저녁 '붓다얀 마하상가' 소속의 스님들을 모신 가운데 기념법회와 라자라딴 스님의 법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법회를 마친 신도들은 거리로 나와 암베드까르 회관부터 뿌네 역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행진하고 해산했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유품·사진·세계 불상전시회·세미나**
**뿌네시 사찰 인산인해·가두행렬도**




◇찬불가 전문공연단인 '붓담 사라남 가차미'는 빔 페스티벌을 맞아 9~14일 암베드까르 회관에서 매일 밤 공연했다.




◇21일 일본 요코하마시에 도착한 한일 평화도보 대장정단 일행.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단장인 원공 스님. 사진제공= 중앙일보

## 한일 평화도보 대장정단 日 요코하마 도착

성공적인 한일 월드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2002 한일 평화도보 대장정'(중앙일보 주최)에 나선 원공스님(천축사 주석) 등 일행 11명이 21일 월드컵 폐막식이 열리는 일본 요코하마(橫濱)시에 도착했다.

2월 2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한지 53일만에 이곳에 도착한 원공스님 일행은 그동안 한국 7곳, 일본 5곳 등 총 12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거쳐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행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 종교인들도 돕고 있다. 일행은 앞으로 70여일 동안 일본 동북부 지역 등을 행진한 후 부산, 울산을 거쳐 6월 30일 대구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의료·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 印 JTS, 지바카병원 인력없어 장비 낮잠

인도 내 천민마을에서 구제사업을 펼치고 있는 JTS(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민간기구, 이사장 법륜스님)산하 지바카 병원에서 전문, 일반 자원봉사 인력을 구한다.

현재 지바카병원에는 한국인 상근스탭 3명을 비롯 파트타임 자원봉사로 인도인 의사 8명, 약사 1명, 업무보조 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바카 병원은 건물의 규모로만 따지자면 비하르주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전문 의료진이 없어 입원시설들을 운용하지 못하고 고가의 엑스레이 장비나 기타 의료시설들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의료전문 인력들이 자원에 나설 경우, 외래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기본으로 현지 한국인, 인도인 스탭들, 마을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해줄 수 있다.

한편 JTS(www.jts.or.kr)는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도체험 봉사활동인 제4차 JTS 국제워크캠프를 연다. 인도 빈민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대학생들은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587-8756, jts@jts.or.kr

인도 보드가야= 김동훈 통신원

# 티베트불교 탄압비디오 첫공개

### 중국 탈출 스님 2명, 사찰파괴 모습 등 담겨

중국이 티베트의 스님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대외 선전과 달리, 사찰 시설들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처음 외부에 공개됐다.

중국 남서쪽 쓰촨(四川)성 지역에 있는 티베트 불교강원인 세타르사(寺)에서 기거하다 탄압을 피해 한달간 걸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탈출한 켐파 텐경등 스님 2명이 18일 공개한 10분짜리 비디오에는 중국군이 인부들을 동원해 세트라사 경내와 인근의 요사채 수천채를 파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비디오에는 거주지가 파괴되는 것을 보며 스님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담겨 있지만 다행히 세타르사는 파괴를 면했다고 텐켕 스님은 밝혔다.

그는 남아시아 주재 외국 특파원단에 이 비디오를 공개하면서 '티베트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중국의 선전은 거짓'이라면서 지난 1980년 세타르사를 설립한 직메 푼촉은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 全일본 불교회 25기 사무총국 출범

재단법인 '전일본불교회(全日本佛敎會, 東京都 港區 芝公園)' 제25기 사무총국(事務總局)이 지난 1일부터 출범했다. 西村惲成(曹洞宗) 전 사무총장 후임에 小林正道(曹洞宗 出版室長)씨가 취임하는 등, 퇴임자를 대신해 4명이 사무총국에 들어왔다. 임기는 2년.

전일본불교회는 지난 1월말 '이사회-평의회'를 통해 大谷 光眞(本願寺派 門主) 회장, 森 和久(曹洞宗宗議會 議長) 이사장을 각각 승인했다. 이번 고바야시(召林)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모리-고바야시 체제'가 갖추어지게 됐다.

새로운 사무총국은 현안인 네팔 룸비니동산 마야당 부흥문제 외에, 전 이사장이 제기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대신하는 종교시설(國立墓苑) 구상에 관한 의견 집약과 향후 국정선거의 후보자 추천 문제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신연산사원(身延山寺院)' 주지의 거액 소득세법 위반문제가 표면화된 일을 계기로 종교단체의 회계나 세금문제도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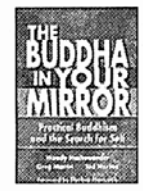
일본 동경= 장영식 통신원

## 해외불서

• 지장보살의 구세법: <법멸진경(法滅盡經)>에는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지장본원경>에는 구세법(救世法)을 닦으면 구원된다고 적혀있어, 이 구세법은 21세기를 맞이한 인류가 닦아야 할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법멸진경>, 인류의 멸망을 슬퍼한 경(불안으로 본 말법의 세상 등), 제2장 <지장경>, 인류 멸망을 막는 방법을 시사한 경(천계에서 미증유의 대보살로 찬탄받은 지장보살 등), 제3장 구세법, 구세불(救世佛)이 보이는 불가사의한 힘(구세법과 서원(誓願)으로 생기는 불가사의한 힘 등), 결론(구세법 28종법과 7종법의 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원 호우가쿠(寶岳) 지음, 일본 문예사 펴냄.




• 심경(心鏡)의 붓다: <The Buddha in Your Mirror>는 사람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수행법을 제시해 일상생활 가운데서 긍정적인 특별한 효과를 느끼도록 한다. 그레그 마틴(Greg Martin) 등 3명의 저자들은 긴 정신적 휴식을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문제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드러낸다. 이 책은 부처님의 육성처럼 일상의 삶속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진정한 삶'의 모델을 통해 건강과 인간관계,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세계와 환경, 평화, 기타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 중도(中道)출판사 펴냄.





天蕷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堂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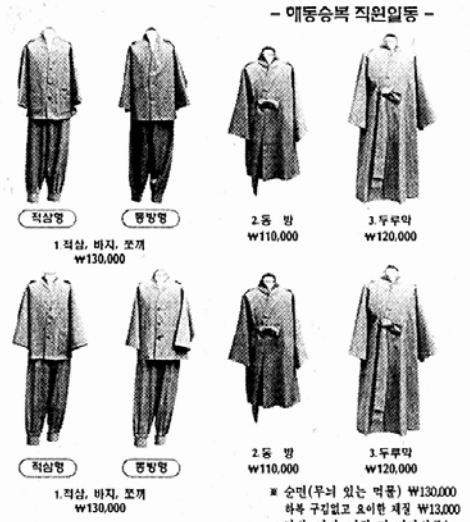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순면(무늬 있는 면물) ₩130,000 하복 구입없고 요이한 체질 ₩13,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몸배 ₩50,000 / 셔츠 ₩30,000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악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各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塔,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9
팩스 : 02)737-0696

## "국제포교에 적극 나설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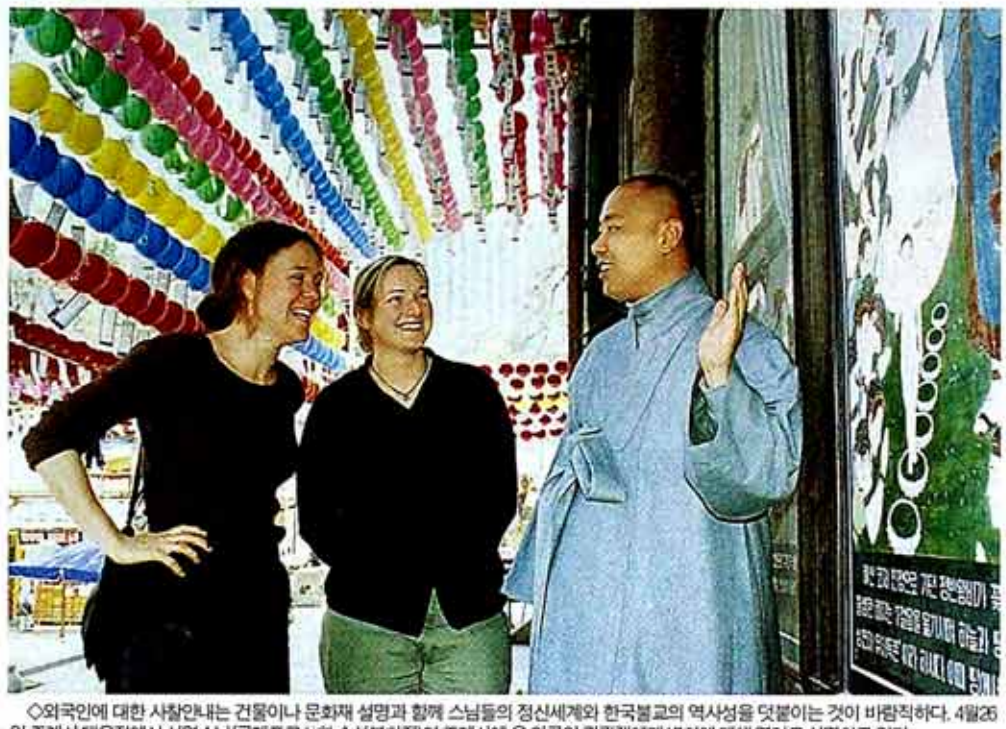
국제포교사회 **백원기** 회장



"주한 미군과 외국인 노동자 포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제포교사회 백원기(동국대 전자계산원 교수) 회장은 5월 3일 미8군법회를 봉행하는 것을 계기로 3년전에 사실상 해산된 미8군법우회를 재창립하는 등 주한 미군 포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외교사절 및 외교관 부인 초청법회를 비롯, 불교 영어수업을 원하는 사찰 및 단체에 대한 인력지원 등도 실시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법륭사, 미얀마선원 등과 연계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출신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복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120여명의 국제포교사가 하나로 뭉쳐 국내거주 외국인포교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템플스테이 사업 지원을 계기로 향후 사업영역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 미8군 법우회 재창립도 추진



◇외국인에 대한 사찰안내는 건물이나 문화재 설명과 함께 스님들의 정신세계와 한국불교의 역사성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월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업스님(국제포교사회 수석부회장)이 조계사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벽화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고 있다.

## 한영 불교사전 만들계획

봉은사 문사수회 **이태길** 회장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외국인과 가이드들을 위한 <한영 불교사전>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 봉은사의 외국어 자원봉사모임 문사수(聞思修)회 이태길(58, 레이티온 인터내셔널 코리아 이사) 회장은 "이번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는 물론 한국의 수행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서울 아셈(ASEM) 회의를 계기로 봉은사 외국인 안내 활동과 인연을 맺은 이 회장은 지난해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받아 아내 박미자(57, 주부)씨, 딸 이영남(30)씨와 함께 국제포교사 가족이 될 정도로 외국인 포교에 원력을 쏟아왔다.

군대시절 영어교육을 담당 할 정도로 영어실력이 뛰어난 이 회장은 4월 28일부터 봉은사에서 발우공양, 참선, 다도 등 외국인 불교체험 행사를 매주 20명 내외로 열겠다고 말했다.

### 매주 외국인 20명 불교체험

# 한국불교 세계인에 심는 첨병
# 외국어 자원봉사자 실습 한창

### 템플스테이 대비 130명 수덕사서 연수 | 외국어로 사찰 소개하며 자부심 느껴
### 예불·발우공양등 영·일·중국어로 시연 | 지속적 교육·관리, 봉사단 확대 필요

"불교문화는 민족의 얼과 지혜를 담고 있어요. 단순하게 건물과 문화재를 소개할 것이 아니라,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정신과 한국 불교의 수행가풍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해요."

4월 20~21일 1박2일간 템플스테이(Temple Stay) 외국어 자원봉사자 3차 연수가 벌어진 수덕사의 원통보전. 중국어 담당강사인 경완스님(수덕사)은 11명의 연수생들에게 중국어로 관세음보살상과 각종 탱화를 설명하며, 외국인에게 사찰을 소개할 때 유의할 점을 강조했다.

경완스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에 재학중인 조소영씨 등 연수생들은 전문적인 불교용어를 잘 모를 때면 고치고치 캐물으며, 실제로 외국인을 안내하듯이 중국어로 설명했다. 1, 2차 연수 때는 불교를 잘 몰라 다소 어색해 하던 연수생들은 어느새 불자가 다 되어, 이번 연수에서는 능숙하게 사찰의 이모저모를 설명했다.

영어, 일본어 연수생들도 예불, 참선 실수에 이은 다도 및 발우공양, 연등 제작 등의 실습시간에 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시연하며 통역을 해보았다. 모두 언어별로 대화가 자유로울 정도로 전문가이지만, 불교용어가 아직 생소한 것이 많아 강사들에게 물어가며 통역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변변한 외국어 '한국불교 안내서'나 '불교용어 사전'은 물론 상설 교육기관 조차 없는 실정에서 불교전문 통역사나 가이드를 양성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보였다.

월드컵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과 프르그램 운영지침 등을 숙지하는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조계종 포고원도 이를 인식하고, 이번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4월21일 수덕사 원통보전에서 국제포교사 중국어강사인 경완스님이 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중국어로 관세음보살상에 대해 설명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외국어 자원봉사자는 중국어 11명, 일본어 25명, 영어 94명 등 모두 130명. 조계사, 봉은사, 직지사 등 31개 사찰 실무자와 국제포교사 연수생 등 150여명이 사찰별 템플스테이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운영지침 및 프로그램 심습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찰별로 템플스테이 추진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템플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신하는 자리였다.

"여러차례 외국인을 상대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본 결과,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 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선, 포행, 다도, 예불 등을 체험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만 해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합니다."(직지사 김은영씨)

사찰별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은 외국인에게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진행과,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한국불교 체험이라는데 공감을 표했다. 연수생들도 이 사업이 안방에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포교 기회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남은 기간동안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하는 전법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 배포된 사찰안내 리플렛. 7개국어로 제작됐다.

21일 회향식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들은 불자가 아닌 분들도 어느새 신심과 원력을 갖춘 일등 포교사가 되었다"면서 "언어가 유창한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진짜 통역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학림사, 광림사, 와우정사 등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등 모두 34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이번 템플스테이 사업은 관광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상품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불교 전통문화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키우려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불교를 더 잘 알릴수 있을까. 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이 프르그램운영지침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 템플스테이를 주말 수련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템플스테이사업단 사무국장 주경스님은 "매년 국립공원에 2천만여명의 예비신도가 들리지만, 이에 대한 포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주5일제 근무와 국제 포교를 대비해 템플스테이 사업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 한 포교는 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비롯,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와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연합회'(운영위원장 선업스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도 30여명의 국제포교사 연수생과 다수의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98년 출범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26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그림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미8군 및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국내외 외국인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종교별 해외포교 활동상황을 영상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해외포교의 원력을 다진 이번 후원의 밤을 계기로 국제포교사회는 5월 3일 미8군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주한 미군포교를 시작한다. 외국인용 <사찰안내 지침서> 발간을 비롯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개선 및 지원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대식을 가진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연합'(이하 외자연)은 조계사, 봉은사, 송광사, 통도사, 불국사, 통도사 부산포교원, 속초 신흥사, 연등국제불교회관 등 8개 사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외자연 운영위원장 선업스님은 "포교 일선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불교를 이해시키는 일은 외국어와 불교교리에 능통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조계종 포교원 및 국제포교사회와 협의해, 이번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를 회원으로 대부분 받아들여 지속적인 외국인 포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수덕사=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1Box × 60포 : 15만원 ■2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 법화경 ㉓ 견보탑품 제11

#### 두 부처님 나란히 앉다

세존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을 대표하여 다보탑을 열어 줄 것을 대요설(大樂說) 보살이 간청하자 시방 분신의 여러 부처님을 불러 모으셨다. 세존께서는 두 눈썹사이의 백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여 우선 동방의 무수한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을 비추시고 그로부터 차례로 4방 8방, 상하를 합쳐 시방(十方)의 세계를 비추시며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초청하여 오시도록 했다. 세존께서는 그 부처님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를 신통력에 의해 더없이 청정케 하였는데 다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남기고 다른 천신들과 사람들을 다른 국토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사바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을 수용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각각 2백만억 나유타의 나라들을 신통력에 의해 청정케 하고 그들 모두의 세계를 뭉쳐서 하나의 불국토로 만드셨다. 이것을 삼변토전(三變土田)이라 한다.

**다보·석가모니불 보배탑 병좌**

**법신·보신의 鏡智묘합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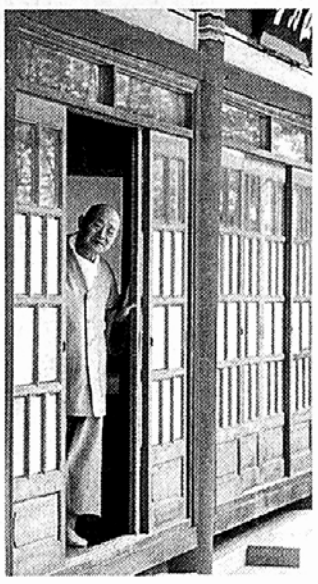
이리 하여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부처님은 지금은 사바세계가 변하여 청정 광대한 불국토가 된 이 안의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마련된 사자좌에 앉아서 모두 석존에게 탑을 열 것을 간청했으므로 석존께서는 영축산으로부터 공중에 올라 이윽고 보배탑을 여시려고 했다. 오른 쪽 손가락으로 문을 열자 마치 큰 성문을 여는 것처럼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러자 그 속에는 사자좌에 앉아 마치 선정에 들어 계시는 것 같은 다보불의 전신(全身)이 보였으며 이윽고 다보불께서 "나는 여기에 <법화경>을 듣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보불은 차기 자리의 반쪽을 나누어서 앉을 수 있도록 양보하며 석가모니불을 탑 안으로 초대했다. 석가모니불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여 보배탑 안에 들어가 다보불과 나란히 앉으셨다. 이것을 '이불병좌(二佛並坐)'라 한다. 석존께서 보배탑 안에 들어가 다보불과 나란히 앉으신 것을 본 사람들은 자기들도 공중에 머물고 싶다고 원했다. 이런 뜻을 간파한 부처님께서는 즉시 이 법회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허공에 올려놓으셨다. 이로써 <법화경> 설법의 자리가 지상의 영축산에서 허공으로 옮겨졌으므로 이후 '촉루품'에서 법회 자리가 재차 영축산으로 되돌아오기까지를 '허공회(虛空會) 설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가면 '보배탑의 솟아남', '시방의 부처님들이 모여 옴', '삼변토전', '보배탑의 개탑과 이불병좌', '법회가 허공으로 이동' 등 어느 것이나 기상천외한 것이어서 이 '견보탑품'은 웅대하고도 장려한 하나의 드라마라고 해도 좋다.

중국 삼론종의 길장(吉藏)은 이 이불병좌에 대해서 "다보불은 오래 전에 멸도했지만 불멸(不滅)이면서도 멸도의 상(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보불과 함께 석가불이 나란히 앉음에 의해서 지금의 석가모니불도 실제로는 생멸은 없으나 방편으로 생멸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천태(天台)는 보배탑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이것을 방편을 연다는 개권(開權)에 적용시키고 탑중 부처님 뵙는 것을 진실을 나타낸다는 현실(顯實)에 적용 해석하고 있다. 또 '이불병좌'에 관해서는 경(境)인 법신(法身)의 다보(多寶)와 지(智)인 보신(報身)의 석가(釋迦)와의 경지묘합(境智妙合)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의 여러 가지 모티브가 경전의 유통이라는 커다란 목적 아래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견보탑품'의 극적(劇的)인 구성도 모두 그 목적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참으로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유통의 대원(大願)을 일으키기에 걸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엉뚱한 공상(空想)의 소산(所産)이 아니라 역력한 불교신앙 속에 계승되어 온 전승(傳承) 즉 <잡아함경> 권41에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무설정사 조실



'천진불(天眞佛)'. 70이 넘은 노스님 이두(二斗) 스님을 흔히 이렇게 표현한다. 스님의, 만월처럼 둥근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늘 떠나지 않고 마음씀이 동심처럼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도 나직하면서도 부드럽고 하신다. 스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스님을 수년간 모셨던 상좌 현진 스님(해인사 포교국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탈 겸손하시고 당신이 쓰는 시(詩)처럼 사시는 수행자"라고 말한다. 공양때도 국 한그릇 반찬 하나뿐이라도 주는 대로 먹을 뿐이다. 일체 시비를 안 하신다.

## 가까이서 뵌 큰스님

# 이 두 스 님 (청주 관음사 주지)

# 착한 일로 선한 인연쌓고

**인과를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분심·복수심 내선 안돼**
**새로운 업 짓는 일…**

봄 날씨 치고는 유난히 더웠던 4월 22일, 청주 관음사에서 이두 스님을 뵈었다. 2년여의 혹독한 병고를 치렀고 아직도 완쾌되지 않은듯 보였지만 스님은 특유의 자비로운 미소를 만면에 띄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떻게 화를 안내고 늘 웃을 수 있을까. 스님께서 자상하게 일러주신다.

"성질이 날 때면 성질을 내기 전에 곰곰히 자신을 들여다 보세요.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하라는 거지요. 사실 화내고 큰 소리 치면 그것이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후련한 것 같지만 대부분 후회가 뒤따를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화낸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후회가 따르지요. 화를 내면 그 노여움이 주변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날때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나'하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론 화는 이것 저것 여유있게 생각할 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겠지만 불자들이라면 화가 날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으로 관을 하세요. 그러면 노여움은 가라앉고 냉정을 되찾게 됩니다."

스님은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염불이나 진언을 외워보라고 하신다.

화를 참겠다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화가 날 일인가 하고 관해보면 사실 화의 실체가 없다. 불끈 하고 솟는 이 마음이 내 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화도, 노여움도 어느새 거품처럼 스러져 버린다는 것이다.

스님은 화난 마음,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다. 욕망이나 분노 등의 감정에 끄달릴 때 나는 언제나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헤어나질 못하게 된다. 파도치는 바다같이 쉴 새 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마음의 변화 따라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본래 공한 것을 알아 집착하지 말고 본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두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의 이름이 '계향사(桂香舍)'이다. 우암산 관음사의 원래 이름인 계향사(桂香寺)에서 따온 명칭이다. 계향사 앞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우리나라 야생화가 옹기종기 심어져 있다. 스님의 심성을 닮은듯 친근감이 든다. 이두스님은 꽃을 무척 좋아하시고 비오는 날을 좋아하신다고 한다.

스님 방에는 은사 금오스님의 사진이 모셔져 있다. 스님은 예불후 아침저녁으로 은사 스님에게 예를 드린다.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사에 철저하고 수행에 엄격했던 금오스님은 시줏물에 대한 절약정신 역시 무섭도록 철저했다. 출타하실 때는 심지어 기름병에 눈금을 그어두고 절에 돌아와 확인해 보았을 정도다.

금오스님이 늘 당부하는 말은 "계행을 철저하게 지킬 것"과 "참선에 오로지 힘쓸 것"이다. 이 말은 이두 스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되었다. 당신께서 정하신 수행자상에서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며 아무리 아끼던 제자라도 그날로 보지 않던 분이 금오스님이셨다. 이두스님은 한번 화두에 들면 며칠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은사 스님 곁에서 화두에 들던 당시를 회고하신듯 잠시 말을 멈추셨다.



◇나중에 하겠다고미루지말고지금 이순간철저하게수행하라고가르침을주시는이두스님

## 욕심 다스리면 마음 절로 청정

"지금은 몸도 아프고 힘도 없어 화두 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수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 나이들면 하겠다 미뤄두면 결국 늙어서 힘이 없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순간 바로 수행하세요.

화두 참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예요.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입니다.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굳센 믿음으로 화두에 대해 조금도 분별하지 말고 간절하게 오직 화두만을 파고들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두 스님이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인과를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서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인과응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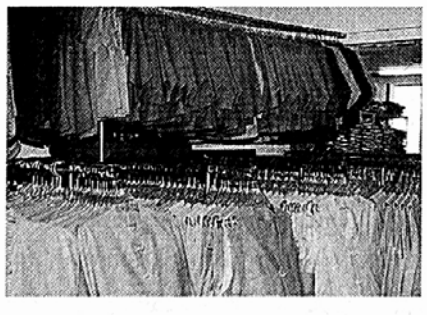
"운명이니 팔자니 등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은 스스로 지어가는 삶일뿐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신의 업력에 의한 과보일 뿐이예요. 그러니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 괴로운 삶을 과감히 단절하고 즐겁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팔자타령만을 하거나 점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 나쁜 점, 잘못된 점을 참회하고 새롭게 발심하는 자세가 불자에게는 필요하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에 따라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하며 인이 되기고 하고 과가 되기도 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따라서 어떠한


천개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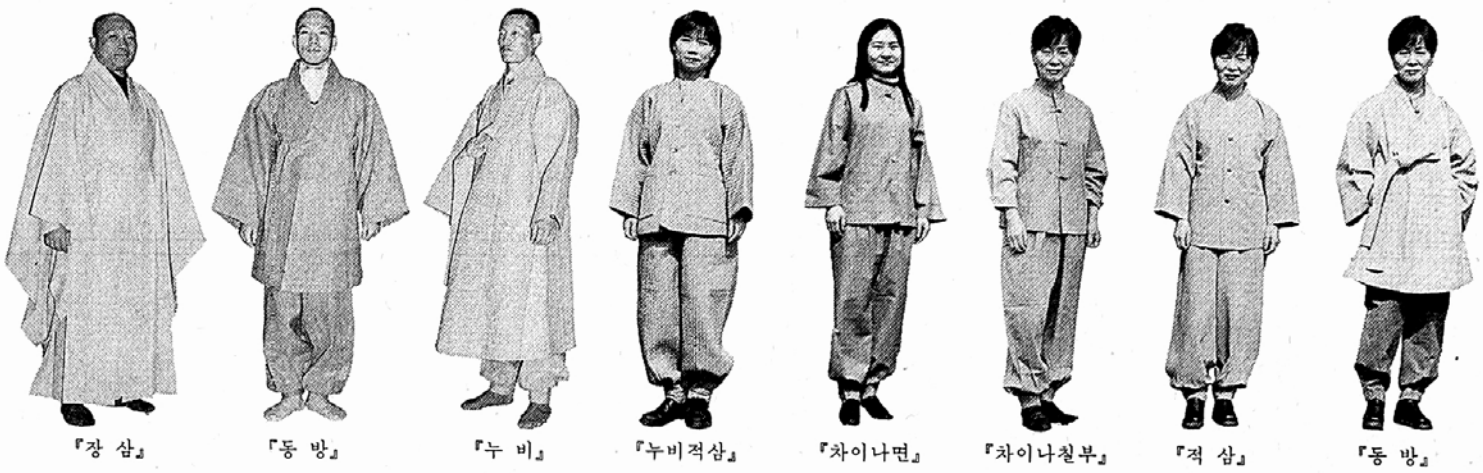




천개불심 佛心

천개불심

천개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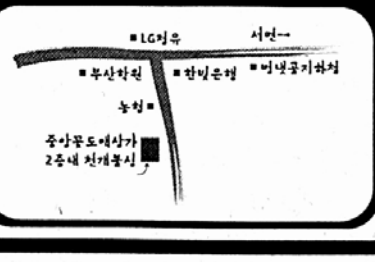


『장 삼』 『동 방』 『누 비』 『누비적삼』 『차이나면』 『차이나칠부』 『적 삼』 『동 방』

삼보에 귀의합니다.
천개불심은 승복(법복)의 대명사입니다.
저희 천개불심은 불심(佛心)을 바탕으로 승복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업체입니다.
한벌의 옷을 짓는 마음에는
가족을 위한 바느질의 정성과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입을 옷을 짓는 정성이 한땀 한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불심이 깃든 승복(법복)을 수하십시오.
불세계로의 출발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천개불심으로 오십시오.
대 표 문 수 환 합장

천개불심 오시는 길




승복,법복,각종소모품일체납품/부산광역시 진구 범천동 중앙시장2층 한약상가 16호 ※ 전국 불교용품점에 가시면 만나실수 있습니다.
www.cgbulsim.co.kr/ 051-633-2247 / 051-644-2246 / 011-835-9757

### 금오문도회 門長…직지 첫 국역, 시집 · 수필집 여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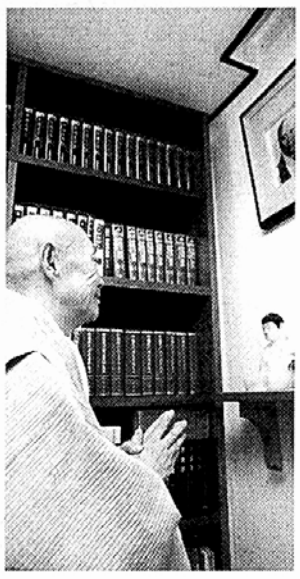
**이두스님은?**

이두 스님은 1929년 강원도 김화에서 태어났으며 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화사 강원과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71년 갑사 주지, 78년 법주사 주지를 지냈다. 83년부터 청주 우암산 관음사에 주석하며, 폐사지였던 곳을 새롭게 중창, 청주의 중요한 포교중심도량으로 가꾸어 놓았다.

그동안 시집 <겨울 빗소리>, 수필집 <푸른 산방>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냈으며 앞으로 시집 30권을 채울 계획이라고 하신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서양철학에도 해박한 스님은 금오스님의 상좌와 손상좌 들의 모임인 금오문도회 문장(門長)을 맡고 있으며 2001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다. 혹독한 병고를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만행다니기를 즐겨하며 '시심불심(詩心佛心)'을 다듬어온 이두스님은 선과 함께 교학에도 밝기로 이름이 났다.

<직지심체요절>을 처음으로 한글 번역한 스님은 국조 단군왕검에 대한 체계적인 글을 써보고 싶다고 하신다.



# 좋은 과보 받도록 노력하길



◇소탈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은 동심을 그대로 지닌 이두스님. 매일 옳은 일을 하여 옳은 인연을 만들라고 하신다.

## 화내고 큰소리 치면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거품같이 실체없는 것

번뇌 망상들이
돌처럼 굳어져서
중생 됐으니
망상없는 한마음은
부처님인저

성불은 관념으로 만들어짐 아니라
일음 녹아지면 다시 물이듯
망상만 없어지면
불심에 환원되나니

망상 기능이
상실할 때까지
염불 참선 삼매 정진
쉬지 말고 해야 할지니라

망상없는 한 마음
나타나면
천지가 물이 아니고
형형색색
두두물물
모두 다 나뿐일지니

낙엽소리 새소린들
어찌 또
어찌 부처님의 목소리 아니랴

낙엽소리 낙엽소리
새소리 새소리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는 가을에는.

## 국내인구 절반인 종교인 앞장서 자비행 실천해 '정토' 이뤘으면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돌고 변하며 성주괴공하고 있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모든 것은 결과가 지어지는 것이다' 이 이치를 밝게 안다면 어찌 분별망상을 갖고 무명에서 허덕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실하게 체득하지 못하거나 내 생의 과보를 무시한 채 그저 하루하루 탐욕에 끄달리고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고 원망하고 섭섭해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또 금방 업보를 받지 않는다고 방자하고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설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분심이나 복수심을 내서는 안돼요. 언젠가 그런 원인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하나 새로운 업을 짓지 않아야 하지요."

큰 스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인과응보는 에누리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업의 과보는 신분 성별 귀천 빈부 차별이 없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과보를 받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닦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좌 현진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어 인과를 무서워하고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면 중노릇은 저절로 잘하게 되는 법이라고 늘 말씀하시죠"라고 덧붙인다.

생활속에서 불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주셨다.

"가끔 보면 법당에 촛불이 켜 있는데도 자기가 가져온 초로 바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촛불을 켠 지 얼마 안된 새 초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구. 무심코 하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처님께 새 초로 공양을 올리려는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인데 초만 새 것이면 뭐해요? 차라리 켜 있는 촛불을 그냥 두고 새 초를 사는 돈으로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쓴다고 해 보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니 첫째 좋은 일이고, 또 자비행을 행하라는 부처님말씀을 실천에 옮겼으니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째 좋은 일이고, 물자 절약이 되었으니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천만명이 넘는 불자가 있고, 기독교인도 수백만명이다. 종교인들이 인구의 반을 훨씬 넘는다. 스님말씀처럼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비행을 열심히 행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이 없다면 성낼 일도 없고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이 겪는 모든 병의 근본을 찾아 올라가면 탐진치 삼독에 귀결되고 또 이것을 하나로 집약하면 탐심으로 귀결됩니다. 욕심 하나만 잘 다스려도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지고 주위까지 환해져요. 우리는 날마다 탐진치를 뛰어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화내는 마음을 뛰어넘고 탐욕스런 마음, 거짓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뛰어넘어야 해요.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하다보면 본래의 마음이 밝아옴을 느낄 거예요. 이것이 수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행정진을 계속하다보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설로 진리 그 자체임을 아는, 열린 마음이 될 거예요"

수행 열심히 하라는 이두스님의 간곡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일어서려는데 스님은 몇 년전 '열린 마음 한 마음'을 주제로 시를 지어 문예지에 발표한 것이 있다며 시를 하나 소개하셨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혜각스님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다. 풍요로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가난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으며 갈수록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풍요로움과 편리함에의 추구는 세속을 떠난 산속 수도자들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깊은 산 속 암자에도 문명의 이기들은 어김없이 찾아와 깊숙이 들어앉아 있다. 물질의 풍요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풍요로운 물질의 세계에 길들여지다 보면 예외 없이 맑고 투명해야 할 정신이 황폐해지기 마련이니 그것이 걱정이다.

며칠전 통도사 성전암에 살고 있는 도반을 찾아가 하루 머물다 왔다. 우리는 주로 가난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넉넉했던 지난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도반스님이 들려준 혜각 노스님에 대한 이야기다. 십여 년 전 어느 날, 도반스님은 부산에서 일을 보고 통도사로 돌아오는 길에 병풍을 지고 걸어서 귀사하시는 혜각 노스님을 만났다. 얼른



차를 세우고 병풍을 받아서 뒷좌석에 싣고 스님을 차에 태워드렸다. 절 가까이 이르렀을 때 노스님께서 "고맙소, 이제 다 왔으니 그만 내려주시오." 하시길래 병풍을 내린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저녁공양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저만치서 노스님께서 병풍을 지고 걸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노스님께서는 차를 타고 왔던 삼십 리도 넘는 길을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오신 것이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그러나 웃어버리고 말기에는 너무나 큰 무엇이 내 가슴에 남았다.

도반스님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훗날에야 안 일이지만 그 병풍은 노스님께서 평소 존경하는 석정스님이 그려주신 것이었다. 노스님께서는 그림을 그려준 석정스님에 대한 존경심과 작품을 정성껏 대하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길이었다. 편리함만을 좇아 그것을 자동차에 가볍게 싣고 오기에는 노스님의 마음이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동차를 태워드리겠다는 후학의 성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기에 차를 탔다가 되돌아서 다시 걸어온 노스님의 이야기는, 정성은 생략된 채 편리함에만 길들여진 오늘날의 우리 출가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혜각스님은 뛰어난 단청기능을 보유하신 스님이셨다. 통도사의 단청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 혜각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통도사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찰의 단청이 스님과 스님의 제자들에 의해 단장된 것이다.

다른 업자들이 천만원을 요구하는 일거리를 스님은 오 륙백만원이면 된다고 하셨고, 오백만원에 계약하면 육 칠백만원어치 일을 하셨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업자가 일한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일을 처리했고 아름다운 단청을 만들어 내셨다. 그것은 스님께서 손수 버팀목을 메고,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 처마를 쳐다보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혜각스님은 생전에 한번도 법상에 올라 설법하신 적이 없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시지 않는지요?" 여쭈면, "나는 법상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법상보다 더 높은 처마 끝에는 매일 올라갑니다"하며 웃곤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팔십이 넘도록 그림통을 메고 사다리에 올라 온종일 추녀끝에 매달려 단청 그리는 일에 몰두하시던 스님의 모습은 어느 큰스님의 법상보다도 장엄했고 아름다웠다.

### 병풍 진 노스님 차로 모셨더니 차탄곳 되돌아가 다시 걸어와

스님은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 여러 번을 다치셨다. 다른 사람 같으면 죽거나 크게 다칠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마치 신장님이 받아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니 스님의 정성과 신심이 지극하셨기 때문이리라.

일을 하시고 돈이 조금 생기면 반드시 서화나 골동품 같은 것을 사서 모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통도사에 기증했으니, 오늘날 불교계 제일인 통도사박물관이 혜각스님의 기증품에서 그 기틀을 잡은 것이나 다름 없다.

오늘날 우리 승가엔 혜각 스님 같은 분이 없어 허전하다. 법문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 존경하는 분의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 수십 리 길을 지고갈 만큼 순수했던 진짜 스님은 없다. 배고프고 고달픈 일은 아무도 하려 들지 않는 풍토가 되어버린 지금, 어쩌면 혜각스님의 이러한 이야기는 고전으로나 남을 전설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

가난한 수행자의 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저 푸르렀던 지난 시절이 그립고, 한평생 화려한 법상은 없었어도 부처님 일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신심을 지니고 살다 가셨던 혜각 노스님 같은 선지식이 그립다. 물질의 풍요가 수행자의 속살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건만 어느덧 그것에 익숙해진 나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 구미 영명사 주지

3일 안에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
- 고도의 정신집중 능력

禪林 주위환경
수려한 경관에 수련지 전용 현대식 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약수

수련과정

| | |
|---|---|
| 本性 3박4일 | 참마음 |
| 一性 1박2일 | 實體없음, 時空없음, 無分別智 |
| 無碍法界 2박3일 |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업장소멸, 조상천도(薦度), 마음의휴식 |
| 無上覺 2박3일 |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自發的삶 꾸리기, 氣(에너지), 마음과 최면(催眠), 삶의 유희(遊戲) |
| 安息 2박3일 | 藥이 필요 없는 온전한 몸 다루기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총마음수련 心田 대광사

제운스님 달마선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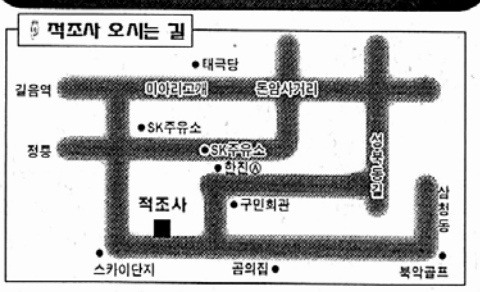
인 사 말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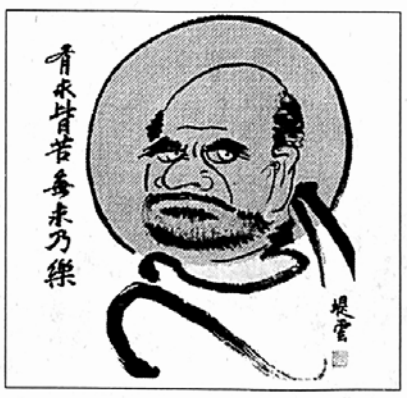
봄날의 오후
햇살이 더욱 포근함을 느끼는 때 小納제운, 禪農하는 마음으로 韓紙며 순지, 화선지에 한장 한장 그리고 쓰고 觀하기를 마치고 오늘 대덕스님과 善男子 善女人을 모신 場을 마련하였습니다.
觀心과 온정이 깃든 질정이 되어 주신다면 佛事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지 제 운 합장

□기 간 : 2002년 5월 10일(금)~ 5월 15일(수)
□초대일시 : 5월 10일(금) 오후 2시
□장 소 : 적조사 경내
□문 의 : 02)924-5362~3

적조사 오시는 길




■달마 / 한지에 먹과 금분 47.5 × 40.5cm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 조 사 주지 제 운 합장

# 봉축문화행사 어느때보다 '풍성'

## '연극 비구여' '관세음보살' '염화미소'
## '위파사나' 주제 창작무용 발표회
## 백련·도솔천 등 스님 사진展도 열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문화행사들이 사찰과 공연장에서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봉축문화행사들은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어서 인지 연극, 무용, 미술 전시회, 사진전 등 어느때보다도 더 붓을 쏟아지듯 풍성하다.

불교극단 바람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비구여'를 상연한다. 노 비구승의 구도 과정을 조명한 이 작품은 비구승의 대승적 실천행각을 통해 허물어져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수행자들에게 올바른 수행상과 포교상을 제시해 준다. 특히 연극 '비구여'는 주제를 섬세하고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장면마다 불교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범종과 법고, 목어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02)722-5708

부산 삼광사도 작가 정찬주씨의 소설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 '관세음보살'이 17·18일 양일간 삼광사 대웅전앞 특설무대에서 이윤택씨의 연출로 무대에 올려진다. (051)808-7111

3일부터 12일까지 명동 창고극장에서는 나무군이 행자를 거쳐 고승이 돼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염화미소'를 선보인다. 진관스님(불교문화예술진흥기금마련협의회 공동의장)이 20년만에 각본을 쓴 작품으로 마당놀이 형식으로 꾸며진다. (02)775-0535

'위파사나'를 주제로 한 이색 무용공연도 가볼만하다. 윤덕경 교수(청주 서원대 무용과)가 1989년 창단한 '윤덕경무용단'은 15·16일 양일간 충북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요한 시간, 깨달음-위파사나'를 주제로 창작무용발표회를 갖는다. 윤 교수는 이번 공연에서 위파사나 관법을 춤사위에 녹여,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몸짓언어로 무대위에 펼쳐보인다. (043)299-8950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심청의 효심을 주제로 한 '회심곡 2002'가 8일부터 12일까지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회심곡의 대가인 경기명창 김영임씨의 애절하면서도 맛깔스런 회심곡의 정수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02)786-8886

양평 법왕정사에서는 5일 '제1회 소리산 문화축제'를 연다. 하유 스님의 법고로 시작되는 이번 축제에는 타악기 연주가 김대환 교수의 타악연주, 무세중(前 중앙대 교수)씨와 무용가 무나미씨의 전위극 '응작여시관(應作如示觀)' 등이 펼쳐진다. 특히 19일까지는 쌀알에 <반야심경>을 새겨놓은 작가 김대환씨의 '미각전'이 마련된다. (031)771-7745

불교사진연합회는 충무로 후지포토 싸롱에서 4일까지 불교사진전시회를 연다.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선암스님(선암사)의 '백련'을 비롯해 정우스님(양재동 구룡사 주지)의 '실크로드', 김우영 불교사진연합회장의 '도솔천' 등 50여 작품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은 4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시상식과 함께 시낭송회를 마련한다. (02)308-9520 또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목조각 전시회도 '불교예술 40년전' 이란 주제로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법련사내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02)733-5322 정명스님 '연꽃전'도 17일에서 19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 가면 감상할 수 있다. 20년동안 말(馬) 그림만 그려온 작가 정호문씨의 '말이야기전'은 공평아트센터에서 1일부터 7일까지 전시된다.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m@buddhapa.com



◇노 비구승의 수행과 중생제도 과정을 조명한 연극 '비구여'의 한 장면.



◇윤덕경 교수가 궁중무용의 웅장하고 화려한 격조가 풍겨지는 태평무를 추고 있다.



◇인도의 석층을 재료로 그린 수증스님의 '연꽃'



◇김장건 의 유화 '우리들의 이야기'

# 수증 스님·김장건 초대展

## 4일까지, 禪·불교적 세계 소재

'수증스님과 김장건 초대전'이 4일까지 서울 신정동 예가족 갤러리에서 열린다. 두 작가 모두 선(禪)적이고 불교적인 세계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지만 표현방식은 각기 다르다. 수증스님은 한지에 먹으로 그린 연꽃을 비롯한 동양화를, 김장건씨는 반구상적 유화를 선보인다. 1층 수증스님의 전시실에는 인도의 석층(돌가루)과 먹을 재료로 그린 수묵화 15작품이 전시된다. 대부분 연꽃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김장건씨의 작품들은 표현기법은 유화를 통한 구상화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명상에 잠기는 모습, 탑, 등 불교적 소재에 여백의 미(美)를 잘 살린 동양화적 성향이 짙다. 작가 김장건씨는 '우리들의 이야기' 등 15작품을 이번 전시회에 내놓는다.

조윤주 시인은 "두 작가의 작품은 종교적 영향도 있겠지만 극도의 단순미를 추구하려는 선(禪)적인 면이 강하며, 화면에서 주는 조형적 언어에도 충실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 깨진 기와조각에 불보살

## 귀일 스님, 15일부터 기와그림展 열어

깨어진 기와조각에 불보살을 장엄한다. 기와에 그림을 그리는 귀일스님(안동 봉정사 지조암)이 15일부터 28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 화랑'에서 '기와 그림전'을 갖는다.

귀일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귀면(잡귀를 몰아내는 도깨비 얼굴)'을 비롯해 '동종', '사리탑', '비천상', '불보살' 등 60여점을 선보인다.

### 귀면 등 60점 선뵈

기와 그림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사찰이나 궁궐의 처마를 장식해왔다. 주로 잡귀를 몰아내는 도깨비나 불교의 호법신장들이 화공들 손에 그려져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퇴락되었다.

첫 전시회를 갖는 귀일 스님은 "3년전부터 기와그림을 공부하며 기와라는 특수한 재료와 잘 맞는 그림 소재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직업화가는 아니지만 버려진 기와조각에 불성을 불어 넣는다는 마음으로 작업해 왔다"고 설명한다.



◇잡귀를 쫓는 도깨비 얼굴을 그린 '귀면도'.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요 며칠 수원 봉녕사 묘엄 스님의 수행이야기가 담긴 『회색 고무신』을 읽었다. 그 중에 성철스님이 삭발 출가하는 어느 행자의 멱살을 잡고 "너는 이제 머리를 깎았으니 속인도 아니고, 아직 계를 받지 않았으니 중도 아니다. 그럼 너는 대체 무엇이냐? 퍼뜩 일러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나온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쳐들어가, 머리 쓰지 말고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한마디 일러보라는 것이다. 그 대목에서 책을 덮고, 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고 생각했다. 멱살 잡힌 당사자는 놀랍고 무서웠겠지만, 큰스님의 다시없는 자상한 가르침은 인상적이다. 한국 조계종의 연원인 임제의현 선사도 그런 일을 겪었다.

그는 황벽희운 선사 밑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방의 수좌인 목주스님이 방장스님께 가서 불법의 근본 종지를 물어보라고 권했다. 임제가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장스님은 방망이로 그를 내리쳤다. 목주스님은 투덜대는 임제에게 다시 가서 질문을 하도록 부추겼다. 이번에도 임제는 얻어맞았다. 목주는 세 번째로 권유했고,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연속되는 무의미한 방망이질에 실망한 임제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래도 작별인사는 드리고 가라는 목주스님의 권유에 임제는 방장스님을 찾아갔다. 황벽은 대우선사에게 가서 지도 받으라고 했다. 임제는 대우선사에게 가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고했다. 대우는 황벽이 노파심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흉을 보느냐고 임제를 나무랐다. 임제는 이 말을 듣고 홀연히 깨달았다. 임제의 깨달음은 자신의 진면목인 '차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의 발견이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기 자신이 되었던 것이다. 임제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자리마다 진실되다.(隨處作主 立處皆眞)"는 소신으로 살아갔다.

### 임제의 '참사람'

**우주는 마음이 없다**
**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우주의 마음이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각이 생기는 것 같다. 우주는 한량없이 크지만, 중심이 없으면 허무하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곧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주의 마음이 되어 중심을 잡아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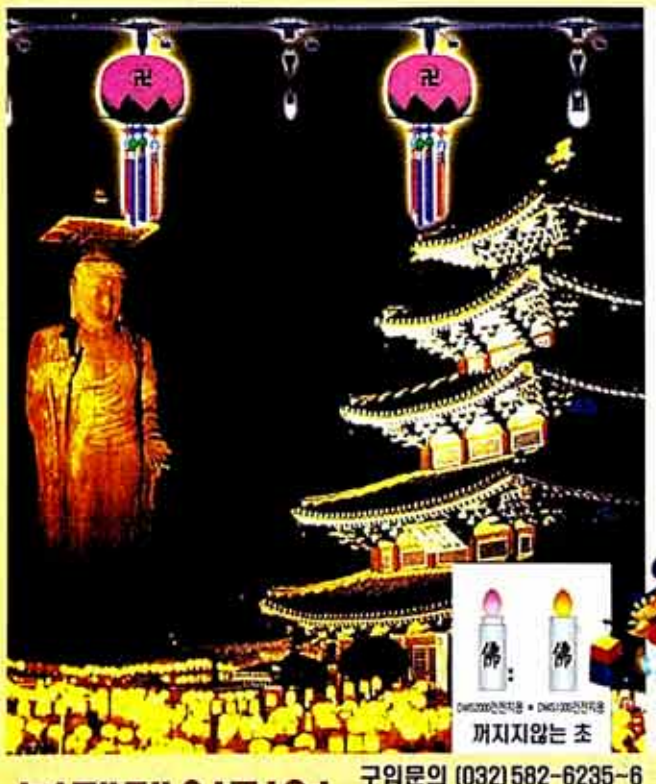
우주는 보지 못한다. 나는 본다. 우주는 나를 통해 본다.
우주는 듣지 못한다. 나는 듣는다. 우주는 나를 통해 듣는다.
우주는 못 느낀다. 나는 느낀다. 우주는 나를 통해 느낀다.
우주는 마음이 없다. 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우주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우주에게 내가 마음이 되어주어서, 우주가 나를 통해 느끼고 또 스스로가 우주인지 알게 하는 것이 우주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문학평론가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테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멀리 요괴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구입문의 (031)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붙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마당 長腦山蔘

테마독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기를 발원한 사람을 불자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처님의 생애는 삶의 지표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곧 불법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부처님 일대기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 입문서라 할 수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책을 살펴본다.

부처님 일대기를 담은 책은 연대기적 전기에서부터 그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것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와 있다. 그 중에서 꾸준히 읽히는 책으로는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법정 옮김, 동쪽나라), <부처님의 생애>(박경훈 지음, 불광출판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는 인간 석가모니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 다른 종교와 사상지의 움직임 등을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1975년 <부처님의 생애>(샘터문고)로 초역된 이후 <불타 석가모니>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출간되었다. 부처님 일대기 책 중에서는 드물게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박경훈의 <부처님의 생애>가 있다. 이 책은 <본생담>에 전하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부처님 생애를 되짚어가면서 그 가르침을 익히도록 구성돼 있다.

## 전기·사상 조명 등 형식 다양

## 다큐소설 '붓다' 초심자에 적당

붓다의 전 생애를 전해주는 전기로 인도의 시인인 아슈바고샤(馬鳴)가 기록한 시문(詩文)형식의 『붓다차리타』를 들 수 있다. 『붓다차리타』는 산스크리트 본으로 절반이, 티베트 본과 한역본으로는 28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아슈바고샤 지음, 정태혁 옮김, 여시아문)는 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붓다와 그 가르침>(암베드카르 지음, 박희준·김기은 옮김)을 지은 암베드카르 박사는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을 지내기도 했으며, 1956년 10월 수백만의 불가촉천민들과 함께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회개혁가이다. 그는 이 책에서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인간에 대한 고찰과 '사회사상가'로서의 부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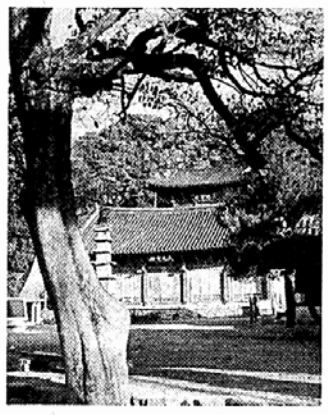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서 출판된 부처님 일대기는 많지만,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의외로 드물다. 그런 점에서 소설가 유홍종 씨가 낸 다큐멘터리 소설 <붓다>(해누리)는 초심자들을 위해 붓다의 고행과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에게 설법한 내용, 승단 생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소설처럼 읽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또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했던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박병덕 옮김, 민음사)는 '싯다르타'라는 출가 이전의 석가모니 이름을 빌려 구도자의 내면세계를 탐구한 책으로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될 만큼 쉬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 사찰건축 의미·매력 담아

##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김봉렬 글 / 관조 스님 사진





공기처럼 친숙한 것이어서 오히려 무심히 스치는 것들이 많다. 한국인에게 있어 '사찰'이라는 공간도 그렇다. 흔히 불자가 아니어도 한국의 절은 한국 문화의 보고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때론 외경의 눈으로 혹은 직업적 관심으로 사찰 건축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살핀 기록이 있다.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김봉렬 글·관조 스님 사진, 안그라픽스)이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책은 현대불교신문에 1999년부터 2년간 연재했던 '가람의 장면들' 50여편 가운데 29편을 골라 묶고, 여기에 관조 스님의 사진을 담은 것이다.

### 本紙 연재 '가람의 장면들' 중 29편 뽑아
### 종파에 따라 다양한 탑배치도 소개

지은이는 이 책에서 사찰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개별 건물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과 공간, 가당, 주위 자연 경관을 종합해 바라봐야 사찰 건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 쓴 청룡사 대웅전이나 전혀 다듬지 않은 모과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한 화엄사 구층암은 건축물이 곧 자연의 일부이고 확장이라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화엄사 같은 화엄종 사찰은 탑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금산사 같은 법상종 사찰은 탑이 없거나 외진 곳에 두는 등 종파에 따른 다양한 배치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무심히 지나치던 공간들이 담고 있는 건축·불교적 의미를 세밀히 담아내고 있다.

사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큼 사찰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곳곳에 묻어난다. 주변 경관을 생각지 않는 중창불사를 개탄하기도 하고, '어디가 좋더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자연을 훼손하는 세태를 꼬집기도 한다. 이처럼 책 곳곳에는 사찰 건물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했던 선인들의 정신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녹아 있다. 값 1만 5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박정근의 '고고학 박물관'



## 유물토대 사회·생활상 추리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잘 곳을 찾았을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제를 출발점으로 상상과 추리를 펼침으로써 이 땅에 살았던 인류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근의 고고학 박물관>(박정근 지음, 다른세상)의 지은이는 선사시대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물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상상력'임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발굴 현장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그 양도 적을 뿐더러 그 유물이 사용되던 당시 사회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공백은 '상상의 고고학'이 메워야 한다고 말한다. 12장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어느 한 남자의 일생'은 이러한 상상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고학 박물관>은 선사시대 유물이나 발굴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그 시대의 사회상, 생활상을 추리해 보는 책이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라 책을 다 읽고나도 궁금증을 모두 채워줄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 이 땅의 선사시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하는 방법을 새로이 알게 될 것이다. 값 9천원.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 미공 스님 모음



## 부처님말씀·한자 쉽게 배우게

한자를 배우는 일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힘들고 지겨운 일일 것이다.

부산 불암사 '어린이 한자교실'을 진행하는 미공 스님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말씀과 한자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어린이 한자교실>(현대북스)을 펴냈다. 작년 봄 학기부터 불암사 어린이 한자교실 교재로 쓰이던 '마음을 다스리는 글', '보왕삼매론',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백화도량 발원문' 등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쓴 본문을 읽어보고 옆 페이지에서 사경을 해볼 수 있게 꾸몄고 한자의 부수, 획수, 쓰는 순서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고사성어와 불교용어 풀이를 실어 어린이들이 본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읽고 쓰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값 3천 5백원.

선방이야기 토굴이야기 능인 스님



봉암사 공양주를 하던 능인 스님이 팥죽을 쑤었을 때의 일이다. 잠시 솥뚜껑을 닫아 놓은 사이 솥바닥에 팥죽이 눌어붙어 버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스님은 밀불을 빼고 주걱으로 살살 저어 일어나게 했다. 그날 아침 공양을 마친 스님들이 공양간을 지나가면 한 마디씩 하고 간다. "팥죽이 구수합디다" "팥누룽지 공양 잘했습니다"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능인 스님의 <선방이야기 토굴이야기>(운주사)는 여러 스님들이 모여 함께 정진하는 선방과 홀로 정진하는 공간인 토굴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선방에는 승납에 따라 차례를 정하는 질서가 있고 보름마다 계본을 독송하고 지대방에 둘러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한담이 있으며, 토방에는 솔바람에 낮잠을 자는 여유와 오솔길을 거니는 한가로움 그리고 긴 밤새우는 정진이 있다는 스님. 스님의 10여년 간의 수행담과 일상생활 이야기를 읽다보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 어울리는 수행자의 삶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 값 7천5백원.

## 토굴 정진 스님들 소소한 이야기

불교성전 홍법원



부처님의 말씀은 수많은 경전으로 엮여 전한다. 이 광범위한 경전들 중 법회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말씀을 뽑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홍법원이 5년간의 준비 끝에 펴낸 <불교성전>의 1부 '경전의 말씀'에는 서품과 신앙품, 교리강량품 등이 담겨있고 2부 '간추린 불교'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3부에는 천수경과 예불문, 반야심경 등의 독송경과 찬불가를 실었다. 값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 대 우 | 현암사 |
| 2 | 극락은 있다 | 관 정 | 붓다의 마을 |
| 3 | 회색고무신 | 윤청광 | 시공사 |
| 4 | 참선교육1 | 현 담 | 도서출판선 |
| 5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 원 택 | 김영사 |
| 6 | 빠띠삼비다막가역주 | 임승택역주 | 가산문고 |
| 7 | 근본불교 | 이중표 | 민족사 |
| 8 | 법구경 외 | 역경위원회 | 동국역경원 |
| 9 | 영가천도 | 우 룡 | 효 림 |
| 10 |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 전재성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도서 안내:(02)737-0695


周易의 神秘

육효학 핵심비결

송월스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전국 서점 판매중!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동양철학은 동방문화의 기틀이요, 사회선도의 지표이다. 육효학은 음과 양 二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응용하여 우리생활에 직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컴퓨(占術)로써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이는 물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는 보배 중 보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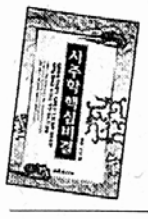
송월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집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 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하향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법무博士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법무博士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욱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택 저 / 정가 30,000원
14. 십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 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실물이 대백과
신국판 / 정천우 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개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홍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19. 한국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 / 양장본 / 박봉주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책

서옹큰스님 연의

차별없는 참사람 출판법회



임제스님 말씀 『차별없는 참사람』, 이 책을 보라.
이 책은 나의 혼이요 나의 생명이다.
인류여! 인간을 존중하라.
우리 인간은 사랑분별망식이 다 떨어진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 인간은 부처님 모습을 본래 갖춘 절대적 차별없는 참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분별하고 집착하지 말라. 분별과 집착은 고통과 지옥, 중생과 윤회에 들어가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된다.
**오리 인간은 합장예배를 받고 합장예배를 해야 할 사람들뿐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절대적 주체로서 지금 현재 깨달음을 회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해탈열반인 것이다. 임제스님 말씀 『차별없는 참사람』은 오늘의 인류에게 해와 달 천만 개 걸어 놓은 으뜸가는 지혜광명이라 하겠다.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책 1권을 법보시합니다.

법어 : 일산 임조 대선사
차별없는 참사람 운동본부/일산임조선사/차별없는 참사람 삼보제자불자회

출판기념법회 : 2546년 양력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차별없는 참사람 출판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09번지 전화 031)903-9121

# 이달 불교학술대회 '봇물'

## 제1회 춘계 천태학술대회, 신진학자 연구 지원

## 한국불교문화학회 창립, 정기 학술 세미나 등

## 4일 결집대회 정점 이룰듯

5월은 불교학 관련 학술 단체들에게도 축제의 달이다. 불교학자들이 그 동안 연구해 온 주제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숙성되는 계절에 맞춰 불교 학술 세미나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00여 불교학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인 불교학결집대회를 정점으로 새로 문을 여는 학술 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주제의 새로움과 함께 신진 학자들의 발표 공간이 넓어진다는 데 대한 기대감도 크다. 21~25일에는 전 세계 20여 나라 학자들도 서울을 찾는다. 정기 학술 대회와 월례 발표회도 불교학 발전의 밑거름이다.

요즘 불교학계의 관심은 온통 4~5일 동국대 중강당과 명진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 모아지고 있다. 한때 발표 신청자가 221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에서 한국 불교학계 최대의 행사다. 최종적으로 공동 주제 발표자 4명을 포함해 11개 분과에 200명이 발표한다. '결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 불교학계의 깊이와 폭 등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6월 창립하는 한국불교문화학회는 창립 총회에서 앞서 25일 학술 대회를 먼저 연다. 주제는 '한국 불교 문화학의 방향과 방법론'이다. 대표 발기인 사재동 교수(충남대)는 "그 동안 불교문화는 불교문학이나 미술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이제는 학자들 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일반에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총론격인 '불교문화학의 위상과 전망' '방향과 방법론' 발표에 이어 불교와 문학, 미술, 서지, 음악, 민속 등 각 분야별 발표가 뒤따른다.

내일의 불교학을 이끌어갈 신진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발표 마당을 주기 위한 학술 대회도 열린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가을에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와는 별도로 제1회 춘계 천태학술대회를 31일 연다. 박경준(동국대) 김일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익(위덕대) 교수를 제외한 15명 대부분이 강사급 학자들이다. '천태 염불 수행'과 자유 주제가 반반씩이다.

정기 학술 대회와 월례 발표회는 크게 주목받지는 않아도 불교학 발전의 밑거름이다. 학자들이 상시적으로 연구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멍석'이자 학계의 '상수원'이기 때문이다. 대각사상연구원은 2일 '백용성 스님과 한국 불교 역경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연다. 김영배 교수(동국대),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보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윤창화 민족사 대표, 최철환 동국역경원 부장이 발표한다. 중앙승가대학교는 31일 '근대 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을 주제로 제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종본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의 '인문학과 승가학' 기조 강연에 이어 역사학, 어문학, 종교학, 철학, 기술사학의 불교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간화선, 묵조선, 위파사나 등의 수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30일 봉축 세미나를 연다. 보조사상연구원은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을 주제로 25일 월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16일 '사이버 정체성과 불교적 인성론'을 주제로 3차 포럼을 연다.

21~25일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20여 개 나라의 학자 40여 명이 서울을 찾는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주최, 고려대장경연구소 협찬으로 열리는 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ECAI) 서울대회의 주제는 '세계문화유산 디지털 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이다. 개별적으로 구축한 문화유산 관련 DB를 어떻게 표준화해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주요 논의 사항이다.

◆불교학 관련 학술 세미나 일정(5월)

| 단 체 | 내 용 | 날 짜 | 장 소 | 연락처 |
|---|---|---|---|---|
| 대각사상연구원 | 백용성 스님과 한국불교 역경의 역사적 조명 | 2일 | 대각사 3층 법당 | (02)581-3139 |
| 한국불교 교육 · 학술 · 연구 단체협의회 | 한국불교학결집대회 | 4~5일 | 동국대 중강당 · 명진관 | (02)2260-3139 |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 사이버 정체성과 불교적 인성론 | 9일 | 문화원 교육실 | (02)736-6940 |
| 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ECAI) 서울대회 | 세계 문화유산 디지털 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 21~25일 | 서울대 박물관 | 016-226-8604 |
| 한국불교문화학회 | 창립 기념 학술회의 | 25일 | 계룡산 갑사 | (042)483-6214 |
| 보조사상연구원 |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 25일 | 동국대 역경 세미나실 | (02)733-5315 |
| 불교문화연구원 | 한국선 무엇이 문제인가 | 30일 | 동국대 역경 세미나실 | (02)2260-8507 |
| 천태불교문화연구원 | 제1회 춘계 학술대회 | 31일 | 권문사 | (02)3409-2212 |
| 중앙승가대학교 | 근대 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 | 31일 |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 | (031)980-7716 |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우리 고고학 사전 발간 학계 반세기 숙원 풀어"

## 국립문화재 연구소 조유전 소장

## 상고사학회와 공동 10년만에 '햇빛'

## 유적 · 탑 등 분야별 전문사전도 계획



"해방 이후 반세기만에야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고고학 사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고학계의 숙원이었던, 우리 손으로 씌어진 고고학 사전이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의 준비 끝에 최근 두 권짜리 <한국 고고학 사전>을 발간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사진) 소장은 "혼자서라도 평생을 걸고 싶었던 사업"이라며 "비로소 우리 고고학도 '사전' 조차 없는 학문의 빈곤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첫 고고학 사전 편찬 작업은 조 소장이 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장으로 있던 1992년 시작됐다.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라 생각하면서도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상고사학회와 공동으로 2년 동안 수록 용어를 선정했고, 7년 동안 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원고를 집필하고 수정,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11명의 원로학자가 감수에 참여했다. 200자 원고지 1만7천여 장 분량으로 한국 고고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발굴에 처음 뛰어든 게 1970년인데 1971년 무녕왕릉을 시작으로 황룡사터, 감은사터, 미륵사터 등을 팠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고고학이란 학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멋모르고 뛰어다니던 시절이었다. 갖다놓고 보는 사전이라야 일본 고고학 사전이 전부였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발에 따른 발굴이 늘어나면서 손 쓸 틈이 없었다."

사전은 용어와 유적 등이 모두 포함된 일종의 종합판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인 용어와 황룡사, 미륵사 등 중요 유적들에 대한 설명, 세계 각지의 중요 유적 및 고고학 이론 등을 1천669항목으로 설명했다.

조 소장은 "완벽하지는 않다. 이제 말뚝 하나를 박은 격으로 봐 달라"며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신라 유적 사전, 탑 사전, 고분 사전 등 '분야별 전문사전'을 발간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신라인 '나노기술' 가졌었다"

## 문석환 씨, 감은사지 출토 금동사리함 분석

## 음각 · 내각 · 도금 · 누금 고급기술 동원

## 폭 0.2㎜ 땜질 1300년 지나도 튼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금동사리함 사리병 받침(폭 13mm).

신라인들도 나노(Nano, 1나노미터는 1/10억m)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1996년 해체 당시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공에서 나온 금동사리함은 신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즉, 녹인 금속을 주물틀에 내는 음각, 선을 내는 내각, 금속을 입히는 도금, 압맹이 모양의 금명이를 금속 표면에 붙이는 누금(縷金) 기술 등이 빠짐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 금제풍탁이다. 풍탁이란 일종의 풍경(風磬)이다. 금동사리함에서는 이런 풍탁 5개가 수습됐는데, 두께가 겨우 0.1mm, 길이 5~7mm, 무게는 0.04g에 지나지 않는다. 시력이 좋은 사람도 눈으로는 형태를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더 놀라운 것은 0.3mm밖에 되지 않는 누금 알갱이를 폭 0.2mm로 땜한 것이 1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21~23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금속학회 주관으로 열린 '고대 금속 역사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함 제작 기술 고찰'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힌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문환석 씨는 "보존과학이라고 하면 부식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해 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물에 대한 재질 분석 등을 통해 당시의 제작 방법이나 원료, 원료 산지 추정 등 유물의 특징을 규명해 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또 사리함에서 출토된 청록색 유리에 대한 납 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 원료 산지가 한국 중남~남부 광산임도 밝혀냈다. 예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납 역시 경북지역 광산이 원산지다. 반면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기의 납 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원료 산지가 중국 요령성 일대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냈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8권) 개정 증보판이 10년만에 디지털 버전으로 출시됐다.

<엔사이 코리아(Ency.Korea)>(동방미디어)란 이름으로 책자 없이 CD롬 6장과 DVD 1장으로 나온 개정 증보판은 북한과 사회주의 관련 인물, 새로 등장한 제도나 사건, 최신 연구 성과 등 기존 6만여 항목에 새로 1만여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원고지 45만 장에 해당하는 문자 텍스트를 비롯해 사진 4만종, 동영상 500종, 음향 250종, 지도 · 도면 3500종 등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갖췄다.

여기에 포함된 순수 불교 분야 항목은 3200개다. 성철 스님, 광덕 스님, 송암 스님, 벽암 스님, 이기영 박사 등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 사이에 열반하거나 작고한 불교계 인물 50여 명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지역 60여 개 사찰과 동국역경원 등 15개 단체, 새로 지정된 불교 문화재 등 220 항목이 추가됐다.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 증보판 CD롬 6장에 담아

정보화 시대에 맞춰 디지털 버전으로 집대성한 이 사전은 '활용성'에 가장 초점을 뒀다. 종이 사전의 경우 정확한 검색어를 알아야 찾아볼 수 있다는 단점을 다양한 검색 기능으로 극복했다. 제목(항목)으로 찾기, 본문 내용에서 찾기, 유형으로 찾기 등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지정문화재, 우리 고장의 문화, 백두대간 따라가기 등의 기획 메뉴도 디지털 버전이기에 가능한 서비스다.

## 불지의 생각

### 석굴암 모형관




최근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72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28명(39%)은 이에 대해

### 토함산 이외 지역에 건립 40%

건립은 하되 토함산 이외 지역에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25명(35%)은 현재 계획대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19명(26%)은 어느 곳에도 건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만약 석굴암 모형관이 지어진다면 탐방해보겠느냐는 질문에는 52명(72%)이 한다, 20명(28%)이 안한다고 응답했다.

임연태 기자


# 사찰 납골탑. 이제 무한21이 함께 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는 불자들입니다.
◇ 스님과 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스님과 불자를 믿음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전통 불교미술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8각형 납골탑

무한21 영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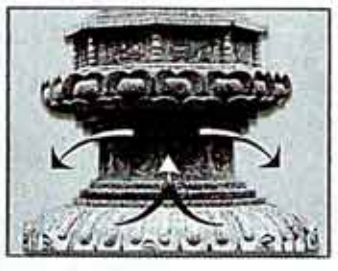
1. 결로 방지 및 통풍에 역점을 두어 제작.
2. 최상의 품질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
3. 사찰 신도관리 프로그램 무료지원.
4.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관리.
5. 납골탑 분양관련 제반업무 지원.



편리한 개폐식 봉분실



탑신부 내부의 중앙 유품실



결로방지 및 신속한 통풍구조



■교장례 문화■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동영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 '나' 있기에 상대도 부처도 있는 것

## 공체의 몸 속에서 뛰어나서

**문** 제가 마음공부를 제대로 실천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선법가를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선법가의 가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발전의 길]에서 '공체의 몸 속에서 뛰어나서'란 가사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강 짐작으로 알 뿐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싶습니다.

**답** 사람이 지수화풍에서 와서 지수화풍으로 살다가 죽으면 몸뚱이는 없어지고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지만 영원한 자기의 근본은 남아서 다시금 정자 난자를 빌어서 생산이 됩니다. 그 사람의 차원이 7차원까지 이르러야만이 이 몸은 가만 놔두고라도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져서, 말하자면 블랙홀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물질세계의 한계도 해결해 낼 수 있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길게 살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진리가 길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그만큼 이르지를 못했는데, 벌써 물질은 다 떨어지고, 아니 에너지라고 합시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로 집이 무너지고 살 수 없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만이 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선반 위에 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키를 키워야 그걸 꺼내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걸상이라도 갖다 놓고 올라서서 꺼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을 높여야 걸상을 놓지 않고 그대로 꺼내서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질은 육안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물건을 놓고 올라서서 꺼내지만, 이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높아져야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깊고 광대하고 무변합니다. 마음이라는 근본을 없애고서는 절대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을 확장시킬 수도 없고, 방대한 능력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내 몸 속에서 벗어나야,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야 어디든지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화해서 응신이 될 수 있고, 군사로 화해서 대비대책을 할 수도 있고, 바다나 산, 들, 지구의 어디든,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디든 높다 얕다 할 것도 없고, 길다 짧다 할 것도 없고, 크다 작다 할 것도 없고, 멀다 가깝다할 것도 없고, 그대로 찰나찰나 용무를 장하게 할 수 있고 평등공법을 장하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용무'라고 말을 하면 영어나 독일말로 번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 들을까봐 될 수 있으면 알 수 있게 하려고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평등공법' 이러면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벗어나야 전체 어디든 내 도량 아닌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닌 데가 없고,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흙이나 돌도 다 쓸모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씩 체험하면서 차원을 높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흥겨웁게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심부름하는 입장이고, 또 심부름하면서 넓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인이 길에 나앉으라면 나앉고, 들어오라면 들어오면 되지 하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게 없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길게 살다 죽어도 모두 자기 주인이 할 탓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닦아 나갈 수 있고, 차원이 높아질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됨으로써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극난한 문제가 생겨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대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일체를 놓아야 하는지

**문** 전생에 어떤 선근이 있어서인지 이제나마 스님이 계신 한마음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유인의 길'이란 책을 접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던 불법이었는데 바로 제가 애타게 바라던 것이 그 속에 쉽게 이해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놓고 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듯도 한데 생활의 자질구레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항상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거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공부가 잘 안 되네요.

> "나를 발견하기 위해
>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
> 둘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
>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답**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놓는 것입니다. '나를 형성시켰고, 수 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진화시킨, 그러니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거죠.

그렇게 맡겨 놓는다면 바로 자기 앉아 있는 도량에 자부처는 있는 것이죠. 자부처부터 알아야 바로 마음속의 모든 의식 자체 생명들이 같이 화합해 주고, 내 국토부터 다룰 줄 알아야 바로 보살로 화해서 네 국토, 내 국토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화두를 또 잡고 끊어질까봐 애를 쓰고들 그러죠. 일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찰나찰나 화해 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일체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라는 존재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집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지껏 살면서 고정되게 보신 것이 있습니까? 들은 것이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같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거죠.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니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으니 부쳐는 없는 게 부쳐라고 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하며 내가 익힌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과, 즉 사생과 더불어 우주대천세계를, 내 몸뚱이 집과 대천세계의 집이 둘이 아닌 걸 알게 되는 도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일차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말입니다.

둘째는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믿고 맡겨 놔라 하는 겁니다.

셋째, 거기서만이 아프면 의사가 돼 줄 거고, 즉 약사불이 된다 이거죠.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줄 겁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한마음 안에서, 내 몸뚱이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생사에 뛰어들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들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한군데서 들고나는 것이니 그 자리를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걸 알면서도 생산될 걱정까지 하면서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종일 누가 일을 하게 만들었던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했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듯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부처가 있고 모두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시자 부리듯이 부렸지, 누가 부렸나 이겁니다. 그러니 그냥 순응해서 따라갈 뿐입니다. 모든 걸 거기에다 맡기고 말입니다.

## 여일하게 수행하려면…

**문** 저는 이 뭣고 화두를 겨울방학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스님께 받아 몇 달째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도 화두를 끊어뜨렸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근기가 부족하다는 자책으로 하루를 마치곤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수행을 여일하게 이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앉아야 좌선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답**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어찌 거기에다가 또 화두를 받아 가지고 바로 먹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 전자에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천체 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지리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것을 알음알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남이 밥 한 그릇 준 것을 들고 '이 뭣고?'하고 가지고 있는 다면 자기도 공했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끊어질까봐 애를 쓰느냐는 겁니다. 또 좌선을 하되 내안으로 관한다면 화두가 같이 들리지마는,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찰나에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혹성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는데 하루 여덟 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앉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좌선할 때에 화두를 들고 관하라니까 그것이 끊어질까봐 애를 쓰고 '그게 뭣고?'하고 겉으로 도는 게 관하는 건 줄 아는데, 새 물이 들어오면 헌 물은 나가고 돌아가는 이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쓴다면 썩은 물을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선지식들이 '위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보지도 말고, 코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 바로 중도에서 중용으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보라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남의 소리나 듣는데, 석가세존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부처님의 마음을 뚫어 보려면 내 마음부터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들이 달라요. 하루종일 앉았다가도 저녁에 일어났을 때는 선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일하지 않고 끊어졌네,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러니 언제 공부를 하느냐.'고 한탄들을 하거든요. 그래 나는 그때 빙긋이 웃었죠. 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는데, 즉 말하자면 둥근 톱니가 위 아래 마주쳐서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만 하다가 이게 잘못됐느니 저게 잘못됐느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있다면 몸뚱이 떨어지면 그 또한 떨어지는데, 지금 의식 가지고 몸뚱이가 떨어져서 간다면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아무 데나 들어서 아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모습 벗기가 상당히 어려우니라." 이렇게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이 세상에 생긴 게 그대로 화두고, 앉으나 서나 깨나, 일 하나 똥을 누나, 잠을 자나 참선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이 화두를 타파해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맛보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 포괄적인 하나인지요?

**문** 제가 팔을 들려고 마음을 먹고 팔을 들면 팔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참고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팔이 움직이는 것은 팔의 신경과 근육이 작용하고, 이들은 뇌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뇌의 작용은 '나'가 마음을 먹으면 작용이 되는데, 나와 뇌 사이에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이 둘을 연결시켜 주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알 수 없는 공간을 불성 혹은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내려놓고 나면 응답하듯이 아랫배가 시원해져요. 또 애써 집중하면 머리가 담배를 끊었을 때처럼 시원한 바람이 한바탕 불어 나가요. 또 '나'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려고 마음으로 이리저리 찾아다녀 보면 찾아다닐수록 점점 비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나'는 있기는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또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 생각에 이제는 찾지는 않고 그곳에 대고 '나의 본래모습을 보게 해 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 알 수 없는 공간하고, 이 몸하고, 나하고 다 합쳐서, 또는 그 알 수 없는 공간을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알고 관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요?

**답** 이리저리 많이도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첫째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두 번 째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의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성의 끈에, 인과의 끈에 의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는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중심을 꿰어야만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말입니다. 차도 중심이 있으니까 바퀴가 굴러가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없으면 목석이죠.

그런데 또 가는 것만 알았지 오는 거를 모르니까, 오는 거와 가는 거를 한데 합류화시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은 중심을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입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건 내면에서도 한마음이요, 내면세계의 모든 세포 하나 하나의 생명들도 '나' 아님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하고 세워야 그 끈을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잡고 실험할 수 있고 그걸 잡고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수련하는 것은 맡겨 놓는 작업입니다. 숙명통이 컴퓨터라면 거기에 입력이 돼서 악업 선업이 자꾸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되 맡겨 놓아야만이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이래야만이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져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은 움죽거리지 않고 능력을 배출해낼 수 있는 나의 근본 자체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얼른 쉽게 말하자면 부 선장이죠. 부 선장이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선장을 쥐고 아래로는 중생의 팔을 쥐고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선장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맷돌 심봉을 굴리는데, 그 심봉이 구르지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서 맷돌을 돌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저것 분별하고, 사량으로 생각해서 아는 거는 진짜로 아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를 아예 빼 버리고 마음으로 죽는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입시 때문에 걱정돼

**문** 스님 말씀을 듣고 많은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고3 수험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승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진실되게 아무런 원망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믿음 하나로 의지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욕심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아이 입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에 어떻게 관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18면으로 계속

# 자기 마음 다스리는 능력 길러야

☞ 17면에서 계속

답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마음도 진짜 자기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이 몸뚱이는 보이는 물질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로 믿는다면 뭐든 잘못되는 게 보이면 한데 모아서 똘똘 공 하나로 뭉쳐서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는 그냥 딱 맡기면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발걸음이 떼어 놔질 수 있는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제삼자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내가 반드시 사야 될 물건을 집었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야 그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모자라는 그릇을 채워라' 하고 부처님 전에 정성을 들여 주기도 하고 자꾸 관해 주고,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잘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 절에다가 이름만 올려놓고,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는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뜻도 또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 몸과 둘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라면 해 달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을 먼저 알아야 내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네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내 마음이 또 전깃줄이라면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올 뿐이지 거기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게 붙지 않느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네 마음을 네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라. 일체가 다 공해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일체가 너 아님이 없느니라. 일체가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그런데 누구한테다 해 달라고 하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 도량이 있고, 부처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 해 달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을 위해 정성 들이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애고가 있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기도만 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자성이 다 있습니다. 자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물질계 50%인 이 세상에 정신계 50%를 알아야 물질계로 나오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거나 학교에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벌써 나는 시험을 봐야 하고 또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한 설계도가 나와야 합니다. 설계도만 나오면 집이 올라갑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마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어디서 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도 마음 내는 거지만 그거는 물 한 모금 쪽박에 얻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복을 비는 건데, 복을 좀 얻어 쓸 수야 있겠지만 본래의 것을 타개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명석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고, 항상 얻어먹는 노예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는 자식들한테도 관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갖자 자기만이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켤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대신 누가 봐 주는 겁니까?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내 시험을 보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어리석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오죽 잘 해 주랴 하고 해달라고 의존하지 말고 한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적든 많든 정성을 들일 때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큰스님이나 작은 스님이나 또는 자기나 자기 자식들이나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한데 합친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주인공, 너만이 꼭 이룰 수가 있고, 침착하게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건 너 밖에 없어.' 하고 아주 지극하게 하세요. 자기 일이니깐 자기가 얼마나 침착하게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이 하게 되겠죠. 그게 자기 일이니까 침착하게 하려고 하지 벌써 한 다리 건너가면 침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본인들이 하란 얘기입니다. 자식들은 물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반드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관하는 도리를 일러주시고요. 미리미리 익혀둬야 꼭 필요할 때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만 하지말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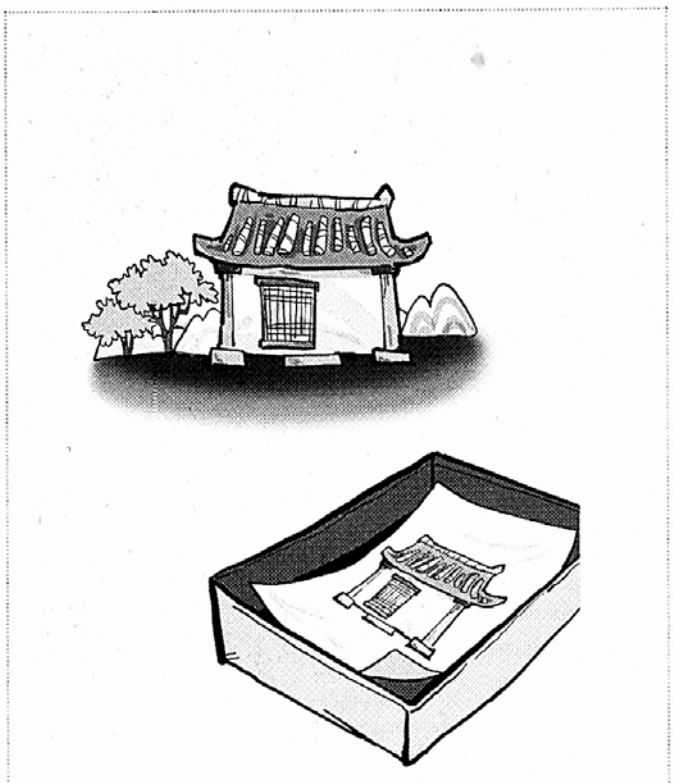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내 마음속에서 도량 · 부처 · 법이…

### 꿈과 현실이 다른 이유

문 주인공을 관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자면서도 주인공을 관하는 공부를 하는데, 처음엔 꿈으로 생각했었지만 꿈과는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꿈에서도 현실처럼 주인공을 찾고 공부하는 것이 현재의식의 반영이라면 깨어 있을 때와 잠이 들었을 때 저의 의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우리가 죽을 때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일임하고 숨이 꼴딱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진짜로 다 놓을 수 있다면 과거가 현실로 찰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서 드러누워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밥을 떠 먹이고 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죽은 다음엔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가나 하구선 절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하니깐 지금 빨리 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식구들도 살겠다는 거죠.

> 진짜로 믿는다면
> 진짜로 믿어서
> 내가 없다면,
> 전부 내가 없다면
> 깨끗한 물로 변해

근데 그것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한테 문서가 지어진 거를 저승가야 없앨 수 있는데, 그런데 저승도 한 발짝이요, 극락도 한 발자국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리만리 아예 까마득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해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고,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이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꼭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쪽지 하나를 얻어서 그거를 없애야만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누가 저승엘 갑니까? 천상 심부름하는 내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나도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내가 있는 게 없이 있기 때문에 화하려면 무지하게 화하고, 없어지려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쪽지를, 둘이 아닌 까닭에 쪽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쪽지를 받아서 없애 버리니까 그때 애가 갔습니다. 뼈도 없이 누워서 살았는데 가서 다시 재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듯이 그 모든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의 문제로 돌아와야만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과거 일이 돌아와도, 앞에 닥쳐와도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믿었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믿었어야 꿈도 화하지만 모습도 화해지고 둘 아니게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안되는 일을 가지고 오실 때에 답답한 이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그거를 시작할 때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거죽만 보고 했기 때문에,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되죠. 결국은 얼마 안 가면 거론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은 지극하게 관해서 그거를 없애야 될 텐데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서 내가 없다면, 개개인이 전부 내가 없다면 다 말갛게 깨끗한 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꿈도 생시요, 생시도 꿈이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그냥 허탕지탕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면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시에 일체를 나의 근본과 둘 아니게 보아야 꿈 속에서도 둘 아니게 보게 되고, 앉아서 천리만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뭠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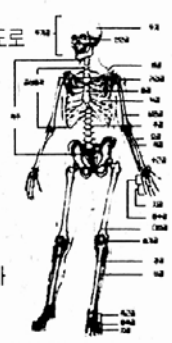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악간의 활동이나 게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빌도로 상담바립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 骨仁製藥(株)

코스모피아
빛의 수련
Soul of Light
인류의 영적인 진화 · 발전 그리고 깨달음!
김지호 지음 / 신국판 / 9,000원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련서

무수한 차원과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를, 이제 우리는 단순한 꿈과 이상이 아닌 더 구체적인 정보적 차원에서 우주 존재의 실상에 다가간다.

정보의 바다, 정보의 구성체인 우주는 불가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표현하고 있듯이 고정불변의 정지된 상이 없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우주의 변화는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축기를 지양하고 사랑과 자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다 보다 더 완전해지려는 고차원적인 우주적 질서를 따라 무한한 진화와 발전을 한다.

소우주라 일컬어지는 인간도 이러한 고차원적인 우주적 질서와 하나되어 진화 · 발전하려는, 보다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상향적 의지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자아탐구 및 우주의 존재의 법칙 등을 궁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수행하고, 우주의 실체를 알고 자신의 신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 설명하였다.

삼각형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2608호 ☎ 755-9314~5 (영업부) 318-4011 (출판기획부)

정통 비법 공개 수강생 모집
초 보 자 환 영

1. 명리, 육임, 명리학(사주학)
일반적으로 많은 역학인들이 활용연구하는 학문으로 한개인의 특성과 운명 및 과거, 현재, 미래 등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학문으로 옛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온 모든 역학의 기본부분에 해당되므로 더차원 높은 기문, 육임 등을 연구하려면 명리학 부터 시작해야 정석일 것이다.

2. 육임학(대육임) 명리 중급 이상
역학중에서 가장영험하고 적중률이 우수한 학문으로 문복자 생년,월,일, 시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사람의 모든것을 알수있는 학문이므로 영험하기로 정평이 있고 그러나 워낙,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이므로 웬만한 결심과 노력으로 덤벼들었다가 포기하는것이 부지기수여 하도 기묘해 인간이 도저히 고안낼수없는 신이 내려준 신의 학문이라고 한다.
육임을 정통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봉였던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박겉할식으로 공부하여 앵무새로 전략한다면 진정한 육임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학문이든지 정통하여 경지에 도달할때에 진정한 가치를 맛볼것이다. 육임학에 뜻을둔 분께 육임의 본질과 진수를 과감하게 드려내어 정통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
최소의 시간과 경비로 일대약신 기회 드리고 있는 중 이오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된실력자 배출을 지향하는 豫知院
02)393-0992 / 018-275-0992
E-mail : sangsang333@hanet.net

우스이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명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올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희준)는 많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튠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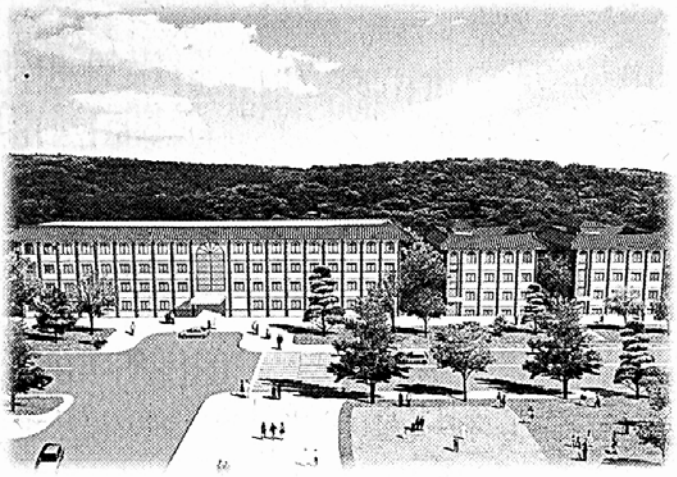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영법, 12치료점 지료법.
급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치료법, 동식물 지료법.
악물 음식물등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식 레이키 특별참나(본성 자성 불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완전레이키요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제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를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 노인을 위한 아름다운집 평생기도처 개원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 정진으로 마음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 요양원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건물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복지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입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광원 조감도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70세이상
부부 또는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은
모든불자(남녀불문)
노환스님. 개인방 거처하시고 싶으신분
◆ 정 원 : 약 30명
◆ 부대시설 : 상담실, 진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미용실, 법당, 식당, 일광욕실,
정원, 산책로등
◆ 연 락 처 : 전화 031) 759-5310, 5320
FAX 031) 759-4209
E-mail : jkwkey@kornet.net

개원예정일 2002년 4월 (일자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을 자광원" (노인요양시설)



월간「불광」·목아불교박물관·봉은사 주최

# 제8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이 좋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 마음속 부처님도 그려보고 재미난 놀이마당에 참가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축제의 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 시 : 2002년 5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서울 봉은사 (02-511-6070)
대 상 : 전국의 어린이 (만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1~6학년)
참가비 :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4,000원 작품 우편 응모시 작품과 5,000원 우표 동봉)
준비물 : 도시락, 화판, 참가부문 미술도구(크레파스, 물감, 조각도) 모자 착용, 돗자리
특 전 : 참가자 전원 기념T셔츠 등 선물증정

참가부문 · 크레파스화 부문-유치원·초등 1,2학년 · 수채화 부문-초등 3,4학년 · 판화 부문-초등 5,6학년
참가방법 · 하나 - 5월 5일 당일 행사 참가 · 둘 - 작품(우편) 공모 참가
시 상 · 우뚝으뜸상 (1명, 상장 및 상품) | 각 학년별 으뜸상 (6명, 상장 및 부상)
· 각 학년별 버금상 (6명, 상장 및 부상) | 유치부 으뜸상 (1명, 상장 및 부상)
· 유치부 버금상 (1명, 상장 및 부상) | 보람상 (600명, 상장 및 상품) | 한마음상 (3곳, 상장 및 상품)

그림 그리기와 함께 펼쳐지는 올해의 놀이마당 - 월드컵 숫 골인!
· 축구공 씨름 · 숫 골인! · 축구공을 불여라
· 월드컵 기네스 · 목탁을 쳐보자 · 반야심경을 외워라

참가신청 및 문의
· 월간「불광」 02) 420-3200 · 목아불교박물관 031) 885-9952~4
· 봉은사 02) 511-6070 · 선재이벤트 0502) 317-2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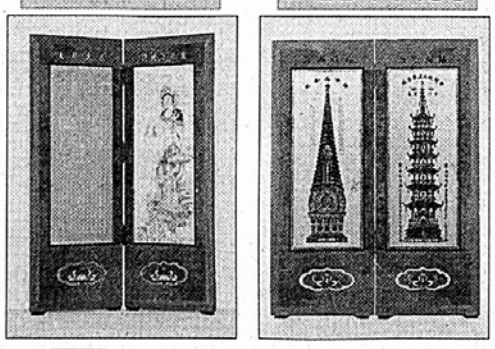
후원: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방송, 학교법인 동국학원, 불광사 불광법회, (재)보덕학회 협찬: 롯데월드, 롯데칠성음료(주), 질경이 우리옷(주), 생활한복 짱아, (주)카이젤, 가위바위보가방, 코엑스 아쿠아리움,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불교」, 월간「금강」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 : 153cm 폭 : 120cm 무게 : 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 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

**수산스님의 기체험,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매일 오후 7시~9시 수련중
회원모집(지방에 계신분 주 1회 강좌)
매주 금·토 역학강좌 회원모집
www.bulljichon.com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께 재산을 보시합니다**
011)9923-894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급히 모십니다**
▷ 청강사
055)932-5706

제의식, 분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
은 **연락**바랍니다
051) 462-7374
018) 523-73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031)865-4045

**조용한 곳에서 공부 기도할 스님 모십니다**
▷ 금강선원
011)438-0138
041)951-4197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02)2234-3310
관 음 사

**비구니스님 수행하실 행자 평생을 같이 사실 할머니 모십니다**
043)642-968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 원당
016)9353-9220

**◇ 판매합니다 ◇**
-염 주-
직거래를 통하여 각종 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011)610-4879
061)337-4879
061)337-6340

**신심이 돈독한 기도스님과 행자님 모십니다**
▷ 대구 근교 있는 공기맑고 숲이있는 정법도량입니다.
011)9317-90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 미만
031)885-0168
혜안 정토사 정안스님

**사찰운영하실분**
▷ 경남 하동
011)839-41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원합니다 (정릉)
02)917-3363

**녹 차 판 매**
※ 지리산 화개 야생수제차
※ 사찰 보시 가격 공급
**차만들기 교실**
■ 차만들기 실습 견학
■ 차를 만들어 갈 수 있음
Tel : 055)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하동 쌍계사 근처)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명
대구인근사찰 임
018)780-388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 고양
019)211-8533

**◇ 붓다쇼핑 ◇**
BuddhaShopping.com
실크 마하만다라 족자 십만원
유명작가 진품달마도가 만원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 불교용품 도소매 및 쇼핑몰
※ 불교정보 및 도예 광고 방송
http://www.budda.ne.kr
연락처 00505)882-3456
붓 다 넷 코 리 아

**천년의 고찰 용진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호동에 위치함
(영)로 원인모를 병치레를 하신 분들은 꼭 찾아 주시면 영험을 봅니다)
062)952-3016
011)609-3016

**모십니다**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아름다운 무등암에서는 기도스님, 행자, 사찰 운영하실 화주보살 및 공양주를 모십니다.
061)772-4109
061)772-5401
011)9302-161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안 내**
본 부산 보광선원에서는 임오년 하안거 거사님 및 보살님 방부를 받으며 본 선원에서 절일 도우며 평생 수행정진 할 거사님, 보살님도 받습니다.
문의는 051)973-7158로 바랍니다
**보 광 선 원**
조실 남산 정일 큰스님
주지 황운 스님
신도회 일동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 많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에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 10폭 날개 병풍
* 폭 : 10자 * 높이 : 5자

---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부 지 : 790평 / 가 액 : 6억
- 위치 : 대구 / 법 당 : 10평 / 요 사 : 25평 / 부지 : 220평 / 가 액 : 1억 3천
- 위치 : 부산 / 법 당 : 20평 / 요 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 액 : 3억 5천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옴누리 선원**
-불교 기초 교리 강좌-
■ 불교의 핵심 강의
■ 명쾌하고 쉬운 설명
■ 재미있는 교리 학습
※ 여러분의 삶이 밝고 투명하게 바뀝니다
▷ 개강 : 5월 13일(월)
문의 032)542-8300

**맑은 영혼 깨끗한 마음 반야 다원과 함께 하실 분을 구합니다.**
▷ 40세 미만의 용모단정하신 분
과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
061)783-0096
지리산 화엄사 반야다원

49재 천도재 시다림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무보시 상주한 사찰을 찾습니다)
사주 명리학도 연구합니다
053)751-1176
016)587-450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90평 (방 2개) 사무실 요사채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 평수 : 교통편리(3호선 오리역부근)
- 법당 100평, 방 4개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주차장 50대 가능, 시설완비
- 기액 : 보증금 5000만원 월 200만원

017)707-5552

**암자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대구 포항길 우회 도로에서 900m 영천시에서 가까움
- 대지 : 110평, 건평, 68평 2층
- 가액 : 1억 6천

011)529-3996
야간 054)337-3996

---

**사찰 안내**
- 위치 : 삼천포 입구
- 면적 : 460평
- 법당 12평 요사 30평 주지실 (이담하고 깨끗한 암자)
- 양도가 : 2억 2천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 면적 : 1,400평
- 법당 30평 용황당 산신각 (풍수 만점, 조용한 절)
- 양도가 : 4억 8천

**사찰(터)안내**
- 위치 : 계곡 좋은 곳
- 조건 : 허가가능한 곳 차량진입 가능
- 면적 : 제한없음
- 인수가 : 시세대로

영남지방 전문 사찰 컨설팅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 가액절충

016)635-4569

**암자 운영하실 분**
- 월세 1년 2백 오십만원
- 임법당 신축
- 경북 구미 대구 김천 왜간 중간지점
- 약목면 소재지

017)813-9126
(비구니스님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양정
- 평수 : 25평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 15만원
- 역사가 된 포교당, 위치 최고 적지 보살, 처사들도 가능함 4월 초파일 준비 완료

011)550-4425
011)553-1006

**사찰 안내**
- 부산 양정동 황령산 자락 산수가 수려하고 경내에 소나무가 수려함
- 평수 : 500평
- 전세 3,500만원 월세 없음
- 요사채방 : 4개 대웅전 산신각 용왕전 천황당

055)385-0066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오천평, 삼천평등
- 용도 : 사찰, 남골당,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경북 포항시 근교(장기면)
- 특징 : 매봉산하 봉황자리 봉황과 맹호 출립형 사계절 맑은 계곡과 좋은 경관
- 용도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 녹지
- 가액 : 흥당 5만~10만(답사 후 절충가능)

054)283-7551~2
011)854-4675

---

**권 대창불교건축**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본사 02)595-1573
공장 054)781-4989
HP 016)768-4324 / 011)246-2210

**권 대 창 목 재**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갑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40평 방3개 사무실 산신각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반성면
- 대지 : 204평 • 밭 : 110평
- 건물 : 법당, 용왕, 산신, 요사 2채
- 가액 : 1억 3천

011-9526-9693

**탈 종 공 고**
- 주 소 : 경남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207-1
- 사찰명 : 서원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불기 2546년 4월 20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

포교당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 7호선 광명역)
- 법당 : 20평
- 요사 : 방 1개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90평
- 법당 : 45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3억 3천
- ※ 뒤는 산세 좋은 도심 사찰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시내 중심가
- 건물 : 2층 건물 중 2층 (70평, 방2 주방 1) 시설완벽, 포교당 최적지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22-9622

**사찰 안내**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 6천 5백만원(융자있음)
- ※ 지하수 뒷편 공원, 교통편리, 비구니 스님 연락 부탁

016)762-26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외관 부근
- 부지 : 약 1400평
- 법당 : 30평 산신각 4평 용왕당 : 10평 요사채 : 약 6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전세 1억 5천도 가능)

011)9851-0562
(주인직접)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서창근방

사찰 입구 경관이 소나무로 우거지고 금락전 지장전 삼성각 문수전 용왕전이 같이있고 요사채 약 6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산사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2천 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덕천 전철역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건물 : 60평(3층) 방 4개 삼존불, 지장보살님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 산신탱화
- 시설비 : 2천 5백만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급)안내**
- 위치 : 안성 칠장사 주변 금락동
- 대지 : 420평 • 법당 : 30평
- 산신각 : 3평
- 가액 : 1억 4천

양로원 94평 중 1층 공사중
011)345-3323

**농가(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 3리 부근
- 특징 : 넓은 꽃밭, 텃밭 (300~400평)
- 청정지하수겸 개울, 전원 생활용 별장 가능, 차 마당 진입
- 스님 수행 토굴 가능 (50호 마을 외딴집)
- 가액 : 2천만원 주인직접 상담

033)378-5022
011)9845-502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영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법당 : 15평
- 삼성각 : 4평(조립식)
- 요사채 : 35평(현대식)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04-2558
043)832-4785

---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화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맘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심이브일러) 2동 벽돌, 2평 방4, 거실, 주방, 욕실(심이브일러) 3동 육각정
- 특징 : 신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진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이당까지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절반가격)

011)9374-0126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80번종점
- 평수 : 45평
- 가격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 일천만원(최상급)

016)296-5833
017)551-14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시장입구
- 보증금 : 일백만원 월세 : 27만원 시설비 있음
- 용도 : 철학관 또는 조금한 포교당

0505)242-2404
053)625-1263
스님과 같이 토굴에서 천일수행할 도방스님을 모십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영덕 영해 중간 지점
- 대지 : 400평 중 250평만 이전 됨
- 건물 : 대웅전 20평 요사채 40평 종무소 7평
- 교통편리 앞 도로 뒤강
- 가액 : 7000만원

054)733-7881
016)540-0027

**신설 사찰(급)전세안내**
-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447 • 평수 : 600평
- 시설 : 대웅전 1동, 요사채 방 6개 주방 대형 1개, 욕실, 화장실
- 기(氣) 찜질방(방비석) 40명 수용
- 가액 : 2,000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계약기간 5~10년까지)
- 시설비 : 5,900만원(모든 비품 포함) (협장 답사 후 가액 절충)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 도로로 정문 5분거리 주차장 완비, 대덕산 명당자리
- ※ 주지스님 건강문제 때문에 급 전세

미 륵 사
053)793-5808/017)588-1656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이선옥의
## 선무 건강법 ㉟

### • 금강구인 익히기 •



금강구인은 양손바닥을 펼쳐 손가락을 엇갈리게 교차하는 형태의 수인이다.

1. 금강구인 수인을 머리위에서 취하고, 발을 어깨넓이만큼 벌리고 선다.
2. 이때 항문을 조이고 단전 수축하면서 '이' 소리를 내면서 가슴쪽으로 서서히 내린다.



양 손바닥을 펼쳐
손가락 엇갈리게 교차

3. '뭐' 소리를 내며 단전이 완하면서 손을 머리위로 다시 올리면서 발꿈치를 들고 선다.
4. '꼬' 소리를 내면서 발꿈치를 내리며 손을 가슴 앞으로 서서히 내린다.
5. 무릎을 약간 굽히면서 팔꿈치를 펴면서 손을 가슴 앞으로 쭉 내민다. 단전을 이완하며 손을 단전으로 가져온다.



# 5월 지역축제 '활짝'

*차(茶), 꽃(花), 도자기, 문속문화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지역축제가 5월 전국에서 잇달아 열린다. 가족들과 함께 배낭을 꾸려 꽃물결과 다향(茶香) 은은한 축제 현장으로 달려가 봄 향기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또 축제가 열리는 인근에는 사찰과 관광지, 산 등 명승지가 즐비하므로 계획만 잘 세우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가볼만한 5월 지역축제

| 축제명 | 일정 | 장소 | 내용 |
|---|---|---|---|
| 하동야생차축제 | 24일~27일 | 경남 하동쌍계사 차 시배지 | 차 여인 선발, 다례식 등 |
| 소백산 철쭉제 | 24일~26일 | 충북 단양 소백산 국립공원 | 철쭉여왕선발, 댄스대회 등 |
| 보성다향제 | 5일~12일 | 전남 보성 차밭일대 | 다신제, 차잎따기 등 |
| 주왕산수달래제 | 4일~5일 | 경북 청송 주왕산 | 등반대회, 환경사진전시 등 |
| 남원춘향제 | 4일~9일 | 전북 남원 광한루 일대 | 춘향불기, 세계 예술 축제 등 |
| 낙안민속문화축제 | 3일~5일 | 전남 낙안읍성민속마을 | 초대세우기, 전통혼례식, 성곽밟기 등 |
| 전곡구석기문화축제 | 4일~5일 | 경기도 전곡 선사유적지 | 원시인 카퍼레이드, 사물놀이 등 |
| 장성홍길동축제 | 3일~5일 | 전남 장성군 | 홍길동 추모제, 갈놀이 등 |
| 죽서문화제 | 돌짜주 |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 일대 | 제등행렬, 민속놀이 등 |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야생 차밭에서 차잎을 따고 있다.

### ⊙전남 보성 다향제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보성은 국내 최대의 차 생산지이다. 보성 다향제는 지역 명물인 차를 주제로 한 축제로, 갓 피어난 차 잎을 따고 차를 음미하며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5일부터 12일까지 전남 보성군 체육공원과 보성차밭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에 가면 다신제를 비롯해 차잎 따기, 차만들기, 가족차 만들기 체험, 차 아가씨 선발, 녹차장터 운영, 차밭체험, 차문화 강좌, 다례시연, 녹차시음, 다향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25

➪교통편

◇버 스: 보성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율포해수욕장 방향 버스를 탄다.

◇자가용: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보성-18번 국도-율포해수욕장 방향 8㎞-활성산 봇재-보성 차밭

###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하동 차문화축제는 차시배지가 있는 쌍계사 일대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축제기간에는 차여인 선발대회, 차시배지 다례식, 고려 · 신라차 시범 및 공연, 올해의 명차 선정, 외국인 전통 혼례식 시연, 야생차 국제 학술 세미나, 관광객 차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문의)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5)880-2545

➪교통편

◇버 스: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쌍계사 행 버스로 갈아탄다.

◇자가용: 호남고속도로-전주 IC-17번 국도-남원-19번 국도-연곡사 입구-1023번 지방도-쌍계사

### ⊙낙안 민속문화축제

우리네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낙안 읍성 민속마을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낙안 민속 문화 축제는 이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우리 전통의 멋과 맛이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이다. 주요행사로는 군수부임 행차, 솟대 세우기, 전통혼례식, 큰줄다리기, 성곽밟기, 길쌈시연 등이 있다. (문의)낙안민속문화축제보존위원회 (061)749-3347

➪교통편

◇버 스 :순천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낙안 읍성마을 행으로 갈아탄다.

◇자가용: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순천- 818번 국도-삼천교-낙안 읍성마을

## 茶 만들기 · 철쭉길 걷기 등 주제 다양
## 인근 사찰 · 관광지 탐방 계획해 볼만

### ⊙남원 춘향제

예로부터 춘향의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예술소재로 다루어져 왔던 만큼, 4일부터 9일까지 광한루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기간에는 창무극 춘향전, 판소리 춘향가 완창무대, 춘향영화제, 전국판소리명창대회, 전국 남녀시조 경창 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춘향이 선발대회, 이도령 선발대회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남원시 문화체육과 (063)620-6544

➪교통편

◇철 도: 서울역에서 전라선 남원역에 하차 ◇버스: 남원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 광한루행 버스로 갈아탄다.

◇자가용: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전주역-남원방향으로 직진-광한루

### ⊙소백산 철쭉제

올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충북 단양군 소백산 일원에서 열린다. 철쭉 여왕 선발대회, 철쭉 노래자랑, 철쭉 꽃길 걷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문의)단양군 문화관광과 (043)420-3544

➪교통편

◇철도: 단양역 하차 ◇버스: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소백산 국립공원행 버스를 탄다.

◇자가용 : 영동고속도로-남원주 IC-중앙고속도로 서제천 IC-단양-죽령휴게소

### ⊙주왕산 수달래제

수달래의 꽃 빛깔은 진달래와 비슷하나 수달래가 더 진한 편이며, 특이한 것은 꽃잎 하나하나에 반드시 20여개의 검붉은 반점이 있다는 것이다. 수달래제는 주왕산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여지는 4 · 5일 양일간 주왕산에서 개최되며 산악 마라톤 대회, 등반대회, 산악 구조대 암벽 시범, 환경사진 전시회 등이 열린다. (문의) 청송군 관광경제과 (054)870-6063

➪교통편

◇버스: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청송행 버스를 탄다. 청송에서는 주왕산 국립공원행 버스를 탄다.

◇자가용: 동서울-영동고속도로 이천-남원주 IC-충주-문경-안동-청송-주왕산 국립공원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 성지순례

### 수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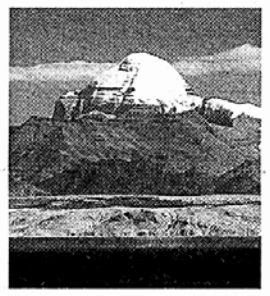
불교에서 수미산은 모든 세계를 지탱하는 우주의 중심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수미산의 둘레에는 일곱 겹의 황금산이 에워싸고 있고, 또 이 산들 사이에는 일곱겹의 바다가 에워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놓여 있다고 한다.

### 12년마다 돌아오는 '철마년'
### 5~6월 각종 불교행사 열려

이런 수미산에는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철마년(鐵馬年)'이 있다. 업장소멸을 의미하는 '철마년'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 11년동안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믿어 대만을 비롯해 인도, 태국 등지에서 철마년만 되면 수미산을 많이 찾는다. 바로 그 철마년이 올해다. 이에 5~6월 수미산에서는 각 나라의 불교행사가 많이 열린다.

티벳 전문 여행사인 '세계일류 여행사'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12박13일간 '아, 수미산'이란 테마로 성지순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는 철마년을 맞아 수미산에서 '영가천도재'도 준비하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네팔의 세계문화유산인 '몽키템플'과 아시아 최대 스투파불탑이 있는 '보다나뜨 사원', 사라진 고대불교와 힌두교 도시 '박타풀'도 참배한다. 참가비는 275만원. (02)722-8121



◇인도불교에서는 '카일라스'라 불리는 티베트 서남부에 위치한 '수미산' 전경.

## 新 동의보감



김 승 수
한의학 박사 · 오덕수 한의원 원장

## 안구건조증 (1)

# 컴퓨터 영향 젊은 환자 늘어

### 눈물 부족이 원인…2주 정도 치료면 호전
### 스트레스 · 지나친 난방 · 컴퓨터 삼가야

눈이 따갑고 뻑뻑해 눈을 뜨기가 힘든 증상을 안구건조증 혹은 건성안(乾性眼)이라고 한다. 눈의 건조감과 함께 작열감, 모래가 있는 듯한 이물감, 눈의 피로감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주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사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젊은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동의보감>의 안문(眼門)에는 동인건결(瞳人乾缺)이라하여 "눈물이 부족해 처음에는 눈이 아프다가 나중에는 시력을 잃게 된다."고 적혀있다.

사람의 눈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반사적인 눈물로서 기쁘거나 슬픈 감정 혹은 연기, 먼지 등의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비되는 눈물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본적인 눈물로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생성돼 눈을 적셔주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윤활 작용을 가진 눈물이다. 이 기본적인 눈물이 부족한 경우가 바로 안구건조증이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눈물 생성이 부족한 경우와 눈물이 과다 건조되어 생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의학적 특징은 눈병을 '눈 안의 병'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신 질환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동의보감> 안문의 첫머리에 "눈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인다(眼爲臟腑之精)." "모든 경락은 눈으로 통한다(諸脈屬目)." 라고 하여 눈이 경락을 통해 오장육부 및 전신과 연결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눈이 단순히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여서 만들어지고, 오장의 정기가 충만해야 눈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한의학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혈소(血少, 피가 모자람), 신허(腎虛, 신장의 기운이 약해짐), 풍열(風熱, 감기 혹은 열성질환), 신로(神勞, 스트레스) 등으로 제시했는데 혈소와 신허는 눈물 생성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풍열과 신로는 눈물이 과다 건조되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치료의 핵심은 화열(火熱)을 내리고 부족한 음(陰) 기운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약, 침치료 및 안대요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치료 후 2주 정도면 증상호전이 나타나서, 2개월 정도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구건조증 환자의 자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열(火熱)을 피하는 것이다. 자주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지나치게 하거나, 장시간의 사우나나 모니터 작업을 삼가야 한다. <동의보감>에는 "시력을 좋게 하려면 자주 눈을 감아라(養目力者常瞑)."고 적혀 있다. (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 제2기 禪 심리치료사 양성 및 심화과정 모집

◇선 심리치료사 란?

선 수행과 불교적 소양, 정신분석학, 동양의학, 심리학 등의 전문지식을 연구하여 심층심리에 잔류하고 있는 음성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마음의 세계를 안정시켜 최상의 무아심리치료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선 심리치료라 하고 이 무아심리요법 전문가를 선 심리차료사라 한다.

◇주요교과

- 불교학
- 선 심리치료학
- 무아선무요법
- 참나찾기 특수 프로그램
- 금강경, 능엄경의 정신분석 심리치료
- 불교문화와 선
- 통찰심리치료
- 집단 선 심리치료

◇교과일정 (필요시 야간반 운영예정)

| 과정 | 요일 | 시간 | 교육기간 |
|---|---|---|---|
| 심화 | 수요일 | 10:00~12:00 | 5.15~10.30 |
| 양성 | 목요일 | 10:00~12:00 | 5.16~ 8. 1 |

◇주요 교수진

- 이법산 :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한국선학회 회장
- 백상창 : 백상창정신과 원장, 통찰심리치료 전문의
- 장태수 : 한국사회복지대학교 총장
- 박운곡 : 동방불교대학 교수, 태고종 중앙 종회의장
- 주명철 : 동국대학교 교수
- 김도각 : 한국선심리치료 연구원 원장
- 성상현 : 법화경, 수능엄경, 육조단경 암송법사

◇입학자격

불교연구자, 포교사, 마음의전화 운영회망자,
유아 · 유치원교사, 초 · 중 · 고등교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자녀를 둔 학부모,
기타(성직자 등)
단, 심화과정은 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

◇수강신청

2002년 5월 25일까지 (통신교육도 가능함)

◇특 전

- 선 심리치료사 자격증 수여
-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료제공
- 참나 찾기 지도자 팔관재 큰 모임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16회 개최 하였음)

◇문의 및 수강신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2호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TEL : 02-326-0248, 738-1275
H.P : 016-301-4080

사단법인 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마음의전화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 北韓 金剛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神秘




이런분은 꼭 사용하세요

- 중차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 대학진학 수험생 부모님
- 선거에 출마를 결심 하신 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아들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 중병으로 투병 중인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승진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金剛 염주의 神秘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으로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神秘한 靈驗으로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福을 부르는 最高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 유일의 神秘의 염주입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와 일부 스님만이 비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0℃ 불에 넣어도 녹거나 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신청문의 전화 :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국내 독점보급
金剛염주社
서울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B/D 406호

# 초대형 108염주 한국온다

## 한알 지름 40㎝ 총무게 5톤, 6월6일 관음사 봉안



◇염주알 한알의 지름이 40cm이다. 왼쪽이 108염주를 만든 임관지 거사. 오른쪽은 태고종 前 총무원장 인곡스님.

### "남북통일기원" 재일동포불자 제작

### 정부협의 거쳐 북한에도 봉안 예정

한 재일교포 불자가 통일을 기원하며 만든 108 초대형염주가 남북한 사찰에 봉안될 전망이다.

태고종 원주 관음사 주지 정오스님에 의하면 재일교포 불자 임관지(한국명 임종오 · 46)씨가 만든 지름 각각 45cm 40cm 대형 108 염주 2벌이 8일 일본을 출발해 20일 한국에 도착, 오는 6월 6일 오후 3시 치악산 관음사 법당에서 봉안식을 갖는다.

일본에서는 화기산 통국사에 지난해 3월 봉안되었다.

임관지씨가 99년부터 1년여에 걸쳐 만든 3벌의 108염주는 단단한 나무로 알려진 수령 2천년의 아프리카산 부핑가목으로 만들어졌다. 정오스님은 "나무뿌리 부분은 북한에 봉안하는 염주로, 기둥 부분은 남한에, 가지 부분은 일본에 봉안하는 염주로 만들어 서로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화 했다"면서 "이 염주들을 남한과 북한, 일본에 봉안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추진위를 구성 봉안불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작자 임관지 거사와 통국사 무애스님은 6월 6일 관음사 봉안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염주알 표면에는 분단에 대한 참회, 조국통일과 번영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

정오스님은 "2벌의 대형염주는 일단 치악산 관음사에 모셔져 기도에 들어가며 북한에 보내질 염주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육로를 통해 유서깊은 사찰 묘향산 보현사에 봉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음사 주지 정오스님은 66년 출가, 80년 일본에 가 대정대학 정토학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일본 기후현 청용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한민족 불교도총연합회 부회장을 맡는 등 재일 조선불교도협회 총무부장 무애(일본 통국사 주지)스님과 친분을 쌓아와 이번에 대형 염주 봉안 불사를 공동 추진하게 됐다.

이경숙 기자

# 7일 미얀마의 날 선포식

## 무료기술교육센터건립 · 근로자 지원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창립식과 '미얀마의 날' 선포식이 7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초대회장인 혜은스님(혜은정사 주지)과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박찬수(목아불교박물관장), 김홍국 이은하(불자가수), 고우종 박종성(사업가) 씨 등 홍보명예대사과 한국주저 미얀마 우 뉴망쉐인 대사 등이 참석해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의 결성을 축하하고, 한-미얀마 친선교류 증진과 주한 미얀마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는 앞으로 미얀마 불교의 종정인 바단타 소비타 딤마 스님이 제공한 2500여평의 부지에 무료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협회 산하에 직영여행사 등을 두고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혜은스님은 "티없이 맑고 순수한 미얀마 스님과 불자들과의 교류 증진과 주한 미얀마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본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02)338-2158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환희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는 4월23일 탑골공원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민간합동 대책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 북한산 금정산 살리기운동 확산

## 도로건설저지 자전거 행진 · 우회노선 촉구집회

북한산과 금정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종교 ·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을 출발해 구파발까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북한산 살리기 자전거' 행진대회를 연다. 광화문, 독립문, 불광동 구파발, 송추를 경유하는 이 행사 참가자들은 일반시민들에게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단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공동대표 일면)는 4월 23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정부의 개발중심 국토정책을 규탄하고 우회노선 검토와 민관합동 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도 4월 17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제 20차 회의를 갖고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북한산 산악마라톤대회(2002 서울 북한산 축제)의 취소를 주최측인 서울시 산악연맹에 촉구했다.

한편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공동대표 성오)는 지구의 날을 맞아 20일 부산 광복동 일대에서 스님, 수녀 등이 참석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달리며 환경의식 고취에 나섰다.

천미희 · 강유신 기자

# 울산남구 노인복지관 포병1사단 부대견학




울산시남구노인복지관(관장 종선)은 18일 관내 노인 200여명을 초청, '포항 1사단 부대견학 및 경주 보문단지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울산시남구노인복지관은 이날 행사에서 군부대 군악 의장대 시범 관람, 군부대 역사박물관 관람을 마친후 경주 보문단지로 이동, 레크레이션으로 흥겨움을 더했다. 울산=천미희 기자

### 본존 봉안불사 기념식

### 총지종, 역삼동 총지사서

총지종은 새로운 본존불을 모시는 '본존 봉안불사 기념식'을 4월 23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봉행했다.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총지종 록정 종령은 법어에서 "이번 불사는 본존을 모시는 불사에서 그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성냄을 조복하고,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득히 담는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 59회 춘계 강공 일정은 4월 23일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 24일 개강불사, 중앙종의회, 승단총회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JTS는 4월23일 부산항에서 대북지원물품 선적식을 가졌다.왼쪽에서 세번째 가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 3억상당물품 대북지원

## 한국 JTS, 생필품 · 비료등 선적

(사)한국JTS(상임이사 유수 스님)는 23일 부산항에서 대북지원물품 선적식을 갖고 3억원 상당의 물품을 북송했다.

법륜스님과 JTS회원들이 참석한 선적식에서는 북한 라선시 탁아유치원, 라선시 함경북도 농장, 함경북도 고아원 등에 비누, 학용품, 옷, 영양제 등의 생활필수품과 분유 15톤, 설탕 30톤, 옥수수쌀 17톤, 밀가루 100톤, 복합 요소비료 80톤, 비닐 24톤 등의 물품이 선적됐다.지원물품 인수 및 분배 과정 확인을 위해 미국 뉴욕 JTS 최경숙 이사, 박진아 이사가 라선시를 방문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 목탁소리

# 군포교사칭 금품 갈취

박 봉 영 (취재1부 기자)

군불교진흥회의 한 관계자가 지난달 25일 본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인즉, 군불교진흥회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군법당에 지원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모사찰에 찾아와 보관물품을 인수해 갔는데, 확인 결과 물품을 인수해 간 사람은 군불교진흥회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어이없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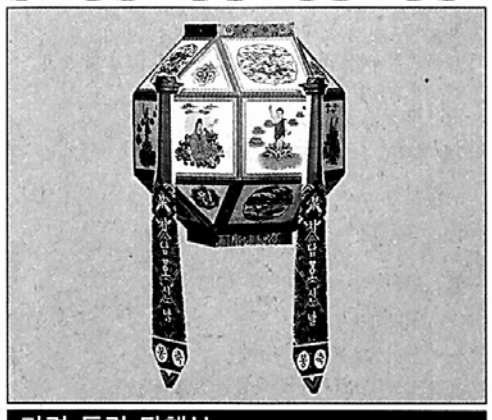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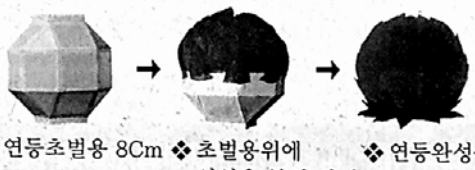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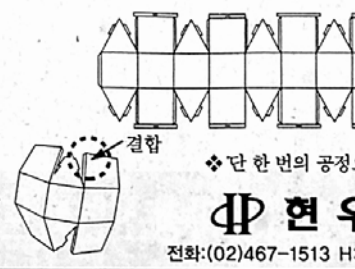
군불교진흥회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군법당에 위문품 보내기 운동'이 한창인 요즘, 이를 악용해 각 사찰에 다니며 '군법당 위문품'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봉축행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은 빈번히 발생해 왔지만, 군포교를 사칭한 사건은 알려진 바 없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구용품 강매나 단순 금품 갈취 등 기존의 수법과는 달리 취약한 군포교 현실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군불교진흥회는 지난달 17일 최초 피해사례가 보고된 직후 불교계 각 종단과 사찰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고 있지만, 개별 사찰까지 공문을 발송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0여일 동안 밝혀진 사례는 3건.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군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포교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불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자비행과 함께 서로간의 믿음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보시를 하더라도 받는 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봐야 하는 세태가 됐다. 갈취 당한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이번 사건으로 불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까봐 안타깝다.

"스님들께서 육임을 하면 역술이 아닌 법력이 되고 맙니다. 육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출간 ▶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좌정용과 휴대용」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
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 년월일시를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
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奇書)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알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또, 어디를 출타할때도 방문 앞에 오늘, 내일, 10일후, 한달후, 1년후 어느날 어느시간에 온 방문자이든 아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써 놓고 외출할 수 있으며, 미리 써 놓은 그것들이 신통하게 맞으므로 내가 자리에 없을때나 외출 할때나 나의 법력과 도력이 크게 과시 되는 것입니다.
■ 이름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했는지
●어떤 특별한 속사정을 이미 겪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겪게 될 것인지
●묻고자 하는일이 어떤것이든 그 육적사가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된다면 묻는 그 육적사가 어느칠, 또는 어느 일에 가서 성사 될것인지
●본인이 저지른 일인지,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
●상대방의 천성이 선한지, 악한지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그 귀신을 어떻게 제압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탈을 해소 시킬 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상이 흉한지, 길한지
●이사를 어느 방위로 몇일날 해야만 길운이 될 것인지
●부적, 굿, 천도, 고사등 수법을 행할때 효과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렇다면 언제 해야만 좋을 것인지
●어는 방위에서 사는 남녀 누구가 묻는 목적을 방해 하고 있는지
●부부간 누가 밀통을 하고 있는지, 한 남자에 두 여자 관계인지, 두 남자에 한 여자 관계인지, 남자가 적극적인지, 여자가 오히려 적극적인지
●병(病)이 나을지 안 나을지, 낫는다면 언제까지 낫게 될 것인지
●집(土地)이 팔릴지 안팔릴지, 팔린다면 언제 팔리게 될지
●임신한 아이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알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해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재,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작, 묘지, 기후 사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해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할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 본 사 : 02-996-3335 당일배달 : 정천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책 값 : 좌정용 1,300,000원 휴대용 1,500,000원 증보판 350,000원
매월별 12권 분권(부록, 비디오 포함) 각종 카드로 장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 육임강의안내 : 육임기초 · 기본에서부터 육임제비법활용단계까지 3개월 12강으로 완성합니다. 수강료는 1백 5십만원이며, 현재 제 1기 30명, 제 6강까지 진행되어 있고, 제 2기는 6월 7일부터 30명 제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드십니다.
■ 육임 통신 강의안내 : 지방에 계시거나 참석시간에 애로가 있는 분들께서는 비디오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의 강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3일이내 도착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사주명리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을 아는데는 태음, 지리를 아는데는 기문, 인사를 아는데는 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주나 일반명리는 묻는 것에 즉답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육임은 묻는 것을 시간만보이 딱딱 부러 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것보다 당장의 문제를 물어 옵니다. 여기에 육임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업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업」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 동학사에 불자·시민문화공간

## 계룡휴계소 자리에 불교문화원 건립



◇동학사 불교문화원 전경.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불자와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 경전·한문·다도·꽃꽂이 교실 등
### 시민·단체에 개방 시설 무료대여

전통 비구니강원으로 역사가 깊은 충남 공주 동학사에 불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동학사(주지 일연)는 4월24일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과 백남훈 공주시장 등 사부대중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사 불교문화원' 개원식을 가졌다. 불교문화원이 들어선 자리는 경내입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계룡휴게소(음식점)가 운영돼 왔던 곳으로, 일연스님이 이곳 상인들을 설득해 불교문화원 건립이 이뤄졌다.

이번에 개원한 불교문화원은 계룡산을 찾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지역 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어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303평 규모의 불교문화원은 1층에 사무실과 영상실, 다도교실, 꽃꽂이교실이, 2층에는 대법당과 도서관이 마련돼 있으며, 불교경전교실, 초·중생을 위한 한문교실, 꽃꽂이교실, 다도교실, 영상실, 문화원 법회, 여름불교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불교경전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학사 주지이자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인 일연스님이 <금강경> <육조단경> 등을 직접 강의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정강스님(경주 실혜사)이 지도하는 꽃꽂이 교실과 허경란 교수(부산여대 겸임교수)가 지도하는 다도교실이 열린다. 이와 함께 초·중생들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기간동안 예절과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한문교실이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다.

또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는 영상실을 개방하고 불교와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한다. 불교문화원은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와 환경문제 등을 다룬 영상물을 준비해놓고 있다. 도서관은 불교관련서적과 일반서적을 갖추고 불자 및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된다.

불교문화원은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된다. 매주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하는 '문화원법회'가 열리며, 동학사 거사림불자 법회와 대전 운전불자 연합회 법회 등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급 신행단체를 비롯허 일반 시민·사회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해, 미리 신청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불교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사"라며 "불교문화원이 포교와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 베트남에 한국사찰
## 관음사 낙성법회

베트남 최초의 한국사찰 관음사(주지 정인)는 21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법당 낙성법회 및 봉불식을 봉행했다.

관음사 조실 정각스님, 교민불자 등 15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정각스님은 법문을 통해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부처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진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낙성법회를 계기로 관음사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과 한국불교의 기본 교리와 신행 교육을 위한 초심자 교육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 "불교학 발전위해 써달라"
## 80대 할머니 동국대에 13억

### 유언공증서 전달, "이름 절대 밝히지 말라"

4월 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스님이 3억 원을 기증한 데 이어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은 80대 합머니가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불교학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동국대에 기증했다.

4월 24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23일 유언 집행 대리인과 송석구 총장을 찾아와 정기예금 10억 원과 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후에 기증하겠다는 '유언 공증증서'를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불교학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동국대 측은 밝혔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한국전쟁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평생을 독신으로 산 할머니는 부산에서 포목상 등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내놓았다.

동국대 송석구 총장은 "불자들이 사찰 등의 불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주금을 내지만 불교학 발전을 위해 거액을 희사한 경우는 근래 들어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교대학장 보광 스님은 "불교대학 발전을 위해 3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터에 이 같은 정재가 들어와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이 할머니의 법명을 따 영구히 기릴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부속병원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사후 장례와 49제 등을 치러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 주한 외국인대상 적극 포교

## 미8군·외국인 근로자들 대상
## 3일 저녁 한미연합사 법회 봉행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가 미8군 및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국내외 외국인 포교에 적극 나선다.

국제포교사회는 4월 26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가진 '국제포교사회 후원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국제포교사들의 해외포교와 국내 외국인 대상 포교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등 몇몇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해외포교를 벌여온 실정에서 국제포교사회는 미8군과 외국인 노동자등 국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와 해외포교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첫 행사로 5월 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장교식당에서 미군 등 200명이 참석하는 미8군 법회를 갖기로 했다. 현각스님의 참선강의 등이 진행되는 이번 첫 법회를 계기로 국제포교사회는 3년 전에 문을 닫은 미8군법우회를 재조직, 본격적인 주한미군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과 후원 등 미얀마, 스리랑카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개선 및 유학 지원사업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백원기 회장은 "주한외교사절 초청법회 등도 실시해 국내 외국인 포교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포교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4월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선포식이 끝난 뒤, 행사 주관 단체와 사찰신도회 대표들이 '희망'의 등'을 달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창기 중앙신도회장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 "이웃위해 희망의 등 밝히자" 선포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선포식이 4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각 사찰 및 신행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포식은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스님의 격려사,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의 인사말,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상임이사의 동참문 낭독에 이어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과 안승기 봉은사 신도회장의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포교부장 상운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물질만능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등을 밝히려는 마음이 세상도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광륜사 개원법회
### 청화스님, 시민선방 지도

서울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광륜사가 5일 오후 1시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청화스님이 대중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원통불법도량으로 문을 여는 광륜사(주지 대천)는 청화스님 법문과 함께 범패 및 불교현악 4중주 공연 등 개원기념 행사도 갖는다. 또 일반인과 불자들이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시민선방을 개원한다. 시민선방은 04시, 08시, 14시, 19시 등 4차례 2시간씩 정진할 수 있다.

한편 광륜사는 불교 교리, 신행, 교양, 불교문화, 비교종교, 사회복지, 인본주의 등의 내용을 담는 4×6판, 발행면수 160쪽 분량의 계간 '광륜'지도 개원일에 맞춰 발행할 예정이다. 02)954-5849. 김원우 기자

## 봉축용 기념소책자
## '부처님 오신날' 인기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설법연구원이 제작한 봉축행사 겸용 기념 소책자 <부처님 오신날>이 인기를 끌고 있다.

4×6배판과 4×6판 두 종류로 발간된 <부처님 오신날>은 청보리회 김재영 법사와 정토회 보수 법사가 각각 집필했다.

4×6배판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과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독특한 형식으로 △왜 연등을 밝히나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나 △왜 하늘과 땅 위에 나홀로 존귀하나 △불행과 고통은 어디서 오나 등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4×6판<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 탄생에서 열반까지 일대기와 관불의식, 불탑 예배의 공덕 등을 핵심만 간추렸다. (02)720-0824 박봉영 기자

# 불교상담대학원 건립추진

## 상담개발원, 2년제로 하반기 설립준비위 구성

불교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정부인가 '불교상담대학원'이 설립 추진된다.

조지종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 이하 상담개발원)은 4월 20일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2년제 정규대학원인 '불교상담대학원' 설립을 위한 1차 준비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후 원장은 "전국 각 사찰별 자원봉사 수준의 불교 상담인력을 좀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교 자체가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교계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 수유종합복지관 준공
### 이동찬 코오롱명예회장 기증

사회복지법인 은가사(이사장 수혜)는 5월 3일 오전11시 서울 수유2동에서 수유종합복지관 준공식을 갖는다.

이번에 준공된 수유종합복지관은 코오롱 그룹 이동찬 명예회장이 건립해 기증한 것으로, 이 명예회장은 10년 전 12억 규모의 길음복지관을 건립해 기증한 바 있다.

수유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5층, 건평 573평 규모로 1층 구립 어린이 집을 비롯해, 저소득 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등이 들어서게 되고, 일반 지역주민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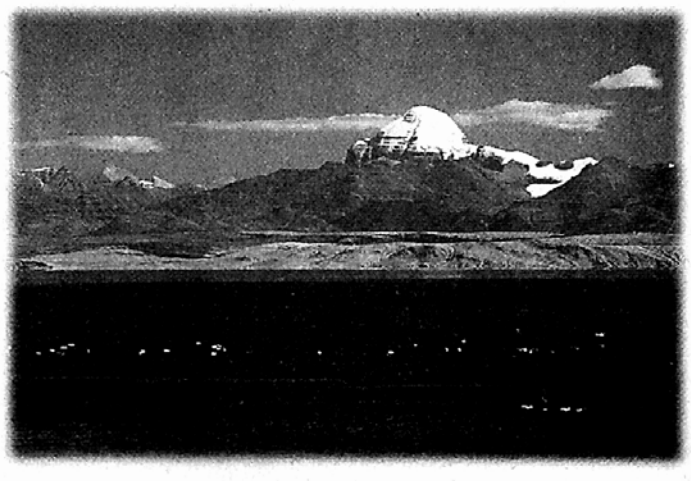
이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일대 10만여 주민은 물론,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02)985-0161

김철우 기자


# 극락불토 수미산 영가 천도제 참가단 모집

## 철마년이란?

12년에 한번 돌아오는 업장소멸의 해로
올해가 철마년(鐵馬年)입니다.
이 해에 수미산에서 수행을 하면
업장이 소멸됨과 함께 12년의 공덕을
얻는다 하여 지금 수미산은
대만, 일본, 태국등 세계 각국에서 온
불교신자들로 붐빕니다.



**행사 일정** (본 행사는 수미산 행사 외 티벳, 네팔 순례를 겸합니다)

5월 28일 오후 7시 경 인천공항 집결- 중국 성도 도착
5월 29일 성도 - 티벳, 라싸 포탈리, 철방사 순례
5월 30일 라싸, 장체, 시가체 곰뭄, 백탑사 순례
5월 31일 타쉬룬포 순례, 라체로 이동
6월 1일 라체, 시가순례
6월 2일 시가 수미산 입구 파양 순례
6월 3일 수미산 순례
6월 4일 수미산 영가천도제, 성호 마나사로바 순례
6월 5일 수미산 개별 자유 수행 순례
6월 6일 시가, 장무 도착
6월 7일 장무, 코다리사원 순례, 네팔 카트만두
6월 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네팔 몽키탬플, 보다나뜨, 박타풀 순례
6월 9일 카트만두, 상해 거쳐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전 11시경 인천 도착(12박 13일)

- **참가대상**: 본 행사는 스님 외 속인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인솔하는 속인은 가능합니다)
- **참가비용**: 275만원(현지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참가문의**: (02)722-8121~5 팩스(02)734-3565 (자세한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5월 18일(토요일)

※본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우신 스님들께서는 하안거 직후의 2차행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철마년(鐵馬年) 맞이 수미산 영가천도제 준비위원회**

▣ 천도제집전 · 대운사(大雲寺)주지 智雲스님 및 순례참여 주지스님 동참 (영가천도를 원하시는 스님들은 영가를 준비하신 후 동참하시면 됩니다)
▣ 주관 · 천도제 준비위원회, 세계일류여행사(문화관광부 주최 한국여행상품전 '금상' 수상, 2001년 티벳 송출 1위 여행사), 中國城都여행사, 티벳과학기술여행사, 네팔카트만두에코여행사



영취산의 얼굴 명선스님

### 수군義僧 얼 기리는 박물관 건립 몰두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흥국사를 참배하고 가는 한 젊은 스님을 향해 밥일을 하던 노인이 한 말씀 건넨다.

"문고리는 잡으셨소?"

"예—."

"삼악도는 면하시겠구려."

그 후로 그 젊은 스님은 화엄사 주지와 조계종 종회의원을 거쳐 1985년에 다시 흥국사를 찾았고 지금까지 절을 지키고 있다. 그 스님이 바로 흥국사 회주 명선 스님이다. 지금은 수군 의승의 얼을 기리는 박물관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계신다.

# 국운 융성 기원하던 고려國刹



◇조선중기에 조성된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96호) 내부. 다채로운 공포 조각과 처음 그대로의 단청이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보물 제578호로 조선 숙종19년(1693)에 제작된 후불탱화(부분). 원만한 형태와 고상한 색채가 조화를 이룬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 그 절에 가면

영취산 흥국사

## 보조국사 창건…몽고 · 왜 침입때 수난

## 無私殿 편액 자비 · 평등 정신 발현

무릇 지극한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른 바 무위(無爲)라고 하여, 노장(老莊)에서는 그것을 '도(道)'라 일컫고, 선가(禪家)에서는 '니르바나(涅槃)'의 의미로도 씁니다.

그런데 '가꾸지 않음'이야말로 '큰 가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돌봄이 곧 그것이니,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오면 맞으며, 피어나고 사라지고 잠드는 만물의 생주이멸(生住異滅)이 다 그로 말미암음입니다. 여수행 기차에 몸을 싣고 흥국사 찾아가는 길, 차창을 스치며 지나는 풍경들이 일깨워준 생명의 실상입니다.

아무렇게나 피어난 듯한 꽃들, 푸른 비늘을 번뜩이는 나무들, 모두 하늘의 보살핌에 편안히 몸 맡긴 표정입니다. 부처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더 살아야 저런 표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득합니다.



◇대웅전 문고리. 대웅전을 조성한 41분 스님들의 원력이 담겨있어, 잡기만 해도 삼악도를 면한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여수, 하면 오동도를 떠올리는 사람에게 흥국사는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요즘은 여수 공단의 살풍경에 가려서 더욱 멀게 느껴지는 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국사는 정감 넘치는 옛절의 질박함을 곱게 간직한 절입니다. 사람이 한 일도 그 정성이 지극하면 '무위(無爲)의 미(美)'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그런 절입니다.

흥국사는 곧장 일주문을 향해 성큼성큼 들어갈 절이 아닙니다. 가람을 감싸듯 흘러내린 두 줄기의 계곡이 합쳐지는 초입의 개울을 가로지르는 무지개다리(虹霓橋. 보물 563호)를 그냥 스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봄만으로 어루만짐을 대신해 줄 정도로, 쌓은 이의 정성이 몸으로 느껴지는 다리입니다.

무지개다리를 지나 일주문만 지나도 가람의 분위기는 이슥해집니다. 만약 이른 봄이라면 동백꽃 붉은 등불이 길을 밝혀 줄 것이고, 요즘 같은 때라면 짙푸른 녹음이 세상사 어지럽증을 달래 줄 것입니다.

흥국사(興國寺)는 이름 그대로 나라의 흥성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고려의 국찰입니다. 고려 명종 25년(1195)에 보조 국사가 창건한 후, 몽고군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것을 조선 명종 14년(1559)년 법수 스님이 중창했으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 인조 2년(1624) 계묵 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라의 흥성을 기원한 사찰이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마다 곤경에 빠졌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난감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역사의 흥망 속에, 위정자에 강요당한 충성이 아닌 호국이 있었으니, 부처님의 자비가 어떻게 세속적 가치와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절에 전해오는 얘기 한 토막 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화에 휘말린 남해안. 농어민들이 농토와 바다를 등지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구의 노략질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 실로 그들의 등을 떠민 것은 무력한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급기야 이순신은 흥국사를 찾습니다. 그 무렵의 흥국사는 700여 수군 의승의 주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전술 아닌 전술 조언을 듣습니다.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려 해서는 안된다. 덕으로써 어버이와 형제, 자식을 대하듯 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평등정신이다. 백성과 고락을 함께하라."

그 동안 우리는 호국 불교를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 옹호와 다름없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당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동체대비의 실현. 진정한 호국 불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란 후에도 흥국사의 수군 승병은 300명으로 조직되어 국력 쇠퇴기의 민중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병 승군의 정신은 고스란히 가람의 중건으로 이어집니다. 대웅전의 불상에서 '조선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당대 민중들의 피안 희구를 끌어안은 모습입니다.

흔히 명부전이나 지장전이라 불리는 건물에 '무사전(無私殿)'이란 편액을 건 것도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자비 평등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국사의 중심 불전인 대웅전(보물 제396호)은 이러한 정신이 집약된 곳입니다. 특히 공포의 건물 안 출목 장식이 모두 다른 점도 이채로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임진왜란 후 41명의 스님들이 1000일을 기약하고 손수 목수 일을 하며 기도의 자세로 대웅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각기 41개의 공포를 맡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들 41비구의 원력은 마침내 문고리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이 문고리를 잡은 모든 중생 삼악도를 면하기를….' 문이 비록 열리기 위해 존재한다 해도, 다가가 열지 않는 자에게는 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고리 잡기, '선근(善根) 심기'입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